



1

1992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92. 1호

(루게 531)



◆◆◆◆◆◆◆◆◆◆

차 례

◆◆◆◆◆◆◆◆◆◆

당과 수령의 령도따라 뜻깊은 새해 문학작품창작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키자 4

인민의 축원 7

이해에 드리는 축원 8

김일성 주석께 영광을..... 9

우리의 새해 10

향도성의 빛발..... 11

영원한 축복 11

잊을수 없는 정초의 겨울날에..... 12

백두의 성지 소백수쿨..... 14

붉은 빛발에 물들어 17

30 분 17

명제해설 18

새해 19

총서 《불멸의 력사》 중 장편소설 《조선의 봄》의 사상미학적특징 20

땅과 로인..... 25

한해의 새길을 긴장하게 전투적으로!..... 26

당에 기쁨드릴 명작을!	26
읽히울 장편소설을!.....	27
5 대과업관철에서 돌격대의 영예를 지니겠다	27
마음의 나래	28
샘물	29
통일념원 굽이치는 건설장에서	30
충성의 별들	31
1 월은 숨신다	36
나에게 가장 기쁜 순간은 (외 2 편).....	39
일감에 대한 생각.....	39
나의 출근길	40
교문	41
피리소리	42
길을 비켜주자(외 1 편).....	50
호각소리, 종소리	50
두 녀인	51
멀고도 가까운 나라	63
아름다움에 대한 생각.....	66
그날은 오리라.....	67
통일영웅의 빛나는 삶.....	75
손을 잡자.....	78
기다리는 마음.....	79

당과 수령의 령도따라 뜻깊은 새해 문학작품창작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키자

투쟁의 년대, 희망의 년대로 빛나는 90년대의 세번째 해가 왔다.

지금 모든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새해 신년사를 받아안고 신심과 락관에 넘쳐 문학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일대 앙양을 일으킬 불타는 결의에 충만되어있다.

올해는 우리 인민들과 세계혁명적인민들이 뜻깊은 최대의 경사로 맞게 되는 4월의 명절과 함께 2월의 명절을 기념하게 되는것으로하여 90년대에서도 가장 의의깊은 해이다.

민족최대의 경사의 날들을 앞두고 새해의 첫진군길에 오른 우리 작가들은 지금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지난 한해를 감회깊이 돌이켜보고 있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90년대의 위대한 진군을 시작한 우리 인민은 지난해에도 신심드높이 사회주의기치를 끝까지 옹호고수하며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 식 사회주의의 불패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빛나는 위훈을 세웠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사회주의적책동으로 말미암아 사회주의가 심한 우여곡절을 겪고있는 정세속에서도 우리 인민은 추호의 동요와 주저도 없이 사회주의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거대한 전진을 이룩하였다.

오늘 우리 인민은 수령, 당, 대중이 일심단결된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심장으로 체득하고 당과 수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나아갈 때 사회주의는 반드시 승리하며 우리 식 사회주의의 불패의 공고성과 위력은 그 어떤 광풍에도 흔들림 없이 더욱 강화된다는 신념을 철석같이 간직하고 있다.

우리 작가들은 당과 수령의 령도를 받들고 주체문학을 건설해오는 승리의 로정을 통하여 사회주의위업에 복무하는 문학, 참다운 혁명문학을 강화발전시키는 길은 오직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는데서만이 이룩될수 있다는것을 신념으로 간직하고있다.

지난해에 우리 작가들은 우리 당 건설과 활동에서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라는 최대의 신임을 받아안았으며 당 문예로선의 견결한 옹호자, 철저한 관철자가 될데 대한 5대명제를 받아안았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우리 작가들에게 주신 5대명제는 우리모두의 생명선이며 필생의 좌

우명이고 창작의 지침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안겨주신 5대명제를 받아안은 우리 작가들은 지난해 문학작품창작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켰으며 주체문학건설에서 큰 전진을 가져왔다. 이리하여 우리 문학의 주체성을 더욱 강화하고 문학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앙양을 이룩하였다.

지금 우리 작가들의 창작적열의는 비상히 높으며 당의 령도를 따라 주체문학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리라는 한결같은 결의에 가득차있다.

오늘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매우 높은 단계에 들어선 우리 혁명과 격변하는 정세의 파동속에서 사회주의기치를 철저히 옹호고수해야 할 시대적임무가 절박하게 나서고있는 현실은 우리 주체문학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며 문학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킬것을 요구하고있다.

더우기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람들의 사상정신생활과 문화정서생활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됨으로써 그들속에서 문학예술에 대한 요구가 비할바없이 높아지고있는 현실은 문학을 더욱 발전시킬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오늘 우리 당은 우리 혁명발전과 시대의 미학적요구에 맞게 우리 문학을 더욱 빨리 발전시키는데서 가장 중요한 고리를 작가들의 정치사상적 및 미학적 준비에서 찾고 이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최근 우리 작가들에게 언제나 변함없이 당의 령도를 충실히 받들어나가는 당의 작가, 혁명의 작가가 될데 대하여 간곡하게 가르쳐주시었다.

우리 작가들이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변심을 모르고 당의 령도를 충실히 받들어나가는 당의 작가, 혁명의 작가로 되기 위하여서는 당과 수령의 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오직 당이 바라고 요구하는 작품만을 쓰는 작가로 철저히 준비되어야 한다.

참다운 당의 작가, 혁명의 작가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과 의리로 간직하고 지극한 효성으로 당과 수령을 받들어 모시며 당이 의도하고 바라는 작품을 높은 사상예술적경지에서 창작할수 있는 정치실무적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밝혀주시는 길을 따라 한치의 드림도 없이 나아가며 지도자동지께서 가르쳐주시

는대로만 하면 문학작품창작을 성과적으로 해나갈수있으며 주체문학의 찬란한 미래를 확고히 담보할수 있다는 하나의 신념만을 심장깊이 간직하는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상과 리론을 신념화하고 그것을 모든 창작과 생활의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작품을 쓰고 재여보고 완성해나가는 여기에 당적작가, 혁명적작가의 참다운 모습이 있다.

당의 작가, 혁명의 작가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당이 바라고 의도하는 작품을 창작하여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의 문학예술은 당보의 사실과 같이 호소성이 높아야 하며 현실보다 앞서나가면서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에서 동원적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 문학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자면 형상을 통하여 당의 요구를 구현할 때 사람들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동원하는 고무적기치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다할수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현시기 우리 작가들이 사회주의기치를 철저히 옹호고수하며 당의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는데 이바지하는 작품, 5대명제를 관철하는 작품을 창작할데 대한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제시하여주신 이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이 바로 현시기 당의 작가, 혁명의 작가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길이다.

우리 작가들은 새해에도 사회주의기치를 철저히 옹호고수하는데 이바지하는 문학작품창작에 화력을 집중하여야 한다.

특히 오늘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사회주의를 말살하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면서 비렬한 공격과 비난을 가하고있는 참예한 정세하에서 우리는 우리 식 사회주의 우월성에 대한 빛나는 형상으로 온갖 원썬들의 공격을 맞받아나갈 것부서 버려야 한다.

사회주의기치를 옹호고수하는 문학작품창작에서 사회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것을 원리적으로 깊이있게 인식할수 있도록 형상을 심오하게 하는것이 또한 중요하다.

작가들은 문학작품을 통하여 착취와 압박이 없는 사회에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려는것은 인민대중의 세기적념원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압제자들을 반대하는 피어린 투쟁을 벌려왔으며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사회주의를 일떠세웠다는것을 형상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주의야말로 인류력사에 존재한 모든 착취사회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사회로서 계급적원썬들과의 치렬한 투쟁을 벌리며 전인미답의 길을 헤쳐나가야 하는것

만큼 전진도상에는 일정한 우여곡절도 겪을수 있지만 인류가 사회주의길을 따라 나아가는것을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수 없는 력사발전의 법칙이라는것을 생활적으로 체득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문학작품을 통하여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형상적으로 확증하는데 창작적 탐구와 사색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 식 사회주의의 공고성과 불패성의 비결은 인민을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 내세우고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라는데 있다는것을 형상적으로 높이고가하여야 한다.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형상하는데서 근본핵은 당과 수령의 위대성을 더 잘 형상하는것이다.

우리 인민은 수천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령도를 받게 됨으로써 오랜 수난의 력사를 끝장내고 혁명의 새 시대를 맞이할수 있었으며 사회주의의 새 력사를 승리적으로 개척하여올수 있었다.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의 우월한 사회주의가 건설된것은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시고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활동과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영원한 생명력으로 되는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은 바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에 원천을 두고있다.

우리는 문학작품에 아버지수령님께서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시고 인민의 념원을 빛나게 실현해주시기에 인민은 수령님을 아버지로 끝없이 존경하고 높이 우러러모시며 수령님께 충성과 효성을 다하고있다는것을 형상적으로 깊이 구현하여야 한다.

우리는 또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이어나가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성을 형상하는데 모든 창작력량을 집중하여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을 형상하는것은 우리 문학이 지닌 가장 영광스러운 사업이며 최고의 영예이고 특전이다. 우리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드시고 우리 식 사회주의의 불패의 공고성과 위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치시며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 형상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바로 이 숭고한 사업을 충성과 효성의 마음으로 성과적으로 수행하는것은 당의 작가, 혁명의 작가의 가장 중요한 본분이며 근본요구이다.

모든 작가들은 우리 식 사회주의를 세워주시고 그를 빛내여나가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 형상을 최상의 사상에술적 경지에서 더많이 창조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수령님과 지도자동지께서 가리키시는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모든것을 다바쳐 투쟁할수 있도록 힘있게 이끌어주어야 한다.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는데 이바지하는 문학작품을 창작하는것은 현정세로 보아 매우 절박하게 나서는 시대적임무이다.

사회주의사회에 대한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를 보장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사회주의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이다.

작가들은 문학작품을 통하여 인민대중중심의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것을 자기의 숭고한 사명으로 하고있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를 확고히 실현하여 당의 령도를 충실히 받들어나갈 때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다양한 형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인민들로 하여금 오직 로동계급의 당인 조선로동당만을 자기의 유일한 향도적력량으로 여기고 당에 자기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당의 령도를 충실하게 받들어나가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제시하여주신 5대명제를 문학창작사업에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당의 작가, 혁명의 작가로서의 기본사명을 다하기 위한 근본문제이다.

우리 작가들은 모든 문학형태들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제시하여주신 5대명제를 철저히 구현하여야 하며 창작사업에 관철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문학작품들이 명실공히 당과 수령의 의도를 철저히 구현하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는 위력한 무기로서의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의 작가, 혁명의 작가로서의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창작을 혁명적량심과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하여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최근 우리 작가들에게 창작을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당에 대한 깨끗한 량심을 지니고 불타는 열정으로 할데 대하여 간곡하게 가르쳐주시였다.

창작을 량심을 가지고 한다는것은 우리 작가들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가장 깨끗한 충성심과 효성을 가지고 심장으로부터 우러나온 감정과 열정으로 자각적으로 창작한다는것을 말한다.

우리가 지녀야 할 량심은 바로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과 효성에 기초한 혁명적량심이다. 혁명적량심은 개인의 생명보다 사회정치적집단의 생명을 더 귀중히 여기는 가장 깨끗하고 순결한 사회주의의식이다. 이러한 혁명적량심의 가장 높은 형태는 당과 수령에 대한 신념화되고 의리화된 충성심이며 효성의 마음이다.

그러므로 우리 작가들의 혁명적량심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신념화되고 의리화된 충성과 효성의 마음으로서 티없이

깨끗한 가장 순결한것이며 스스로 우러나오는 가장 진실한것이다.

당에 대한 량심은 고도로 신념화되고 의리화된 충성과 효성을 본질로 하는것으로 하여 그리고 가장 순결하고 진실한것으로 하여 그것은 뜨거운 심장의 열도를 동반하는 불타는 의식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창작을 량심과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는것은 당과 운명을 같이하는 당의 작가의 참된 삶의 비결과 리정표를 밝혀준 지도적지침이다.

모든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순결한 량심과 불타는 창작적 열정을 가지고 현시기 당이 요구하는 문학작품을 높은 사상예술적경지에서 창작하여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당의 작가, 혁명의 작가는 정신적으로 로쇠하지 말고 패기와 열정을 가지고 창작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이것은 당과 운명을 같이하는 당의 작가의 참된 삶의 비결과 리정표를 밝혀준 지도적지침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문학예술혁명을 령도하시던 때 그이를 따라 창작사업을 하던 작가들이 이제는 로세대의 작가로 되였다.

창작은 혁명적 기백과 열정에 의하여 진행되어야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로세대의 작가들이 정신적으로 로쇠하지 말고 패기와 열정을 가지고 창작하여야 문학예술을 령도하면서 쌓아올린 당의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여나갈수 있으며 우리 당이 품을 들어 키워놓은 작가대렬을 더욱 강화해나갈수 있다.

로세대의 작가들뿐아니라 젊은 작가들이라고 해도 정신적으로 로쇠해지면 좋은 작품을 쓸수 없으며 일찌기 창작적생명을 잃고 자기의 존재를 끝마치게 된다. 그러므로 당과 운명을 같이하는 당의 작가는 로작가나 젊은 작가나 할것없이 정신적로쇠를 모르고 패기와 열정에 넘쳐 청춘의 기백으로 창작하여야 한다.

작가들이 로쇠를 모르고 패기와 열정에 넘쳐 언제나 청춘의 기백으로 창작하기 위하여서는 당의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당을 받드는 작품을 쓰기 위하여 항상 머리를 쓰고 부단히 사색하여야 하며 당의 령도밑에 문학예술혁명을 하던 그 기백, 그 열정으로 창작을 하여야 한다.

우리 작가들앞에 나선 중대한 시대적임무는 모든 작가들이 혁명적생활기풍과 창작기풍을 더욱 철저히 확립하고 영화혁명, 가극혁명을 수행하던 때의 정신으로 창작하며 생활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모든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올해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우리 식 사회주의를 더욱 빛내이며 거대한 진군을 다그치고있는 온 나라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에 자기의 불타는 심장의 열도를 합치며 새해 창작사업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킴으로써 당의 작가, 혁명의 작가의 숭고한 사명을 영예롭게 수행해야 할것이다.

인민의 축원

김영길

밝아오는 설날아침이면
우리 수령님 우러러
삼가 큰절을 드리는 마음속엔
더욱더 간절해지는 소원이 있습니다

생각도 흰눈처럼 순결해집니다
소원도 송림처럼 푸르러집니다
인민 위한 먼길에 첫자옥 떼시였고
인민 위해 한평생 걸어오신
영광의 그 자옥자옥우에
또 한해 희망찬 새해가 더 큰 행복을 앞세우고
밝아온 이 아침

이해에는 내 노래의 큰절을 드리고저
마음속 진정의 축배를 올리고저
밤밝혀 고르고고르는 글줄이 젖어옵니다
또 한해 수령님 걸으신 길우에
흘날리는 그 진눈가비, 북방의 찬비바람...

눈보라만리, 혈전만리
천고림의 만년설을 헤치시던
20대의 그 피끓는 혈기로
퐁퐁 얼어붙은 강동벌을 녹이시며
온 나라를 충성의 흠뻑이여로 부르시던 그 모습

젊으십니다, 정정하십니다
격변하는 시대의 낮과 밤을 이으시며
지구우에 높이 드신 사회주의붉은기
이 땅우에 노을로 펼쳐가시는 그 열정

개선광장의 높은 연단우에 넘치던
30대의 정기를 지니시고
전승광장의 하늘가에 빛나던
40대의 기상으로
걸음걸음 대교조의 불바람도 일으키시고
자옥자옥 만풍년의 가을도 무르익히셨나니

북변의 온성땅에
동해기슭 봉대벌에
그 정기받아 알알이 여문 열매들이

산처럼 쌓여 금빛으로 빛납니다
자강땅의 물살빠른 강줄기들이
그 기상안고 내달으며 폭포치며
수력타빈을 안고 듭니다

지칠줄 모르시는 그 열정
왕성히 높뛰시는 그 숨결안고
홍남의 하늘가에 합성탑들이 솟고
대형압축기들이 높이 소리칩니다
자동화의 신호등들이 반짝이고
새집 층층 거리들이 뻗어가고...

기뻐드립니다
행복에 목메었습니다
장장만리 또 만리
린방의 광활한 대륙을
수령님 정력에 넘치시여 걷고걸으시니
인민이 누리는 만복중에
이보다 더 큰 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아, 우리 수령님
머리우에 늘어나는 흰빛은
한평생 인민 위해 바치신
순결한 마음의 빛입니다
인민 위한 헌신으로 빛나는 자옥입니다

아버이수령님!
해가 가고 새해가 또 왔습니다
날이 가고 설날이 또 밝았습니다
온 강산에 축복의 흰눈꽃이 피여난
희망의 이 아침
기쁨의 이 아침

인민의 축원답아
삼가 노래의 큰절을 드리웁니다
만민의 정이 고인 축배를 올리웁니다
아버이수령님!
영원히 젊음의 정기를 지니시고
부디 만수무강 하십시오!

이해에 드리는 축원

정렬

지는 해가 두고 가고
뜨는 해가 안고 솟는
감사의 정이 넘치는 강산에
뜻깊은 새해가 밝아왔어라

궤도전차의 정류소에
일어서는 통일거리의 지붕우에
소담히 내리는 눈도
못잇을 감격
하많은 사연을 속삭이는 이 아침

송이송이 아름답게 엮은 꽃바구니에
받들어 모시는 한마음 담아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만수축원의 인사를 드리여라

돌이켜보면 생각도 깊어지는
지난해의 정초
군대와 인민이 떨쳐나와
혹한속에 로반을 닦던
궤도전차공사장을 돌아보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인민의 념원을 안고 오신듯
밤깊은 집무실창가에서
수원들을 둘러보시며
선언처럼 하시던 말씀

우리 당이 인민과 한 약속인데
어겨서는 안된다고
빨리 완공하여
개통식의 테프를 끊자고...

아, 인민이란 무엇이기에
그 인민과 하신 말씀을
그이께서는 약속이라 하시며
한마디도 홀리지 않으시는것인가
인민의 청원이라면
그처럼 무겁게 받아들이시는것인가

사랑의 약속
력사가 알지 못하는 그 약속에
강산이 목이 메여 들먹거렸고
이 나라의 산과 들과 시내물이
그 음성 노래처럼 받아 전했거니

그처럼 위대하고 성스러운 약속
약속중의 약속이 있다는것을
오늘은 달리는 궤도전차가 말해주고
하늘가에 들리는 통일거리와
이 땅의 창조물들이 이야기해라

친애하는 그이께서 지켜주시는
그 드팀없는 약속
그이의 결심과 담력으로
모든것이 시작되고
모든것이 열매로 주렁지는 이 땅

하늘이 높다 해도
인민에게 베푸신 그 은정
그보다 더 높고
바다가 깊다 해도
인민이 받아안은 그 사랑
그보다 더 깊고깊어

지구가 흔들려도
추호도 흔들림없을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조국에서 맞는
희망찬 새해여서
이 아침 인민이 드리는 인사
그처럼 뜨겁고 간절하여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이시여
인민의 다함없는 축원속에
영원히 청춘을 지니시고
만수무강하시라
부디부디 만수무강하시라

김일성주석께 영광을

누이와니스 봉

조선의 어린이들 학습장에 또박또박 적어가
크나큰 행복 안겨주신 원수님의 존함을
다함없는 감사와 존경을 담아
인민들 기념비적건물들에
그이의 존함 금문자로 새겨가네
영원히 높이 모실 수령님의 존함을

바다와 대양을 항행하는 선박들에도
하늘을 날으는 비행기들에도
조선의 철학 조선의 리상
주체의 기발이 높이 휘날리어라
조선에서도 세계에서
인민들은 그이를 열렬히 칭송하여라
그이께서 이룩하신 업적을 두고
그이의 헌신성과 충실성을 두고
인민들은 그이께 희망을 걸고 미래를 맡기어

탄생일을 맞으시는 그이
천국의 창공높이 솟아
태양과 길이 우리를 비쳐주시거니
그이는 우리의 영명하신 령도자이시여라

그이께서는
우리의 자유와 자주, 우리의 신념을
지켜주시거니
인민들은 그이께 자기들의 운명을 맡기고
그이의 령도따라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더 좋은 세계를 건설하리라
정의와 평화 그토록 념원하던 행복이 넘치는

새 세계를

인류는 불평등과 무지, 불공평으로 하여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던가
하여 인류를 이끌어줄 현명하고 능력있는 령도
자를 얼마나 고대해왔던가
미더운 령도자

온갖 혼란을 이겨낼줄 알고 용기를 내는 령도자
특권과 지위를 람용하지 않고
인민의 의사와 요구를 존중하는 령도자를

인류는 아직도 억압과 박해를 받고
약육강식의 희생물로 되고있으니
잘못은 언제나 약한자에게 있다는 관념이
지배하여
가난하고 맞아죽는자 멀리받는자에게 죄가
돌아가는 세상
그이께서는 삶은 곧 투쟁이라 가르치시거니
투쟁을 회피하는것은 구원의 길이 아니다
거세찬 비바람 맞받아나가는 바위처럼
튼튼한 뿌리로 항거하리
흔들리지 않는 결심과 인내성으로 이겨내리

그이께서는 혁명투쟁은 인민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시나니
인민은 자기의 운명을 자신이 결정한다
그것이 없이는 미래도 희망도 없으리

(필자는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아시아
태평양지역담당국장임)

우리의 새해

량덕모

저 하늘에 해가 솟아
새날이 밝아오듯
우리의 새해는 시작되여라
신년사를 하시는
어버이수령님
그 밝으신 영상에서

목메여 우러르며
삶의 행복으로 눈물짓는
이 순간의 환희로움
그것으로 하여
인생의 한해를 넘어서는 우리 마음
파도처럼 일어번지는데

분에 넘치여라
지나간해
먼 북변과 자강땅 한끝까지
풍년든 강냉이밭도 돌아보시고
철산봉이며 기계바다며...
또다시 찾으시여
새 전망의 노을을 엮어주신 수령님
자신의 로고는 다 잊으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감사를 주시나니

격정으로 들먹이여라
뜻깊은 이해
만복으로 피여날 설계도를
해살처럼 펼쳐주시는 수령님
그말씀 마디마디
이 가슴에 흘러들어
힘이 되고 용기 되여
끝없는 희망으로 열리는
우리의 새해

아, 동해의 해돋이가 아니라
어버이수령님
자애로운 그 모습에서

설날의 기쁨을 받아안은
인민의 영광이여!

진정 수령님은 고마우신분
인민을 위해 태어나시여
인민을 위해 한평생을
고스란히 바쳐오신
위대한 태양이라고
온 세상 온 우주에
한껏 웨치고싶은 마음

수령님의 안녕을 지켜
이해 우리 더 세차게 울려가리라
오직 당을 따르는 한길우에
90년대 진군의 발구름소리
우리 식 사회주의의 장엄한 승전고를

그 어떤 역풍이 차갑게 불어와도
들끓는 공장구내와 지하막장
천리 들판과 일어서는 거리...
이 땅 그 어디나
수령님의 신년사 구절구절
사회주의 꽃으로 만발하게 하리라

그러면 만족하시여
그리도 환히 웃으시며
정정해지실 수령님
저 연단우에서 해해년년 뵈우며
통일의 아침도
공산주의 새날도 당겨오려니
이보다 크나큰 복이 어데 있으랴

오, 수령님을 길이 모시는
그 기쁨으로 시작되는 우리의 새해
이런 해가 무궁하기를 바라는
인민의 한마음이여!

향도성의 빛발

칼라이나리부 노엘 하르베이

향도성의 빛발
사람들의 마음속깊이까지 비쳐주어
그 찬연한 빛 막아서는 어지러운 사상잔재
쓸어버리어라

어떤 일도 수행할수 있다는 사상을 밝혀주어라
향도성의 빛발은 주체사상의 빛발
잘못된 인생관을 바로잡아준 새로운 원리여라

향도성의 빛발
막을수 없는 거대한 힘으로
어둠의 장막 배신자들의 소굴 짓부셔버리고
확고한 승리 이룩하여라

향도성의 빛발 영원히 빛나라
인류의 앞길 밝히며,
축원합니다
향도의 별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만수무강하시기를

향도성의 빛발
인간은 자연을 극복하며

(필자는 마다가스카르사람임)

가사

영원한 축복

류동호

설날의 아침이 밝기도전에
수령님은 우리 행복 축복하시네
인민이 드리는 축원에 앞서
새해의 설인사 보내주셨네
어버이수령님 새해의 인사
우리 세월 명절로 꽃피워주네

은혜론 태양의 축복을 받은
희망찬 우리 앞날 영광넘치네
새해에만 주시는 축복이런가
날과 달을 축복속에 인민은 사네
수령님 품에 사는 행복 끝없어
인민은 만수무강 축원드리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우러러모시는것은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들의 가장 숭고한 의무이며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는 여기에 우리 조국의 끝없는 영예와 우리 인민의 영원한 행복이 있다.》

김정일

위대한 업적

잊을수 없는 정초의 겨울날에

1966년 1월 어느날이었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강령적인 가르침을 받기 위하여 서해기슭에 자리잡고있는 자그마한 휴양소를 찾아가 한 작가는 뜻밖에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만나뵙는 크나큰 영광을 지니게 되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엄동의 찬바람이 부는 휴양소 뜰에 몸소 나오시여 작가를 반가이 맞아주시었다.

너무나 뜻밖에 꿈결에도 그리던 친애하는 그이를 만나뵙게 된 작가는 북받치는 감격으로 하여 인사도 제대로 올리지 못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감격에 목메인 작가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며 수고했다고 건강은 어떤가고 다정하게 물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저의 몸은 튼튼합니다.》

작가는 이렇게 말씀드리며 한없이 인자하신 그의 모습을 경건히 우러렸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작가의 손을 꼭 잡으신채 건강하다니 마음이 놓인다고 하시며 잠시 동안을 두시었다가 장편소설을 다 써서 인쇄공장에 넘겼으면 잘하였다고 장편소설을 쓰느라고 수고하였다고 말씀하시었다.

마디마디에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자애로운 말씀이었다.

작가는 크지 않은 성과를 두고 것처럼 기뻐하시며 고무의 말씀을 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한없는 사랑이... 가슴이 뭉클해났다.

그는 설레이는 마음을 가까스로 누르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따라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방으로 들어갔다.

이날부터 작가는 여러날에 걸쳐 우리 나라 문학건설과 관련한 위대한 수령님의 강령적교시를 받게 되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우리의 혁명문학에서

대작은 반드시 조선공산주의자들을 그려야 한다, 진정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이란 그 어떤 특출한 사람들이 아니라 보통사람들이다, 그렇기때문에 그 보통사람들의 세계관형성과정을 잘 그려야 한다, 작가들이 혁명가를 잘 그리자면 혁명가를 깊이 알아야 하고 자기의 체험으로 느껴야 한다, 그렇기때문에 작가들은 창작에 앞서 자기 자신을 혁명화해야 한다고 따뜻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그러시면서 항일혁명투쟁시기의 수많은 공산주의자들의 실례를 들어 바로 이런 사람들을 작품의 주인공으로 하여 쓰면 훌륭한 문학작품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에는 우리 문학이 나아갈 앞길이 환히 밝혀져있었다.

이미 1963년 11월과 1964년 11월 우리의 혁명적문학예술이 나아갈 방향과 창작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은바 있는 작가는 이번에 또 다시 여러날에 걸쳐 수령님의 교시를 받으며 새로운 혁명문학건설에서 력사적전환이 이룩되리라는것을 마음속으로 깊이 느끼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미 온 사회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해나가야 한다는 사상을 밝히시고 그 수행방도로서 사상혁명을 앞세우는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치시었다.

사상혁명! 이것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해나가는 숭고한 위업이며 이를 실현하는데서 혁명문학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은 자못 크다.

현실발전의 이러한 요구는 우리 문학이 새롭고 참신한 내용과 형식을 갖춘 그야말로 혁명적인문학으로 될것을 요구하는것이며 따라서 작가의 혁명화가 필요한것이 아니겠는가.

작가는 어렵듯이나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가슴깊이 새겨넣곤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이었다.

작가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부르심을 받고 한달음에 그이께서 계시는곳으로 달려갔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를 따듯이 맞이주시며 오늘 동무를 부른것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진행하는 인민군군부대의 예술소조공연을 함께 보기 위해서였다고 하시면서 함께 공연장소로 가자고 하시는것이였다.

작가는 울렁이는 가슴을 안고 그이께서 이끄시는대로 승용차에 올라탔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긴장하여 앉아있는 작가더러 편안히 앉도록 하시고 새로운 혁명문학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한 그의 소박한 의견도 허물없이 들어주시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명심해서 잘 들을데 대하여 간곡히 이리시였다.

그러시고는 잠시 차창밖을 내다보시며 깊은 생각에 잠기셨다가 사색깊은 음성으로 수령님의 교시대로 새로운 혁명문학을 건설하여야 한다고, 새로운 혁명문학을 건설하는것은 오늘 우리 혁명의요구라고 말씀하시는것이였다. 그리고 자신께서는 지금 사회주의사실주의문학이 걸어온 길을 놓고 많은것을 생각하군한다고, 당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회주의사실주의문학이 자기 사명을 다하는데서 근본적인 고리를 놓치고있는것은 없는가, 만일 놓치는것이 있다면 우리의 새로운 혁명문학에서 그것을 찾고 개척해나가야 하지 않겠는가고 생각하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순간 작가는 그이께서 우리 문학이 나아갈 앞길을 두고 얼마나 깊이 마음쓰고 계시는가를 온몸으로 뜨겁게 느꼈다.

작가의 눈앞에는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이 새삼스레 뚜렷이 떠올랐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아침이면 수령님을 모시고 오랜시간 들길을 걸으시며 말씀을 나누시고 사색을 거듭하시던 일, 위대한 수령님을 직접 몸가까이 모시고 수령님의 문학건설과 관련한 구상과 의도를 체득할수 있도록 은혜로운 사랑을 베풀어주시던 일, 생각할수록 주체적인 문학건설을 위하여 바치시는 심혈과 로고가 떠올라 가슴이 더욱 뜨거워졌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주체적인 문학건설에

관한 구상을 무르익히신것은 비단 이때가 처음이 아니였다.

그이께서는 우리 문학을 향도하시던 초시기부터 《우리 교실》, 《축복의 노래》, 《조선아 너를 빛내리》를 비롯한 수많은 불후의 명작들을 창작하시여 혁명문학건설의 본보기를 마련하여주시였다.

작가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색깊은 말씀을 되새기며 위대한 수령님의 문예사상을 더욱 활짝꽃피워나가야 할 절박성을 더욱 깊이 체득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을 전달받고 작가들은 크나큰 흥분에 휩싸여 새 작품들을 구상하였다.

그러나 당장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지 갈피를 잡을수 없었다.

바로 이러한 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주체의 인간학에 관한 사상리론을 창시하시고 문학건설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문제를 강하게 밀고나가면서 세계문학사상에 특기할 수령형상문제를 작가들앞에 제시하시였다.

수령형상문제! 이것은 참으로 사회주의사실주의문학발전에서 새로운 일대 변혁이였다.

잊을수 없는 정초의 겨울날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새로운 혁명문학건설에 대하여 가르치시면서 하신 말씀은 바로 이 문제를 념두에두고 하시는 말씀이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수령형상문제를 제기하시면서 공산주의혁명가의 전형창조문제에 대해서도 새롭게 전면적인 해명을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공산주의자의 전형에 대한 선행한 리론들의 본질적인 제약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을 다하는 거기에 바로 진정한 공산주의자의 전형이 있다고 가르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수령형상문제와 공산주의자의 전형창조문제를 새롭게 제시하심으로써 새로운 혁명문학, 주체문학의 새 모습이 환히 밝혀지게 되였다.

하기에 1966년의 잊을수 없는 그 겨울은 새로운 혁명문학, 주체문학의 새 력사와 더불어 길이 전해질것이다.

백두의 성지 소백수골

리명수에서 멀리는 백두산, 가까이는 소백산을 향하여 얼마쯤 들어가노라면 천고의 밀림속에 소백수가 흐른다. 하늘에서 내린 위인을 맞이한 성지에 외인의 발길이 미치지 못하게 하려는듯 땅 위로 흐르던 물이 어떤 구간에서는 갑자기 땅 밑으로 사라지기도 한다.

가까스로 소백수물줄기를 찾아 오른쪽 개울을 거슬러 5리남짓하게 올라가면 문득 골짜기가 막혀버려 막바지에 이른듯하지만 눈여겨 바라보면 그렇지도 않다.

골짜기는 막아선 봉우리들을 에돌아 그냥그냥 깊어진것이다.

그러고보면 그 봉우리들은 소백수골의 대문인 듯싶기도 하다. 그 《대문》들을 열고 들어서면 지금까지와는 뚜렷이 구별되면서 전설속의 신비경을 보는듯한 느낌을 자아내는 유별한 산세가 나타난다.

산새들도 지저귀기를 저어하는 여기, 사납게 불어치며 순간에 천리만리를 치닫던 광풍도 옷깃을 여미며 정숙해지는 여기, 귀기울이면 사철 열지 않는다는 소백수 흐르는 소리가 주알주알 들려오는 이곳엔 깃들어있는 전설 또한 신비롭기만 하다.

옛날 신선들이 사는 천계에서 있는 일이라고 한다.

어느날 옥황상제는 령소보전(옥황상제가 사는 곳)으로 한 신선을 불러들였다. 그 신선은 천문지리에 능통하고 풍수를 잘 보고 도술에 능하였다. 부름을 받은 신선은 옥황상제앞에 배알하였다.

《내 그대에게 중임을 맡기려 하니 명심하여 들을지어다. 지금 하계의 인간들이 도란에 빠졌은즉 미구에 그들을 구원할 성인이 내리실것이니 저 땅세상에다 성지를 마련하도록 하라. 절대로 이 일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되겠노라. 성지를 잡기전에는 천국으로 돌아오지 말지어다.》

《옥황님의 어명을 목숨으로 받들겠나이다. 다만 저의 재조가 부족하고 능력이 모자람을 한탄할뿐이로소이다.》

신선은 옥좌앞에서 물려나 천마가 끄는 꽃수레를 타고 하계로 내려갔다.

화려한 꽃수레에 몸을 실은 신선은 땅세상의 여기저기를 돌아보았다.

그런데 별로 마음에 드는고장이 없었다.

겨울만 내내 있는고장이 있는가하면 여름만 있

는고장도 있었고 물이 없고 모래만 있는고장이 있는가 하면 온통 바위로 뒤덮인고장도 있었다.

《어허, 이런곳에서 사는 인생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고? 참으로 가공한지교.》

신선의 눈앞엔 고생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는 성지가 될만한고장을 찾아 여러곳을 다녔다. 세상엔 사람못살고장도 많았지만 살기 좋고 아름다운고장 또한 많았다.

골짜기와 산봉우리 그리고 일망무제한 들에 아름다운 꽃들이 핀 화왕국이 있는가 하면 가지마다 향기로운 과일이 저절로 열렸다가 저절로 떨어져 쌓이는 그런 동산도 있었다.

또 어떤곳엔 하늘에서 내리는지 천길 벼랑우에서 억만구슬이 쏟아져내리는 장쾌한 폭포도 있었고 웅장한 메부리와 절묘한 동산을 자랑하는 땅도 있었다.

신선이 여기저기 다녀보는 사이에 퍼그나 세월이 흘러갔다.

열매가 익고 단풍이 드는 계절을 세번째로 맞이하던 어느해 가을날, 신선은 맑은 아침의 나라 동해국 조선에 발길이 미쳤다.

신선은 눈앞에 펼쳐진 황홀경에 처음부터 감탄을 금치 못했다.

《내 동해국에 대한 말은 이미 많이 들었으나 이렇게도 아름다운 나라인줄은 미처 몰랐구나.》

신선은 연신 감탄하며 머리를 끄떡이였다.

그는 이 나라의 어느고장이나 성지를 정해도 나무랄데가 없을것 같았다. 그러나 옥에서 옥을 고른다고 신선은 여기에서도 제일 좋은곳을 찾아 성지를 정하려고 마음먹었다.

그런 마음으로 아름다운 다도해의 풍경을 자세히 보니 그곳보다 더 좋은고장이 있을상싶었다.

신선은 꽃수레를 타고 북으로 올라갔다.

하늘을 나는 신선의 눈아래에 황홀한 금강산의 일만이천봉우리가 펼쳐졌다.

절승의 금강산에 온 났을 빼앗긴 신선은 혼자 소리로 중얼거렸다.

《이런 경치는 세상에 둘도 없을것인즉 차마 눈길을 땄수가 없구나.》

그런데 일만이천봉우리를 다 돌아보고난 신선의 입에선 아쉬워하는 말소리가 흘러나왔다.

《경치는 으뜸이로되 산이 좀더 웅장하였으면...》

신선은 눈을 스크르 감았다. 얼굴엔 아쉬워하는 기색이 력력히 비쳤다.

금강산에서 겨우 발길을 땀 신선은 이번엔 황해도 구월산으로 찾아갔다.

꽃수레에 몸을 맡긴 신선은 구월산을 내려다보다가 또 스크르 눈을 감았다.

《산은 웅장하나 경치가 부족구나.》

구월산을 돌아본 다음 바람결에 풍겨오는 향기를 맡으며 따라가던 신선은 꽃수레우에서 묘향산을 내려다보고는 갑자기 눈을 크게 홉떴다.

《영? 이렇게도 아름다운 산이 또 있단말인가? 이 산은 웅장하기도 하니 나무랄데가 없구나.》

신선은 기쁜 마음으로 묘향산우를 몇바퀴 빙돌았다.

보면 볼수록 아름답고 웅장하고 기묘하였다.

이보다 더 좋은곳이 있을것 같지 않았다.

그는 이렇듯 아름다운 묘향산의 어느 한 골짜기를 성인이 내릴 성지로 잡으려고 작정하였다.

그런데 한골짜기 한골짜기 눈여겨 내려다보던 신선의 입에서는 또다시 가느다란 한숨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는 묘향산의 그 어느 골짜기에서도 성지로 될만한곳을 찾지 못했던것이다.

경치도 아름답고 산도 웅장하나 성지로 되려면 속인들의 발길이 미치지 않아야 할터인데 그런곳이 없었다.

《아깝구나. 참으로 아깝구나.》

신선은 몇번이고 이 말을 되풀이하였다.

성지로 될만한고장을 찾는다라는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신선은 너무도 오래동안 성지를 찾지 못하자 인젠 그만 돌아가려고도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럴수도 없었다. 옥황상제의 지엄한 령을 어찌 소홀히 할수 있겠는가.

묘향산을 떠난 신선은 북으로 북으로 올라갔다.

얼마만에 신선은 드디어 백두산에 이르렀다.

《아, 여기가 유명한 백두산이구나. 내 왜 진작이 명산부터 찾지 않았을가?》

신선은 자신을 책망하며 백두산의 제일 높은 봉우리에 가볍게 내렸다. 여기서는 맑고 푸른 천지가 한눈에 내려다보였다.

천지호반에 피어난 만병초와 두메아편꽃, 좀참꽃, 담자리참꽃 등 여러가지 꽃들이 한껏 진한 향기를 풍기고있었다.

천지는 아름다운 꽃들로 큰 꽃테두리를 두르고 있었다.

이 천지는 유명한 못으로서 하늘나라에서도 모

르는이가 없었다. 바로 천지는 하늘나라 못인데 백옥루의 옥황과 신선들과 선녀들이 이 물을 마시는것이다.

신선은 천지를 보자 천계가 더욱 간절해졌다.

그는 빨리 여기 백두산의 어느 골짜기에 성지를 잡으려고 서둘러 수레에 올라탔다.

백두산에서 뺏어내린 웅장한 산발들은 볼수록 숭엄하였다. 저절로 마음이 경전해져 몸가짐을 바로하지 않을수 없었다.

경치 또한 얼마나 장관인가!

하늘을 날던 신선은 산발들중에서 백두산과 신통히 똑같이 생긴 산이 있어 그리로 찾아가보았다.

그 산은 작은 백두산이라고 하는 소백산이었다.

소백산에 이른 그는 골짜기에 솟은 어느 한 봉우리에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잠시후 신선은 그 봉우리우에 내렸다.

그 봉우리우에서 골짜기를 내려다보던 신선은 무릎을 치며 환성을 질렀다.

《과시 절승경개로구나. 여기가 바로 성지로다.》

그는 총총히 골짜기로 걸어내려갔다.

신선은 골짜기에서 산봉우리를 올려다보았다.

푸른 하늘을 떠이고 거연히 솟은 그 봉우리는 위엄있고 기세찼다.

나무가 뻗뻗이 들어찬 골짜기는 산발로 여러겹 둘러싸여 튼튼한 대문을 이루고있어 나쁜 마음을 먹은 무리들은 감히 들어설수 없었다.

신선은 백두산의 정기가 함뿍 어린 이 골짜기에 볼수록 마음에 들었다.

그는 조금이라도 미흡한 점이 없는가 하고 골짜기를 다시 눈여겨 살폈다. 하나하나 깐깐히 둘러보던 신선은 건너편 산의 기암괴석에 눈길을 멈추었다.

경치도 아름답고 산도 웅장하여 조금도 나무랄데가 없는 이 성지에 자기도 무엇인가 보태고싶었던것 이다.

도술을 하는 신선은 조그마한 나무가지를 집어 들고 그것을 세토막내여 땅에다 획 집어던졌다.

《쿵》 하고 둔중한 소리가 울리더니 건너편 산마루에 몇개의 기암들이 더 솟구쳐올랐다.

그중엔 갈기를 흔들며 방금 하늘을 날것 같은 룡마처럼 생긴 바위도 있었고 서슬푸른 장점과도 같이 생긴 바위도 있었다.

신선은 성인이 탈 룡마와 강점을 미리 마련해 놓은것이였다.

마음이 흡족하여 골짜기를 둘러보던 신선은 갑자기 《아뿔사!》 하고 소리를 질렀다.

골짜기에 물이 없음을 뒤늦게 알게 된것이다.
《무수무생이라 물이 없으면 생이 없을진대 이런변이 있나.》

신선은 한숨을 길게 쉬었다.

그 봉우리의 위용과 골짜기의 경치에 넋을 빼앗겨 그만 물이 없다는 생각을 못했던것이다.

그는 기암절벽을 만드느 도술은 알지만 물을 끌어들이는 도술은 모르고있었다.

신선은 자기의 재조가 부족함을 통탄하였다.

그는 다른고장을 더 돌아보자고 해도 이보다 나은고장을 찾을 자신이 없었다.

(내가 안가본고장이 땅세상에 어디 또 있는가?)

정말 그의 생각도 옳았다. 이제 더 돌아본다해도 한번가본 고장을 다시 가보는것으로밖에 되지 않았다.

신선은 할수 없이 수레를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갔다.

《수고했노라. 그대는 어디에다 성지를 잡았는고?》

옥황상제는 그를 반겨맞으며 성급히 물었다.

《옥황님의 뜻을 목숨으로 받들려는 신의 마음엔 조그마한 티도 없으나 재조가 부족하여 뜻하느바대로 실행치 못하였나이다!》

《뭐? 그대의 재조가 부족하다니. 그게 무슨 말인고?》

옥황은 신선의 말이 잘 믿어지지 않았다.

그는 천계의 신선들가운데서 재조나 학식에서 으뜸이요 의리와 도리 또한 깊을뿐아니라 마음도 투명하여 사랑과 존경을 제일 많이 받아오는터였다.

신선은 하계로 다녀온 일을 사실대로 아뢰었다.

그의 말을 다 듣고난 옥황은 은빛수염을 내리쫓며 《그러면 그럴테지. 참으로 기특한지교.》하고 칭찬하였다.

《어서 나를 그리로 안내하라.》

옥황의 분부가 떨어지자 백옥루는 행차준비로 법석 들끓었다.

대궐앞에 오롱차가 준비되고 같이 따라갈 선관들과 시종관들이 주련이 나와섰다.

이윽고 풍악을 울리며 옥화상제는 신선과 함께 다섯마리의 룡이 끄는 오롱차에 타고 다른 신선들은 천마가 끄는 꽃수레를 타고 백두산을 향하여 내려갔다.

어느 한 골짜기에 이른 그들은 신선의 안내를 받으며 주위를 돌아보았다.

때는 신록이 한창 무르녹는 여름이라 산봉우리들에 갖가지 꽃들이 피어나 구름처럼 덮여있었다.

옥황은 꽃으로 뒤덮인 황홀한 그 봉우리에서 눈부시게 솟아오르는 오색찬란한 빛발을 보고 저도 모르게

《홀룡하구나. 정말 명당자리로다. 그대의 수고가 많았노라.》 하면서 머리를 끄덕이였다.

옥황을 따라온 신하들도 아름다운 경치와 향기로운 냄새에 넋을 잃고 말없이 둘러볼뿐이였다.

《저 봉우리는 또 얼마나 잘 생겼은고! 천하제일봉이로다! 장수의 기상을 지녔은즉 저 봉우리는 장수봉이라고 부를지어다.》

옥황의 입에선 연방 찬탄의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태양도 광휘로운 빛을 제일 선참 드리우는 이곳에선 바위 하나, 나무 한그루, 꽃 한송이, 그 모두가 다 신비하게만 보였다.

《여기에 물만 흐르면 과시 성인이 내리실만한 성지로서 티끌만큼도 부족한게 없거늘 내 술법을 써서 천궁의 우물인 저 백두산천지물이 여기에 흐르게 하겠노라.》

옥황의 흥분에 떠는 목소리가 울리자 드르릉하고 땅이 흔들리더니 잠시후 소백산의 천연암반을 뚫고 천지물이 활활 솟구쳐올랐다. 그 물은 잠간 사이에 개울이 되어 골짜기를 따라 흘러내렸다. 누구보다 기쁜것은 신선이였다. 홀룡한 성지를 마련한 기쁨으로 하여 그는 잠시도 가만있지못했다.

그는 조화를 부려 성지에 여러가지 꽃들이 피어나게 하고 숲속에 갖가지 고운 새들이 날아들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옥황은 기쁜 마음으로 신하들을 거느리고 다시 천국으로 올라갔다.

그때 생긴 개울이 오늘의 소백수요. 이렇게 마련된 성지가 바로 백두밀영고향집이 자리잡고있는 소백수몰이다. 그리고 그 장수봉이 오늘의 정일봉이다. 소백수는 오늘도 여전히 매우 신령스러운 개울로 알려져있다. 왜냐하면 그 흑한에서도 절대로 얼지 않기때문이다.

뿐만아니라 소백수는 땅우를 흐르다가는 땅속으로 스며들기도 하여 자기의 자취를 감추곤하는데 그것은 소백수물줄기를 따라 외인들이 성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니 이 성지가 오래동안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것은 지극히 그럴법한 일이다.

백두광명성으로 높이 솟아오르신 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바로 이 성지에서 탄생하시였다. 아니 하늘에서 이 성지에 내리시였다고 사람들은 말하고있다.

붉은 빛발에 물들어

서봉제

하늘도
백두의 노을에 타고
산천도
백두의 노을빛에 젖은
정일봉의 하늘아래

내 정들은 돌격대합숙뜨락에서
그대의 부름을 받아안았노라
당이어
어머니당이어!

조국의 한끝 밀림속
나를 찾아 나를 믿어
그리도 뜨겁게
나를 불러준 그대의 목소리

가슴에 새기니
내 심장의 피를 더웁히며
가슴의 설레임을 부추기는
마치도 그것은 기발의 펄럭임인듯

아득한 광야의 첫기슭에서
청년공산주의자들
한별의 뜻 녀트로 안고
첫 붉은기발을 추켜올린것도
여기 백두의 이 밀림이 아니었더냐

탄우 천리
눈보라 만리길에
장군님의 의지를 신념으로 새기며

피의 강 혈전의 언덕도
웃으며 넘고 넘어온 그 대오

그날처럼 받아안았노라
뜨겁게 흐르는 피줄마냥
이 나라 수백만 붉은 심장들에
같은 시각에 불러준 그 호소
아, 그것은 백두의 붉은 기발앞에
우리를 더 굳게 뭉쳐 세워주는 당의 믿음!

배푸는 사랑에
바치는 충성이 따르고
불러준 믿음에
피끓는 맹세를 다함은
당원에게 흔치 않은 행복이더라
전사에게 쉽지 않은 영광이더라

하늘도 땅도
온통 백두의 노을에 물들고
승리를 향한 우리 당의 부름 받아
아침 바다처럼 뒤번지는 이 가슴
온통 붉은 빛발에 물들어

아, 지켜도 끝까지 지켜갈
위대한 심장이 펼쳐준
붉은기발의 호소를 안고
수백만의 심장, 천만의 가슴가슴
억센 산악으로 발걸음 맞추노라!
-백두밀영에서-

벽시

30 분

백일호

눈에 차는 착암기가 아니라
집채같은 굴착기다
하지만 아침마다 일하기전 30분
이 시간에도 정비와 점검을 잊지 말자

그가 만약
짹짹이 닭고 보살피는 기대공이면

이 시간에 약속되리
오늘의 위훈은!

오, 명심하라
우리 전화의 날 이 시간에
적의 손아귀에서
고지 하나를 탈환했거늘

명제해설

《당의 영원한 동행자로 된다는것은 당에 자신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당과 끝까지 운명을 함께 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된다는것을 말합니다.》

김정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우리 작가들을 당의 영원한 동행자로 믿어주시고 내세워주시었다.

우리 작가들이 당의 영원한 동행자로 되기 위하여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빛내어나가시는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멀고도 험난한 혁명의 한길에서 언제나 당과 뜻을 같이하고 생사운명을 함께 하는 영원한 동행자로 준비되어야 한다.

영원한 동행자는 길가에서 만났다가 헤어지는 길동무가 아니다. 길가에서 만난 길동무는 함께 길을 가다가도 자기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면 곧 헤어지게 된다. 이런 길동무는 영원한 동행자로 될수 없다.

영원한 동행자는 또한 혁명의 일시적동반자가 아니다. 혁명의 일시적동반자는 함께 혁명을 하다가도 정세의 변화와 요구에 따라서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된다. 그러므로 혁명의 일시적동반자는 혁명의 한길을 변함없이 끝까지 가는 영원한 동행자로 될수 없다.

당의 영원한 동행자는 하나의 뜻, 하나의 목적 다시말하여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즐거울 때도 어려울 때도 당과 생사운명을 함께하며 당의 운명과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일치시킨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우리 작가들을 당 사상전선의 영예로운 초병으로, 문학작품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혁명에 이바지하는 혁명가로 내세워주시고 키워주시었으며 당의 작가라는 높은 신임을 우리모두에게 안겨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우리 작가들에게 당의 영원한 동행자라는 가장 값높은 칭호를 주신

것은 우리 작가들이 받아안은 최대의 영광이며 신임이다. 그러므로 우리 작가들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내린다고 하여도 오직 당을 받들어 충성의 한길을 변함없이 끝까지 걸어나가야 하며 그 길에서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칠줄 아는 주체형의 작가로 튼튼히 준비되어야 한다.

작가들이 당의 영원한 동행자로서의 자기의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충성과 효성으로 높이 우러러모시며 주체위업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견결한 로동계급적립장을 가져야 한다. 이리하여 그 어떤 바람이 불어도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주체적문예사상이 밝혀주는 길을 따라 주체문학건설에 모든것을 다바쳐야 한다.

작가들은 또한 정치적식견과 창작적기량을 끊임없이 높여 당의 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는 문학작품을 훌륭히 창작해내야 한다. 정치실무적 자질과 창작기량이 낮으면 당의 영원한 동행자로 될수없으며 혁명의 락오자로 되고만다. 그러므로 작가들은 자기의 정치적자질을 부단히 높이고 창작기량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한다.

작가들이 당의 영원한 동행자로 되기 위하여서는 또한 혁명적 창작기풍과 생활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우리 당이 바라는대로 혁명적으로 창작하며 생활하는 여기에 당의 영원한 동행자의 참다운 모습이 있는것이다.

모든 작가들은 당의 영원한 동행자라는 가장 고귀한 칭호를 심장깊이 간직하고 참다운 당의 작가, 혁명의 작가로 더욱 철저히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새해

강인철

창너머 떠오른 해님이
새해임을 알리며 큰웃음 짓습니다
버드나무아지에 앉은 눈꽃들이
무엇인가 자꾸만 속삭이자 합니다

이 아침에야 모든게 정다웁지요
하지만 어제 본 이 하늘 이 거리가 아닙니다
새로움! 새삼스러움!
기쁘고 놀라운 감정만이
나를 둘러싼 새해의 이 아침

꽃을 든 안해도, 앞서 뛰는 아이들도
내 눈엔 다시 여겨지고 다시 새겨집니다
승엄히 재촉되는 걸음 만수대에 오르니
저기 손들어 반기시는
새해의 첫분은
아, 우리 수령님!

설인사 드리려 달려왔건만
조출한 이자식도 기다리신듯
먼저
먼저 축복하는 인민의 어버이이시여

큰절을 올리며 소원을 아뢰며
높이 드신 그 손길, 그 품의 공간을 헤아리자니
가슴이 빠근합니다
희망찬 새해를 우리 앞길에 펼치시는
그 무한대함, 그 승엄함앞에

오, 이것이,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시대와 력사의 절정에 서계신 우리 수령님
지구의 낮과 밤, 공전을 조종하시여
내 숨쉬는 이 땅에

좋은 날 좋은 해 새해는 어김없이 온것!
법칙처럼 고스란히 선사된것!

하지만 세상을 굽어보면
다 기쁜 새해는 아닙니다
오는 세월 먹는 나이 통탄하는
그런 나라 그런 인민도 있어
진정 누구나 생각될수 있습니다
새해의 의미란 무엇?

더 기쁘고 더 즐거우라는
우리 삶의 새 앞날을 펼치고
보낸 해에 더해질
행복과 기쁨의 세월을 이어줌이 아닙니까

일년 삼백륙십오일
어버이로 모시고 따르는 그 품에서
누구나 제 나이를 마음껏 누리며
고마운 어머니조국에 바칠 새로운 위훈과
그것으로 넘쳐날
삶의 보람과 희열과 긍지로움을
자기자신과 세상에 약속함이 아닙니까

세상에 오직 한분 위대한 어버이를 모시여
우리만이 아는 그늘없는 우리 조국,
온 세상이 우러르는 주체의 향도성이 빛나
우리만이 누리는 우리 식의 생활이 있어
쫓아오르는 첫 아침해 저리도 아름답고
내리는 눈꽃마저도 저리도 새삼스러운것
아닙니까

아, 이 땅에 밝아오는 희망찬 새해는
우리만이 받아안은 참의미의 축복입니다
해와 해를 이어 영원할 행복의 레찬입니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조선의 봄》의 사상미학적특징

윤상현

우리에게 있어서 수령형상창조사업은 정히 미지의 길을 헤쳐가는 새로운 개척과정이라고 할수 있다.

세계적으로 로동계급의 수령형상을 창조하기 시작한지는 퍼그나 되었으나 이 문학의 본질과 위치, 미학원리와 창작원칙 등 적지 않은 문제들이 미해명과제로 남아있었다. 더우기 총서라는 방대한 장편소설권에 수령의 위대한 력사를 전면적으로 담는것은 문학사상 누구도 시도해본적이 없는 력사적인 사업이다.

총서 《불멸의 력사》의 항일혁명투쟁시기권도 새로운 개척이있지만 해방후편은 해방후편대로 새라새로운 창작실천적문제들을 제기하고있다. 물론 수령형상창조의 일반적원리와 원칙적요구, 위대한 수령님의 풍모와 업적을 형상하는 기본문제점들에서는 총서의 해방전편이나 해방후편이나 같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사회력사적발전단계, 우리 혁명의 환경과 임무, 투쟁과정이 다르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혁명업적의 내용이 다른 두 력사적시기를 각기 반영하는 조건에서 창작실천상 적지 않은 측면에서 서로 구별되는 특징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인민들이 해방후에 수령님을 몸가끼이에서 만나보왔고 또 영화문화학습을 통하여 수령님의 영상을 늘 뵈고있는 조건에서 항일혁명투쟁시기의 수령님을 형상하는것과 오늘의 수령님을 형상하는것은 근본적으로 달라야 합니다. 창작가들은 수령님을 형상함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신중한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혁명영화들과 총서의 해방후편에 속하는 여러 장편소설들의 창작과정을 지도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해방후 혁명력사를 형상하는데서 나서는 미학실천적문제들에 구체적인 해명을 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이미 위대한 수령님의 해방후 혁명력사를 수록한 여러편의 혁명영화, 장편소설들이 높은 사상예술적수준에서 창작완성되였는데 바로 그러한 작품들중의 하나가 장편소설 《조선의 봄》(천세봉 작)이다.

《조선의 봄》의 사상미학적특징을 연구하고 일반화하는것은 앞으로 총서의 해방후편을 계속 창

작하게 될 우리 작가들에게 도움을 주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독자들이 이 소설과 함께 총서의 해방후편을 보다 깊이 리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의미에서도 의의있는 일로 될수 있으리라고 본다.

1

총서 《불멸의 력사》의 항일혁명투쟁시기권은 외래제국주의식민지기반에서 조국과 민족의 자주권을 찾기 위한 식민지민족해방운동의 세계사적돌파구가 어떻게 마련되였고 그 운동의 승리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를 주체적인 혁명적수령관의 견지에서 해명하면서 새로운 력사적시대를 개척하고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의 시원을 열어놓는데서 차지하는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심오히 밝히고있다. 바로 이런 사상을 바탕에 심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창시, 주체시대와 주체혁명위업의 개척, 항일혁명대전의 승리와 조국광복의 실현, 우리 당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 혁명전통의 창시 등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보여주는데 총서 항일혁명투쟁시기권의 총적 형상과제가 있다고 할수 있다.

하다면 외래제국주의의 식민지기반에서 해방된 후 인민들이 나아갈 길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혁명문학 특히 총서 《불멸의 력사》 해방후편은 시대와 인류가 절박하게 제기하는 이 사활적인 문제에 예술적해답을 주게 된다.

총서 《불멸의 력사》 해방후편 장편소설 《조선의 봄》의 형상적몫은 수령의 위대성과 새 사회건설의 진정한 비결을 토지개혁이라는 거창한 력사적사변을 통하여 천명하는데 있다.

사회주의나라들치고 토지개혁의 력사를 거치지 않은 나라는 없으며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모든 나라들이 토지개혁을 민주주의혁명단계의 선차적인 혁명과업으로 삼고있다. 토지개혁은 특히 농민이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농업생산력의 발전수준이 낮은 식민지, 반식민지로 있던 나라들에서 농민문제, 농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업으로 제기된다. 토지개혁이 중요한 력사적과업으로 나섰지만 우리 나라에서와 같이 짧은 시일내에 그렇듯 철저히 수행한 전례는 일찌기 없었다. 당시 우리 나라 토지문제에서 조건이 좋아서 그런 기적이 일어난것은 결코 아니다.

장편소설 《조선의 봄》은 토지개혁앞에 조성된 어렵고 복잡한 난국을 작품의 정황으로 제시하고 그 심각한 역경이 어떻게 순경으로 전환되어 일사천리의 속도로 토지개혁이 이루어지는가를 예리하게 추구해들어가고있다.

소설에서 보논바와 같이 공화국북반부의 토지개혁문제를 둘러싸고 남조선을 강점한 미국놈들이 본격적으로 음모를 꾸미고 그와 은밀히 내통하고있는 지주세력이 악랄하게 준동하고있으며 조만식, 오기섭을 비롯한 온갖 어중이떠중이들이 음모로 양으로 방해책동을 벌리고있다.

일부 사람들속에서는 토지개혁정책작성을 둘러싸고 《시기상조론》, 《토지국유화론》, 《유상물수 유상분배》 등 온갖 교조주의적이며 좌우경적인 론조들이 복잡하게 엮갈려나오고 또 지주와 사이 좋게 토지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는가 하면 농민들의 자각을 불러일으킬 대신 법령만으로 토지개혁을 강행하자는 의견들도 있다. 정황과 과업이 어렵고 복잡한데 비하여 일꾼들의 준비정도와 더우기 농촌문제해결의 당사자인 농민들의 의식수준이 아직 그리 높지 못한 상태에 있다. 어떤데서는 3. 7제로 받아들이는 량곡을 도로 지주집에 실어다주는가 하면 어떤데서는 반동분자들의 꾀임에 넘어가 반동시위까지 벌린다.

하다면 이 모든 난국속에서도 우리 나라 토지개혁이 그렇듯 빠른 시일에 빛나게 수행될수 있는 비결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소설은 무엇보다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진리성에서 그 비결을 찾고있다.

주체사상은 영생불멸의 진리성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백과전서적인 만능의 위력과 생활력을 나타내게 된다. 소설은 우리 나라 토지개혁의 력사도 다름아닌 주체사상의 위대한 철학적진리로 하여 세인을 경탄케 하는 눈부신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다는것을 형상적으로 확인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인간중심의 철학적리념에 기초하시여 농민대중을 교양하고 각성시켜 그들 자신의 힘으로 지주의 땅을 빼앗아내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일부 사람들이 북과 남에 통일정부가 서기전에는 토지개혁을 할수 없다는 이른바 《시기상조론》을 들고 나왔을때 농민대중이 현실적으로 토지를 절박하게 요구하고 그들의 무진장한 투쟁력을 발동시키는 조건에서는 지체없이 토지개혁을 단행해야 하며 또 얼마든지 승리적으로 수행할수 있다고 강철의 논리로 론박하신다. 일부 사람들이 토지를 국유화해야 한다느니 유상물수, 유상분배를 해야 한다느니 지주와 함께 부농도 청산이주시켜야 한다느니 하면서 다른 나라의 경험을 교조주의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할 때도 그이께서는 토지개혁에

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과 우리 인민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우리 식으로 풀어나가도록 이끌어주신다.

소설은 이러한 설정과 형상이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에서 주선을 이루게 함으로써 우리 나라 토지개혁의 승리과정이란 바로 우리 수령님의 주체적인 철학적리념의 승리과정으로 된다는 사상을 뚜렷이 내세우고있다.

소설은 또한 우리 나라 토지혁명의 빛나는 승리의 비결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뛰어난 전략적예지와 령도에술에서 찾고있다.

작품에서 당시 농촌의 전형으로 설정된 채령벌에는 발악하는 지주, 지주편에 붙으려는 부농, 동요하는 중농 그리고 토지개혁에 절대적인 리해관계를 가지고 발벗고나서는 빈고농 등 각이한 계급과 계층의 복잡한 관계가 펼쳐진다. 나라의 모든 농촌들에서 찾아볼수 있는 이런 각이한 세력들의 동향을 누구보다 깊이 꿰뚫어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토지개혁수행에서 견지하여야 할 가장 정확한 계급정책을 내놓으심으로써 농촌의 세력관계를 토지혁명수행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전환시키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토지혁명의 수행단계를 과학적으로 규정하시고 3. 7제투쟁, 토지를 요구하는 대중적인 청원운동, 토지개혁법령발포와 그 법령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 등 매 단계의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신다.

장편소설 《조선의 봄》은 위대한 사상가, 정치가, 전략가로서의 경애하는 수령님의 품모와 업적을 감명깊게 보여주었으며 세계의 모든 혁명하는 나라 인민들에게 토지개혁은 물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데서 나서는 그 어떤 어려운 문제도 오직 수령의 위대한 령도와 주체사상이 있으면 해결 못할 일이 없다는것을 힘있게 실증하고있다.

2

총서 《불멸의 력사》 항일혁명투쟁시기편은 일정한 력사적사변을 중심으로 하고 력사적시기별로 장편소설편들이 설정되었으며 매 력사적단계를 각기 하나의 장편소설로 형상할수 있었다. 해방후편은 일정한 력사적사변을 중심으로 력사적시기별로 창작하면서도 하나의 력사적단계를 포괄령역과 내용의 방대성으로 하여 하나의 장편소설에 다 담기는 곤란하게 되어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총서 《불멸의 력사》창작에서 제기되는 이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총서의 해방후편은 력사적단계별로 창작하되 혁명사적의 방대성정도에 따라 같은 시기를 여러권의 장편소설로 나누어 그리도록 하시였다.

이 요구를 구현하자면 총서의 해방후편에서 매

장편소설들이 자기의 고유한 주제영역을 확고히 고수하여야 하며 작품호상간의 주제적구분이 명백하여야 한다. 같은 하나의 시기를 놓고 여러 장편소설들로 형상할 때 만약 주제적으로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면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파생될수있고 총서작품들의 상대적독자성도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 주제를 독특하게 뚜렷이 내세우라는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창작의 일반적요구이지만 총서의 해방후편인 경우에 그것은 2중적으로 더 강조되고있다.

장편소설 《조선의 봄》은 자기의 뚜렷한 종자와 주제영역을 가지고있다. 이 소설은 우리나라에서의 토지혁명의 역사는 인간혁명의 역사였다는것을 사상적알맹이로 하고있다.

세상에 토지개혁의 역사를 거친 나라는 많아도 그 혁명을 인간해방을 위한 인간혁명과 결부시킨 전례는 없다. 지난 시기에 토지개혁이라하면 흔히 는 봉건적토지소유관계를 민주주의적원칙에서 개조변혁하는 물질경제분야에서의 혁명으로만 간주되어왔었다.

토지혁명은 곧 인간혁명이며 반드시 인간해방을 위한 혁명사업을 통해서만이 결정적인 승리를 거둘수 있다는것은 오직 우리 수령님께서만이 내놓으실수 있는 위대한 독창적인 진리이다. 그리고 거기에 바로 우리 나라 토지개혁의 본질적특징이있는것이다.

모든것의 주인은 인간이며 모든것을 결정하는 힘도 인간에게 있다. 인간들이 요구하지 않고 인간들의 힘이 준비되지 않고서는 어떠한 혁명도 성공할수 없다. 인간만이 지닐수 있는 아름답고 숭고한 자주적본성과 세상만물을 길들이는 영웅적인 창조력이 발동될 때 수천년세월 물려온 세습적인 토지소유관계도 뒤집어엎고 모든 농민들이 땅의주인으로 자기 운명의 진정한 주인으로 될수 있는것이다.

소설은 바로 인민대중에게 그런 위대한 힘과 자각을 키워주는 성스러운 인간혁명을 거칠 때만이 토지개혁이라는 경륜적인 천지개벽의 새 역사가 마련될수 있다는것을 격조높이 주장하였다.

문학의 종자란 언제나 새롭고 독특한것이여야 하며 작가의 개성과 작품의 요구에 따라 임의로 선택할수 있다. 그런데 총서 《불멸의 역사》의 장편소설들에서는 일반작품을 쓸 때처럼 뜻이 깊은 종자라 하여 아무 종자나 임의로 선택할수 없다. 총서의 매 장편소설들은 해당시기의 사변과 업적의 가장 근본적이며 중심적인 내용을 종자로 잡아야만 한다.

총서의 계열에서 볼 때 매 장편소설들은 수령의 혁명활동의 어느 한 역사적구간과 사변에 대한 형상화를 책임적으로 담당하게 된다. 어느 한 총서작품이 자기 말은 역사적구간과 사변에서 부차적인 문제를 들고나오거나 비록 본질적인 문제

라 해도 해당 사변과 업적의 전모를 대변할수 있는 가장 중심적인 문제가 아닌것을 들고나온다면 총서의 계열에서 한단락이 비게 되며 사람들에게 그 역사적구간과 사변에 대한 전면적인 인식을 주기 어렵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장편소설 《조선의 봄》이 우리나라 토지개혁의 전도와 가장 근간적인 본질을 명증할수 있는 종자를 천명한것은 매우 귀중한 성과로 된다.

소설의 모든 형상은 토지혁명은 곧 인간혁명이라는 심오한 철학적종자의 천명으로 집중되어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빛나는 형상을 중심으로 하여 련결되어있는 긍정인물들가운데서 가장 기본선으로 되는것은 농민의 전형인 조순근의 형상선과 그밖에 중앙기관 간부들의 전형인 강진건과 송신일의 형상선이다. 작품에서는 이 기본인물선들의 설정과 처리자체가 철저히 종자의 요구에 기초한것이다.

조순근은 해방전에 누구보다도 땅이 없는 설움과 고통을 뼈아프게 체험해왔지만 토지개혁문제가 논의되는 초기만 해도 지주 서만호와 싸울 생각은 못하고 3.7제로 받아들이는 량곡을 도로 실어다줄 생각을 하거나 지주의 줄개들한테서 빼앗은 총을 도로 넘겨주며 조만식의 꾀임에 넘어가 마을에서 돌림을 받고 정든 고향을 떠날 작정까지 한다. 소설은 바로 이렇듯 각성없던 농민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극진한 보살핌과 자심한 손길에 의하여 점차 농촌진지의 핵심일군으로, 토지혁명의 주인공으로 성장해나가는 과정을 진지하게 펼쳐나가고있다.

강진건과 송신일은 각기 다른 방향에서 우리당의 토지개혁정책의 본질을 잘 깨닫지 못하던 사람들로 설정되어있다.

독립군출신인 강진건은 이 나라 농민들에 대한 환멸을 가지고 어느 하가에 그 지각없는 촌백성들을 개명시키겠는가고 하면서 토지개혁은 법령과 강제적방법으로 강행해야 하지 않겠는가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목사 송신일은 지주에게 예수의 자비를 베풀고 선심을 호소하여 토지를 스스로 내놓게 하는것이 옳지 않겠는가고 생각한다. 소설은 좌우량단에서 그릇된 견해를 가지고있던 이들이 어떻게 되어 우리 수령님의 위대한 사상과 토지개혁정책에 진실로 공명되어 혹은 진정한 인도주의와 참인간의 사랑을 깨닫고 애국적인 일군으로, 혹은 누구보다도 농민들을 믿고 사랑하는 일군으로 자라나는가를 깊이있게 형상하고있다.

이들뿐이 아니라 역사밖에 밀려나 암담한 세계를 저주하며 울던 눈물의 후예들인 대복이, 서분이, 무지와 몽매의 보이지 않은 사술에 얽혀 지주를 같은 종씨로 공대하던 달성서씨들, 낫놓고

기억자도 모르고 어질게만 살아온 갈촌의 머슴군 박근팔 등이 토지혁명과 더불어 새 인간으로 갱생하며 류랑걸식하던 고용노동자였던 김창규는 어엿한 당일군으로 성장한다.

장편소설 《조선의 봄》은 바로 《명장에게는 약 졸이 없고 근실한 농군에게는 나쁜 땅이 없듯이 위대한 령수에게는 부실한 백성이 없다.》는 진리, 토지개혁을 비롯하여 노동계급의 당이 수행하는 모든 혁명사업은 인간개조, 인간혁명을 떠나 승리할수없다는 진리를 그렇듯 명백하고 감명깊게 밝힌것으로 하여 총서문학의 계열에서 귀중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장편소설 《조선의 봄》은 인간관계의 설정과 해명, 성격과 생활묘사에서 혁명적대작의 풍격과 해방후편 총서문학의 품위를 원만히 갖추고있다.

무엇보다도 이 소설에는 당대 사회생활의 방대한 령역을 포괄할수 있는 광폭적이면서도 선이 굵고 무게있는 인간관계가 설정되어있다.

작품에는 김보현할아버님을 비롯한 만경대일가분들이 품위있는 형상으로 모셔져있고 김책, 강진건, 송신일 등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한 인물들의 선이 큼직큼직하게 설정되었으며 하지와 브라운, 델리오트 등 미제의 현지음모가들과 조만식, 오기섭 등 정계인물들이 부정인물집단을 주도하게끔 구성되어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하게 되는것은 부정인물들의 형상적무게이다. 지주와 농민간의 이른바 《대동단결》을 표방하면서 종당에는 미제에 대한 사대주의적환상에 빠져 반공반혁명의 나라으로 스스로 굴러떨어지는 조만식이고 만만치 않은 대상이지만 남조선주둔 미사령부의 괴함들과 그와 야합한 지주일당도 토지개혁수행에서 간단치 않은 압력으로 설정되어있다.

작품에 강한 반전을 깔고 그 집단과의 참여한 갈등관계를 깊이있게 추구함으로 해서 모든 반동세력의 준동속에서도 토지개혁의 빛나는 승리를 이룩해나가는 우리 수령님의 위대성을보다 격이 있고 무게있게 부각할수 있었다.

우로는 정계와 사회계의 주요인물들, 아래로는 빈고농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령역의 계급과 계층의 대변자들로 치밀한 인물관계를 조직함으로써 나라의 중앙에서 벌어지는 각이한 정치세력들의 움직임과 전략적문제로부터 지방과 각지 농촌들에서 벌어지는 빈고농, 중농, 부농, 지주 등 각이한 층의 동태와 생활정형을 전면적으로 포괄하여 일반화할수 있었다.

장편소설 《조선의 봄》이 당대 우리 나라 사회전반을 표상할수 있는 폭넓은 인간관계를 설정하고 토지개혁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과정을 갖 창건된 당을 강화하는 사업, 우당들과의 통일전선사업, 쏘미공동위원회와 관련된 사업, 인민정권을 세우는 사업 등과의 통일적인 령관속에서

보여준것은 좋은 경험으로 된다.

장편소설 《조선의 봄》의 사상미학적특징을 논할 때 우리는 또한 이 작품에 그지없이 풍만하게 흘러넘치고있는 생활적인 맛에 대하여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장편소설 《조선의 봄》은 정치적대가 굳건하면서 동시에 풍부하고 섬세한 생활적인 형상으로 엮어진것으로 특징되고있다.

작품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존귀한 영상과 만경대일가분들의 형상외에 90명 가까운 인물들이 등장하고있는데 그가운데서 조순근농민과 강진건, 송신일을 비롯한 20여명의 기본인물들만 놓고보더라도 모두가 서로 뚜렷이 구별되는 독특한 성격생리와 개성을 체현하고있다.

작품의 기본인물인 조순근의 형상은 조만식에 대한 환상, 그 환상의 파탄, 그로부터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흠모감애로의 전환, 이런 극적인 운명곡절에 따라 인상적인 성격형상의 생리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극적인 운명곡절을 통하여 당시 우리 농민들의 가슴속에 오직 위대한 수령님만 믿고 살아야 한다는 신념이 형성되는 과정과 토지개혁은 곧 인간혁명으로 되어야 한다는 진리를 생동하게 일반화하고있다.

같은 신당리의 농민인 홍묵의 형상에는 공짜를 좋아하는 인간적인 약점과 해방전에 자기 딸을 데리고 달아난 김창규와의 미묘한 인간감정으로 부터 초래되는 흥미있는 운명곡절의 극이 이루어지고있다. 자기 사위를 뺏아내는척하면서도 실로 불같이 사랑하고 개인리속에 밝은듯하면서도 실은 자기의 가장 귀중한 목숨까지 토지혁명에 아낌없이 바친 사람, 여기에 홍묵이의 독특한 인간적개성이 있다.

홍묵의 형상이 결코 달리 진속이 청렴한것으로 특징된다면 조만식의 형상은 결이 희고 진속이 검은것으로 특징된다.

조만식이 로회하고 완고하고 고루한 개성을 가졌다면 오기섭은 경솔하고 변덕스럽기 짝이 없는 《하이칼라식》의 인간으로 등장한다. 오기섭은 순간에 극좌로 내달리다가 다른 순간에 극우로 돌변하고 조만식과는 한사코 대결하기도 하는 괴벽한 성격의 소유자이며 그 모든것의 본바탕에는 선행한 고전리론에 대한 교조주의와 사대주의, 나아가서 당과 수령에 대한 양봉음위의 타기할 속심이 깔려있다.

이런 식으로 소설의 주요인물들이 자기의 독특한 개성과 극적인 운명곡절을 체현하고있기때문에 그 매 성격들이 다 유표한 인상으로 독자들의 기억속에 남아있게 된다.

장편소설 《조선의 봄》은 발표된지 얼마되지 않아서 독자들로부터 아주 재미있게 쓴 소설이라는 반영이 들어오고있다. 현대의 독자들은 아무 소설이나 보고 재미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재미있

다는 평가속에는 여러가지 심중한 미학상문제들이 암시되어있다.

그 종합된 높은 요구가운데서도 이 소설이 특히는 풍만하고 진실한 생활적인 맛을 짙게 보장하였다는 측면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 작품의 질은 생활감은 농토적인 구수한 맛을 풍기는 묘사솜씨와 진실하고 섬세한 생활세부들에 의해 생겨난다고도 볼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신당리와 강서지구의 어느 한 농촌마을을 몸소 찾아가시는 장면과 철공소에 친히 들리시는 장면, 그이께서 조만식을 만나시여 단죄하시는 장면, 조순근농민이 김보현할아버님의 도움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저택을 찾아가서 수령님을 만나뵙는 장면, 김창규가 해방후 처음으로 가시집으로 찾아오는 장면과 홍묵의 최후장면, 기타 조만식의 기반에 넘어가 속을 앓고있는 조순근의 심리세부들은 다 깊은 여운을 주는 기품진 대목들이다.

그러나 이 소설의 소박하고 진실한 생활적인 맛은 인민들속에 계시는 우리 수령님의 존귀한 영상을 실감있게 재현한데 보다 중요한 원인이 있지않겠는가 생각된다.

인민들속에 계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형상을 잘 묘사하는것은 우리 수령님의 위대한 인민적품모와 인간성을 보여주는데서는 물론 수령형상에서 풍만한 생활감을 보장하는데도 필수적인것이다.

총서《불멸의 력사》해방후편은 인민들속에 계시는 우리 수령님의 형상을 창조하는데서 일련의 특징이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해방후 혁명력사의 한단계를 형상하는 예술영화《전환의 해》에 대하여 주신 이 말씀은 우리 수령님과 인민들과의 관계를 항일혁명투쟁시기와 다르게 형상하여야 한다는것을 명백히 밝혀주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초기혁명활동시기 청년공산주의자들과 함께 싸우시면서 늘 인민들속에서 군중공작을 진행하시였으며 항일무장투쟁시기에는 항일유격대원들과 함께 풍찬로숙하시면서 몸소 손에 총을 잡으시고 전투의 앞장에 나서시기도 하고 친히 군중속에서 대중정치활동을 벌리기도 하시였다. 총서의 항일혁명투쟁시기편에서는 이러한 생활을 그대로 재현하는것으로써 인민들과 혁명전사들 속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을 보여줄수 있었다.

그러나 총서의 해방후편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과 연결되는 인물들이 지역상 한곳에 집

중되어있지 않고 전국적인 판도에 펼쳐져있게 되며 측근에 있는 인물들인 경우에도 자기 부문에서 일하다가 가끔씩 수령님의 접견을 받게 된다. 이런 조건에서 작품에 펼쳐지는 인물선들을 어떻게 수령형상과 연결시키며 그에 따라 수령형상을 어떻게 인간관계의 중심에 일관하게 모시겠는가, 인민들속에 계시는 수령의 모습을 어떻게 형상하겠는가하는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수 없다.

물론 해방후 우리 나라에 정연한 당조직선과 국가행정체계가 수립되고 오늘은 전당과 온 사회에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적령도체계가 확립되어있는 조건에서 혁명과 건설에 대한 수령님의 령도는 조직적인 령도체계를 통하여 실현되고있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활동을 형상하는데서 총서의 해방후편이 보여줄수 있는 중요한 특징의 하나이기도 하다. 해방후편에서는 작품의 무대를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 간부들과의 관계속에 설정하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모습을 보여줄 때도 많게 되며 수령님께서 당조직들과 국가행정기관들과 사업하시는 장면들도 많이 펼쳐지게 된다.

또 우리 나라 방방곡곡 그 어느 도시, 그 어느 군에 이르기까지 우리 수령님의 현지지도의 발자욱이 새겨지지 않은곳이 없다. 바로 이 현지지도의 자욱과 개별적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형상적으로 깊이 파고들면 인민들속에 계시는 우리 수령님의 영상을 훌륭히 재현해낼수 있는것이다. 주로는 현지지도, 위대한 수령님과 연고자들과의 관계, 이 두 공간을 기본으로 삼는다는 여기에 인민들속에 계시는 수령님의 형상을 창조하는데서 항일혁명투쟁시기편과 다른 점이 있다.

장편소설《조선의 봄》은 이 문제를 수준있게 해결하였다.

소설은 처음부터 위대한 수령님께서 만경대일가분들이 계시는곳도 몸소 찾아가시고 여러 농촌지역들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농촌과 농민들의 실태를 료해하시고 토지개혁문제를 토론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있다. 당시 각도에는 정치공작원들이 파견되어있고 당조직선들이 뻗어있는 조건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 체계를 리용하여 아래실정을 알아보실수도 있는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령님께서 어찌하여 그 바쁘신 시간에도 굳이 자신께서 친히 현지에 나가시여 농민들과 만나려고 하시는가. 소설은 그 생활적전제를 두 측면에서 분석적으로 형상하고있다.

한 전제는 우리 수령님과 인민사이에 맺어진 델레야 델수 없는 운명적관계, 극치의 인정관계 때문이라는데 있다.

우리 수령님께서 몸소 만경대를 찾으시고 재령 벌이나 강서일대를 비롯한 각지의 농민들을 찾아가시는것은 무엇보다도 항시 그들이 마음속으로 그렇고 그들을 떠나서는 마음의 안정을 못느끼시였기때문이며 그 모든 개별적사람들의 운명이 모두 우리 수령님께 의탁되어있었기때문이다. 특히 조순근농민과의 관계가 그를 잘 말해준다. 우리 수령님께서서는 해방을 맞이한 이 밝은 세상에 조순근이같이 꼭절많은 인생이 있다는것이 누구보다 가슴아프시였으며 또 오직 어버이수령님께만 운명의 모든것을 의탁하고 수령님을 떠나서는 한시도 살수 없어하는 농민들이였기에 그들을 한시도 잊을수 없어하신다. 그리하여 그 촉급하신 현지지도의 길에서 일부러 시간을 내시여 친히 조순근이사는 신당리에 들리시는것이다.

소설에 묘사된 다른 하나의 생활적전제는 우리 수령님께서서 어렵고 복잡한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그를 푸는 반도는 인민들속에만 있고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우리 인민들한테로 가야 그 묘술을 찾아낼수 있다는것을 굳게 믿고계시기때문

이라는데 있다.

토지개혁을 어떤 원칙에 기초하여 진행하여야 하는가? 이 문제를 놓고 간부들속에서 여러가지 각이한 견해가 교차되고있을 때 우리 수령님께서서는 그 문제의 구체적인 해명을 위하여 몸소 여러 지방에 나가시여 농민들을 만나보신다. 그후 농민들의 대중적자각을 불러일으킬 불씨가 필요하였을때도 다름아닌 댁에 찾아온 조순근농민을 친히 만나시는 계기를 통하여 그 고리를 풀어나가신다.

소설은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와 개별적인간들과의 연고관계가 충분한 생활적전제를 가지고 타당성있게 형상되어야 하며 특히는 우리 수령님과 인민들사이의 운명적인 관계에 대한 심오한 예술적해명이 있어야 한다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장편소설 《조선의 봄》은 심오한 사상적내용과 풍부한 예술적향취로 하여 우리 나라 수령형상문학의 귀중한 재보로, 힘있는 혁명의 교과서로 될것이다.

땅과 로인

윤기찬

말없이 논이랑 밭으며
자옥마다 그 무슨 생각이 고이는가
흰김 서린 강바닥흙을
손에 쥐여보는 마을로인

... 벌써 오래전일
마가을날 서해의 논고장에 오신 수령님
문득 벼포기 한그루 뽑아드시고
그 뿌리에 묻은 흙을 비벼보셨지

땅이 늙었으니
아지를 많이 치지 못했다 하시며
그날에 들려주신 인자하신 음성
-땅은 내내 젊어있어야 하오!

그날의 그 벼포기
그날의 그 흙을 생각하시며
이 나라 대지를 한품에 안으시고
온 나라를 흙갈이로 불러주셨으리

아, 마음속 깊이 안아본다
다시 또 동해지구 농민들과 마주하시고

흙갈이로 살핀 풍년든 밭이랑을 굽어보시며
이 나라의 논이랑을 영원히
주름살 모르는 청춘기로 기름지우시려는
어버이수령님

부지런한 농민의 마음 되시여
땅의 속성을 헤아리신 그 사랑
어제는 천리 밭이랑에 오늘은 만리 논이랑에
만풍년의 새웃을 입혀주시나니

로인은 벌써 바라본다
흙갈이로 높아지는 땅
젊음으로 치장한 온 나라 논판우에
대 실한 포기포기 큰 이삭을
벼겉질이 터지도록 영그는 알찬 열매를

아, 삽을 움켜잡으며
땅과 속삭이는 로인
밭농사도 장훈이요 논농사도 풍년장훈이로다
땅아! 우리 수령님 뜻으로
네 젊어지니 나도 젊어지는구나!

한해의 새길을 긴장하게 전투적으로!

지난해에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고결한 인민적풍모를 노래하는 서사시 《인민의 아들》을 창작하느라고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올해 2월의 명절을 계기로 서사시는 독자들과 상봉하게 될 것입니다. 적지 않게 힘을 기울이느라 하였는데 독자들에게 어떤 인상을 주겠는지 마음은 초조하고 또 불안하기도 합니다. 원고를 인쇄에 회부하고 보니 좀더 잘해야 할 대목이 많은것 같아 아쉬운 느낌도 생깁니다. 자기가 힘들여 낳은 정신적산물이지만 늘 부족스럽게 생각되는것이 나만이 아닌 모든 작가들의 공통된 심정인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서사시에 대한 독자들의 기탄없는 의견과 편달을 바랍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습니다.

《우리 당 건설과 활동에서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극한 사랑과 믿음에 넘친 서한말씀을 받은 시인의 한사람으로서 뜻깊은 올해엔 우리 당을 옹호하고 우리의 사회주의체도를 옹호하는 좋은 서정시들을 써보고싶는데 욕망만 앞섰지 실지로 독자들의 사랑을 받는 명작으로 만든다는것은 절

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을 불태워 올해엔 꼭 한두편의 명작을 창작해낼 각오입니다. 그리고 오래동안 현지에 나가지 못하고있었는데 현실에 나가 로동계급들과 농민들의 투쟁모습을 직접 체험하면서 당이 요구하고 독자들이 갈망하는 서정시들을 생활감있게 창작해보려고 합니다.

또한 올해엔 오래전부터 계획하고있었으나 실현하지 못하고있던 분계선기행을 꼭 단행하려고 합니다. 이 기행을 통해 조국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민족의 간절한 념원을 노래하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방안의 정당성을 구체적인 생활과 체험을 통해 확증하고싶습니다. 이 글이 기행편시로 되겠는지 산문으로 씌여지는 기행문이 되겠는지 아니면 산문과 운문이 배합된 어떤 형태의것으로 되겠는지 그것은 기행을 하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올해엔 지난해보다도 더 왕성한 창작적열의를 가지고 한해의 새길을 전투적인 자세로 걸어나감으로써 영원한 동행자로 우리를 불러준 당의 믿음에 충성으로 보답해나가겠습니다.

시인 오영재

당에 기쁨드릴 명작을!

새해! 뜻깊은 이해 1992년은 각별히 충격적인 감흥을 불러일으키며 밝아왔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킬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받들고 온 나라 전체인민이 총진군길에 펼쳐나선 이 아침, 나도 마음의 고개를 바짝 조이고 광복거리 큰길에 물결쳐 흐르는 사람들속에 들어선다.

무엇을 쓸것인가? 당이 요구하고 인민이 요구하는 작품들!

어떻게 쓸것인가? 당에 기쁨드릴 명작, 인민의 사랑받을 좋은 작품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예술작품은 생활을 진실하고 깊이있게 담아야 사람들에게 생활의 진리를 똑똑히 인식시키고 참다운 삶과 투쟁의 길을 가르쳐줄수 있습니다.》

많이 쓰는것도 좋지만 잘 쓰는것이 더 좋고 더 중요하다. 창작의 방향과 방도는 명백하다. 우리에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가르치심이 있지 않는가.

우리 작가들을 당 건설과 활동에서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로 굳게 믿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최근에도 또다시 우리들에게 의무감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량심에 따라 스스로 창작을 하여야 좋은 작품을 쓸수 있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의무감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량심에 따라! 이것이 나의 창작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방도이다.

당의 시인, 혁명의 작가로서의 깨끗한 량심, 불타는 열정으로 당에 기쁨드릴 시, 인민의 정신적 재부로 길이 남을 좋은 시를 쓰겠다.

시인 김철

읽히울 장편소설을!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습니다.

《혁명적의리를 더없이 귀중히 여기며 목숨을 바칠지언정 혁명적의리를 저버리지 않는것은 조선의 참다운 혁명가, 공산주의자들의 고결한 품모입니다.》

영광의 새해를 맞는 이 아침 력사적인 사변들로 자기의 년륜을 새길 뜻깊은 이해에 저도 우리 인민들의 충성의 대행진에 합류하여 새로운 주체의 장편력사소설 《충신의 피는 푸르다》(가제)를 기어이 인쇄에 넘기려고 합니다.

력사에 충신으로 널리 알려진 《사육신》을 원

형으로 하는 이 소설의 창작은 제가 아직 다루어 보지 못한 새로운 주제영역에 뛰어들었다는 한가지 사정만 가지고서도 매우 힘에 부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작가 자신이 자나깨나 충신의 높은 정신세계에 폭 잠겨 사색하고 창작할 때 아무리 힘에 부친다 하더라도 결코 못해낼 일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이 작품에서 당시 충신의 전형적성격을 창조해냄으로써 피와 땀이 배여있는 소설로, 읽히우는 소설로 인민들앞에 내놓을 결심입니다.

소설가 **림종상**

5 대과업관철에서 돌격대의 영예를 지니겠다

주체문학을 건설하는 길우에서 보다 새로운 승리와 성과를 안아올 희망찬 새해에 문학창조와 전설에서 언제나 선도자의 역할을 담당하여온 우리 평론가들앞에는 더욱 아름다운 과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습니다.

《창작가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문예사상에 철저히 의거하여 당과 혁명의 요구를 제때에 파악하고 작품을 창작하여야 시대와 인민이 요구하는 훌륭한 작품을 써낼수 있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작가들에게 우리 당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가 되고 당정책관철에서 열렬한 옹호자, 철저한 관철자가 되어야 한다는 높은 영예를 안겨주시었습니다.

이것은 주체문학을 건설하는 전기간 우리가 언제나 튼튼히 틀어쥐고 드팀없이 관철해야 할 지상의 과업입니다. 또 우리 평론가들이 문학운동과 창작실천을 어떤 방향에서 선도하여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뚜렷한 해답으로 됩니다.

저는 평론가로서의 높은 사명과 임무를 가슴깊이 새기고 문학예술부문에서는 언제나 당이 이룩

해놓은 업적을 견결히 옹호하고 더욱 빛내어나가는 사업을 첫자리에 놓으라고 하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가르치심을 관철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으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 당의 주체적문제 사상과 이론을 견결히 옹호하고 고수하는 결사대가 되고 돌격대가 되어 그 어떤 부르조아문제사상이나 그 자그마한 요소도 우리 대오안에 침습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주체문학의 혁명적기치를 계속 견결히 지켜나가겠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적책동이 전례없이 강화되고있는 오늘의 시대는 우리 평론가들로 하여금 사상적으로 예리한 평론을 더 많이 창작할 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저는 5대과업관철에서 돌격대의 영예를 지니자면 평론가로서의 높은 자질이 있어야 한다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새해에도 주체적문제 사상과 이론을 자신의 뼈와 살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더욱 힘있게 벌리며 문학운동과 창작전반은 물론 하나의 문학적세부형상까지도 높은 정치적안목과 미학관으로 분석판단하기 위해 있는 힘을 다 바쳐나가겠습니다.

평론가 **정룡진**

마음의 나라

김정길

잘 닦은 유리알처럼 맑고 푸른 가을하늘로 질서정연하게 대형을 지은 기러기떼가 끼르륵거리며 날아간다.

유유히 나라를 저으며 머나먼 길을 오는 기러기들이다.

가던 길을 멈추고 기러기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나의 머리엔 문득 낱새에게 나라가 없다면 저것들이 어떻게 생활을 유지해갈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삶의 보금자리를 찾아 멀고도 먼 길을 가을에 왔다가 봄에 가는 저 기러기뿐 아니라 누리가 어둠에 잠긴 밤에만 활동하는 눈이 큰 부엉이는 인간생활에 피해를 주는 못된놈의 귀를 잡으려 번개같은 속도로 지상을 향해 내려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무척 연약한듯이 보이는 갈매기에게 나라가 없다면 폭풍에 울부짖는 넓으나넓은 바다우를 어떻게 살같이 날아엘것이며 무게가 무려 100키로에 달하는 타조는 어떻게 한시간에 60~70키로미터의 거리를 달릴 수 있을 것인가.

날짐승임을 특징짓는 나라는 생태학적으로 볼 때 하나의 구조에 불과하지만 그것은 낱새의 생존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나라!

그 무엇에도 구애됨이 없이 아슬하니 높고 무한대한 우주공간과 격랑사나운 파도와 향기그윽한 숲속과 오묘하고 기상천외한 골개울과 벼랑사이를 자유자재로 날게 하며 목적지를 향해 빠른 속도로 날아가게도 하는 날짐승의 나라!

옛사람들은 바로 그 나라를 기원하여 하루에 몇백리가 아니라 몇천리를 나는 천리마를 환상적으로 그려보았을 것이며 중세기 사람들은 어깨에 키클 달고 눈썹리 아득한 산벼랑이나 나무꼭대기에서 낮은 골짜기로 뛰어내려도 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 와서 희망과 동경과 환상의 경지를 벗어나 완전한 현실로 되었다.

자주적이고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인간의 꾸준하고 인내성있는 과감한 투쟁과 활동, 노력에 의하여 비행기가 세상에 태어났고 우주로켓트가 하늘을 난다.

어디 그뿐이라.

정치수려한 모란봉 기슭 만수대 높은 언덕에는 우리 조국의 비약적인 발전을 자랑스럽게 보여주는 천리마, 년대와 년대, 세기와 세월을 주름잡는 천리마가 억센 나라를 활짝 펼치고 힘차게 나래치고있다.

하루에 몇십, 몇백리가 아니라 몇천리를 단숨에 나는 조선의 천리마!

그것은 우리 시대의 기상이며 열정.

남이 열걸음을 걸을 때 백걸음을 달리고 남이 백걸음을 내달릴 때 천걸음을 날아가는 우리 인민의 강의한 의지와 신념의 산물.

하기에 우리 인민은 영광스러운 당의 정확한 로선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자본주의나라들이 웅근 한세기, 지어는 몇세기에 걸쳐서 한 공업화의 어렵고 복잡한 과업을 14년밖에 안되는 매우 짧은기간에 빛나게 실현하지 않았는가.

참으로 영웅적으로 살며 일하며 투쟁하는 우리 인민은 백전백승하는 조선로동당의 열렬한 호소와 부름따라 어제도 그러했지만 오늘은 더더욱 높은 속도로 세상에 으뜸가는 우리 식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곳곳이 지키며 질풍같이 내닫고있다. 아니, 내닫고있는것이 아니라 휘황찬란한 미래-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완성을 위해 세인이 경탄해마지않는 혁신과 기적을 분초마다 낚으며 날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에 대한 인민대중의 높은 신뢰는 당이 내놓은 로선과 정책에 대한 입장과 래도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고있다.》

작년 가을에 나는 프락포르에 황금벼단을 싣고 있는 가없이 펼쳐진 풍년든 협동벌을 바라보며 취재용 승용차를 타고 넓고 곧게 뻗은 고속도로를 따라 어느 한조선소련합기업소로 가보았었다.

나의 현지체험지인 조선소는 드높은 열의와 기백으로 한껏 비등되어있었다.

우리 시대의 대기념비적창조물의 하나인 서해갑문이 탄생한 이래 잔잔해진 남포앞바다에서는 1만4천톤급 대형집배의 시운전이 한창 진행되고있었으며 부두에서는 배무이공들이 이미 진수한 여러척의 중소형물고기잡이배의 완성작업에 열을

올리고있었다.

한편 선박완성직장과 선체가공직장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일에 드릴 수천톤 뜬도크를 두 달이나 앞당겨 완성할 드높은 결의밑에 일을 세 팔개 내밀고있었으며 400마력 려객선 《김정일소년호》를 지상확대식조립방법을 받아들여 달포나 앞당길 목표밑에 있는 지혜와 기술과 힘을 다 발휘하고있었다.

서해기슭에 자리잡고있는 거대한 조선소는 걷고 닫는것이 아니라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현대적으로 꾸러진 자기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하며 억세인 나래를 활짝 펴고 기운차게 날고있었다.

나는 가슴속에 소용돌이치는 감격과 감동, 흥분과 격정을 금치 못하고 이미 구면으로 된 제관공, 배관공, 도장공, 계서공으로부터 련합기업소의 기사장, 지배인, 책임비서에 이르기까지 차례로 만나보았고 그들에게 어떻게 되어 이렇듯 용기백배하여 닫고 날고있는가를 물었다. 그러자 그들은 마치 사전에 약속이나 한듯 한결같이 대답하는것이였다.

《다가오는 4월에 있는 민족최대의 뜻깊은 명절을 높은 정치적열의와 로력적성으로 맞을데 대한 당의 호소, 그것이 곧 우리 조선공들의 마음에 끝없는 충성과 효성의 억센 나래를 달아주었습니다.》

나는 머리를 끄덕였다.

(그렇다. 바로 그것이다. 당의 호소는 우리 인민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며 폭풍도 헤치고 산악도 날아넘게 하는 마음의 나래이다. 하기에 혁

명의 성산 백두산으로부터 저 연백벌에 이르기까지, 석탄산을 하늘높이 쌓아가는 지하천척 막장으로부터 풍어의 노래 높은 원양어장에 이르기까지, 꽃무늬를 비단필에 정성껏 수놓아가는 방직공장으로부터 만풍의 열두발 상모가 춤을 추는 협동마을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민모두가 민족최대의 경사스런 명절에 드릴 충성의 선물을 마련하려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기세로 줄기차게 내달리고있는것이다!)

생각을 달릴수록 나의 가슴은 사뭇 뜨거워졌다.

워낙 먼길을 빨리, 곧추 날아가려면 억세고 튼튼한 자기의 나래가 있어야 한다.

더더욱 장구한 혁명의 길엔 보람과 영광만이 아니라 중중첩첩 쌓인 시련과 난관도 있는것이거니 오직 승리와 번영, 영광의 한길로만 곧바로 인도하는 당의 호소- 그것은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하나로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마음과 마음에 달아준 튼튼하고 억센 나래!

그 나래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유감없이 발휘할수 있는것이며 지구의 그 어느쪽에서 반사회주의적 광풍이 휘몰아치고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반통일소동을 미친듯이 벌리어도 사회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혁명의 길을 단 한치의 편차도 없이 빠른 속도로 확고하게, 자랑스럽게 날아가는것이다.

아, 세월이 흐르고 산천이 변해도 우리 당이 달아준 그 마음의 나래는 영원하리니 우리 인민은 앞으로만 끝없이 날고날으리라.

샘물

김광춘

길을 가다 문득

샘가에 엎드려마시는 한모금의 물맛-

불현듯 내 어릴적

어머니 젖맛을 생각해 함은

아, 그젖이

한모금한모금이 살로 가는

조국의 이런 물로 된탓일가

어릴적엔 이 몸을 키워주던

그 물 그 젖이

오늘도 나의 삶을 빛내주는

가슴속 맑은 피로 끓고있음이니

어릴적 어머니 가슴에 얼굴을 묻었듯이

고향산천에 엎드려

오늘도 내 얼굴을 묻노라

통일념원 굽이치는 건설장에서

박세일

통일! 이보다 좋은 말 있다 해도

통일! 이보다 중한 일없어

우리는 그렇게 너를 부른다

통일거리-

90년대 첫해부터

할 일은 많았지만

우리는 이 일부터 시작하였다

통일거리 건설-

다른 이름이 아닌

반세기를 탕탕 가슴치며 웨쳐온

통일이란 이름으로 건설하는 이 거리

다른 때도 아닌

통일년대로 빛내일 90년대 벽두에

우리 평양에 일떠서는 이 거리

여기선 한삽의 몰탈도

세멘트와 물, 모래의 혼합물만이 아니여라

그것은 가슴마다에서 쏟아져나온

통일열망의 융합체

여기선 층층 솟는 살림집들이

기증기의 힘만으로 오르는게 아니여라

그것은 날을 따라 높아만지는

통일념원에 받들려 솟구치는것

정녕 여기서는 용접의 불보라가

통일경축의 꽃보라인양 황홀하구나

저마끔 울리는 건설기계의 동음조가

통일 만세의 교향곡인양 화음이 맞는구나

통일이여 어서 오라, 다급한 마음들이

기초가 되고

벽체가 되고

층막이 되어

그렇게도 빨리 일떠서는 이 거리

뻗어가도

서쪽이나 동쪽으로가 아니라

혈육을 부르는 북녘의 손길인양

오, 남녘을 향해 내뻗치는거리

통일거리 건설장 여기에선

너와 나 모든 건설자들이

통일, 통일의 투사들이다!

충성의 별들

김삼복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근로자들속에서 나온 구호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자기의 삶의 요구로 받아들이고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관철해나가는 인민대중의 높은 충성심을 보여주고있다.》

정오다리를 건너 좀더 가면 통일거리 건설장 3호구획에 들어서게 되는데 오른쪽으로 25층에서 30층에 이르는 계단식의 살림집이 우뚝 솟아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이 살림집이 2호동이고 그 《가》동을 말아 건설하는 건설자들이 자강도려단 2련대전투원들이다.

그 대오속에는 성간군에서 온 3형제 건설자가 있다. 그들의 이름은 송태순(48살), 송효순(43살), 송철준(34살)이다. 내가 이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것은 그들이 다른 건설자들보다 뛰어나게 일을 잘하거나 특별하게 알려져있기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이 3형제는 아직 별로 알려져있지 않다. 그들은 우리 당의 의도를 자기 삶의 요구로 받아들이고 자옥마다 빛나는 위훈을 아로새기며 로동당시대의 새 건축물들을 일떠세우는 충성의 길을 걸어가고있는 수천수만명 건설자들중의 평범한 세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 3형제의 가슴속에 그 어떤 소중한 꿈이 간직되어있으며 어떻게 되어 형제모두가 수도건설에 참가하고있는가 하는것을 알게 된다면 한없이 소박하면서도 영웅적인 우리 시대 주인공들의 정신적면모와 참다운 생활의 일단을 엿볼수 있을것이다.

어머니의 부탁

두해전 늦가을의 어느날 저녁,

산골소도시의 가을은 단풍이 붉게 물든 고로쇠나무며 참나무의 잎사귀들로 울긋불긋 장식되어 거칠면서도 장엄한 맛을 한껏 돋우고있다.

길우에 떨어저당구는 락엽을 밟으며 두사람이 조용한한 거리를 걸어가고있었다. 성간군 도시건설사업소에서 직장장으로 일하는 송태순이와 시공지도원인 그의 동생 송효순이었다.

효순이는 87년도 봄부터 평양에 올라가 광복거리 건설에 참가하였는데 휴가 겹 몇가지 용무가 있어서 며칠전에 집으로 내려왔다. 그는 오래간만에 다시 보게 되는 자기고장의 가을풍치에 유별난 애착을 느꼈다. 하지만 효순이는 그러한 감정을 입밖에 내어 말하기 좋아하지 않는다. 생김새부터 광대뼈가 푹 불거지고 눈에 열기가 번들

거리는 효순이는 개방적이고 활동적인 전형적인 남자성격이다. 그런데다가 지금 저녁길을 같이 걷자고 형에게 요구한 그로서 오래간만에 만난 형님과 긴요하게 할 말이 있었던것이다.

《형님, 내 사실은 형님께 꼭 당부할 일이 있소.》하고 효순이가 말했다. 《어제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광복거리 건설을 끝내고 통일거리 건설에 들어가게 되면서 할일이 더 많아지고 그만큼 건설력량도 보강되게 됐지요. 성간군도시건설사업소가 모체인 우리 독립대대도 이번에 살림집을 한동 말아 건설하게 되는데 아마 런던도 다시 편성될거요. 봉사망이나 짓던 우리가 큰 살림집을 한동 말게 되니까 근심부터 앞섭니다. 런던로 확장되여도 참모장일을 계속하라고 하는데 내가 언제 살림집을 지어보았소?》

집안의 만형답게 침착하고 매사에 심중한 송태순이는 먼도자리가 푸릿한 얼굴을 수긋하고 묵묵히 듣기만 했다.

효순이는 살림집건설에 필요한 기중기와 혼합기, 자끼틀 등 설비들을 다 자체로 해결해야 하며 경험과 기능도 없거나 부족한 실태를 이야기하고나서 이렇게 말을 이었다.

《그래서말이요. 나는 형님도 이번에 같이 올라가서 우리를 도와주구 밀어주었으면 하오. 설비를 아는 형님이 옆에 있으면 난 정말 좋겠소.》

그는 설비를 아는 사람이 형말고도 많지만 생활에서 언제나 의지가 되는 형님이 손발을 맞추어주고 뒤를 떠밀어주었으면 하는 심정이였다.

동생의 제기는 어느정도 뜻밖이였다. 대대가 런던로 확장되면서 군도시건설사업소에서는 인원을 더 보충해주고 필요한 사람들을 교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는데 직장장 송태순이에게는 아직 그러한 권고나 지시가 없었다. 한것은 송태순직장장이 이곳에서도 필요한 일군이였고 한 건설사업소에서 같이 일하는 그들 3형제중에서 둘째와 셋째가 이미 평양에 올라가있으므로 고려했을수 있다.

한편 동생의 제기는 반갑기도 했다. 사실은 그도 수도건설에 참가하고싶었던것이다. 건설부문의 일군으로서 로동당시대를 빛내이는 새 건축물들을 창조하는 위업에 참가하는것보다 더 자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써 그는 군에 남아있었다.

효순이의 집 가까이에 이르러 그들은 담장옆에서서 담배를 붙여물었다. 효순이는 형에게 본인만 승인하면 당장 사업소에 제기하겠다고, 이곳

에서의 건설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부르심을 높이 받들고 온 나라가 떨쳐나 지원하고있는 통일거리 건설장에 형님과 같은 책임성있고 능력있는 일군이 참가해야 한다고 담배를 켜 손을 내흔들며 열정적으로 말했다.

《알만하다.》 마침내 형이 입을 열었다. 《내 마음두 동생과 같아. 솔직히 말해서 나두 효순이나 철순이와 같이 수도건설에 참가하고싶었다. 지금도 그 심정은 변함이 없어. 그런데 사업소에서 놔주지 않고 또 가정적으로도 늙으신 어머니때문에 내 선향 나서지 못한다.》

태순이는 동생앞에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그대로 말했다. 늘 어렵게 대하는 존경하는 형님의 대답은 효순이로 하여금 주춤하게 하였다. 사업소에서 놔주지 않는 문제는 자기가 제기하면 될 수 있다. 또 일정하게 논의도 있었다. 문제는 늙으신 어머니와 가정일이였다.

사실 효순이나 막내 철순이가 가정을 떠나 객지에 가있으면서도 집일을 근심하지 않고 일에 전심전력할수 있는것은 태순형이 어머니를 모시고있는 큰집의 맏이로서 큰집 작은집 할것없이 다 돌보고있기때문이었다. 그가 집을 뜨면 그 부담이 어머니에게로 전부 넘어올것이다. 물론 부담이래야 큰것이 없다. 생활상문제들은 사업소와 인민반에서 돌봐주고있으니까. 그래도 이런저런 일이 있기가마련인 4남매의 가정사를 돌보기에는 나이가 철순에 가까운 어머니로서 힘에 부칠것이다. 또 아들들이 다 없으면 어머니는 적적해할수 있다.

그러나 태순이는 동생의 말을 들으며 새로운 충격을 받았다.

동생과 헤어져 집으로 온 송태순이는 어머니에게 자기의 결심을 이야기했다. 그는 먼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민족최대의 명절인 위대한 수령님 탄생일에 인민들에게 주실 선물로 5만세대의 살림집을 짓도록 간곡히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어머니는 그저께 저녁에 인사하러 온 효순이와 철순이에게서 그 말을 들어 대체로 알고있었지만 열번 들어도 가슴이 후터워오는 이야기여서 머리를 끄덕이며 공감을 표시했다.

태순이는 그래서 자기도 동생들과 같이 수도건설에 참가하려 하는데 그러면 어머니의 부담이 커져서 그것이 근심된다고 말했다.

그 순간 어머니의 얼굴표정이 흐려졌다. 어머니는 몹시 서운한 어조로 말했다.

《나는 자네가 집안의 큰사람으로 무슨 일이든 생각을 깊이하고 옳게 처신하려니 믿어왔는데 이제보니 아직 철이 덜 든것 같은 생각이 드네.》

태순이는 놀라며 어머니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어머니는 말을 이었다.

《돌아간 자네 아버지가 군도시건설사업소에서 건설로동자로 한생을 마치며 바란것이 무엇이였

던지 벌써 잊었나?》

성간군도시건설사업소는 1962년에 군을 찾아 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 제대군인들을 비롯한 군내인민들의 살림집문제를 풀기 위하여 도시건설사업소를 큰 규모로 조직할데 대하여 주신 교시에 따라 나온 기업소이다. 이러한 건설사업소에서 일한 태순이의 아버지는 세 아들이 자기의 뒤를 이어 건설로동자로 일하며 어버이수령님의 배려가 인민들에게 차례지도록 살림집건설에 헌신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막내 철순이가 제대되어 다른곳에 배치되었을 때에도 제기하여 건설사업소로 데려왔었다. 지금 어머니는 바로 이러한 건설로동자가정의 충성심이 대를 이어가야 한다는 뜻에서 말하는것이였다.

《우리 어머니들은 나라에 큰일이 생기면 아들들을 다 나라에 바쳤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인민들에게 주실 선물을 마련하시려고 큰일을 벌리시였는데 자네는 이 어미 생각같은거나 하고 있단말인가.》

전쟁때 리녀맹일을 한적도 있는 어머니는 지금 나이가 고령이라 하지만 늙었다고 그저 아들이나 손자들의 뒤나 돌봐주고있지 않았으며 인민반생활과 사회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있었다.

태순이는 어머니의 말씀앞에 머리를 숙이였다. 어머니가 한없이 고마왔다. 그는 어머니에게서 당을 받드는 이 나라 어머니들의 숭고한 정신을 볼수 있었다.

첫눈이 내리는날 세 아들이 평양으로 떠나며 인사를 올릴 때 어머니는 집일은 조금도 걱정하지말고 형제가 서로 돕고 합심하여 당에서 바라는대로 통일거리를 다 건설한 다음에 내려들 오라고, 그것이 어머니를 위하는 일이라고 간곡히 부탁하였다.

없는것은 만들어내며

봄이 가까와오면서 룡악산쪽에서 불어오는 찬 바람에는 훈훈한 기운이 확연하게 느껴졌다. 그렇지만 야외에서 일하는 건설로동자들이 솜옷을 벗자면 아직 멀었다.

깃에 털을 댄 솜옷을 걸치고 가설사무실을 나서던 참모장 송효순이는 굴뚝에서 흰연기가 오르는 기술소대의 가설건물마당에서 머물거리는 형을 보게 되었다.

겨우내 기술소대를 직접 책임지고 설비들을 수리, 갱신하는 일에 여념이 없었던 형님은 지금도 일에 물리워 무척 바쁜지 면도를 제때에 하지 못해서 수염이 거뭇거뭇했다.

효순이는 가슴이 뭉클했다.

…지난 몇달동안 련대는 준비사업들을 서둘러 하였다.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앞두고 광복

거리와 중요대상들을 건설하던 때에 비하여 총건설령역면에 있어서 1.5배에 달한다는 방대한 규모의 5만세대 살림집건설은 그만큼 건설력량과 설비의 보충을 필요로 하였다. 그것도 몇달안으로 준비공정들을 끝내고 날이 따스해지면 기초작업에 들어가야 하는 긴박성을 띠고 있었다. 갑자기 불어나는 설비들을 시급히 보충하자니 우만 쳐다보고있을수 없어 송태순이네는 군도시건설사업소의 지원을 받기도 하고 자체로 만들기도 하였다.

기중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떻게 할것인가를 궁리하던 송태순이는 봉사망을 지을 때 쓰던것을 개조하여 그 능력을 높이면 살림집건설에 리용할수 있다는 안을 내놓았다. 그러자면 축, 축받치개, 메달, 치자 등 수다한 부속품들을 새로 깎아야 했고 기타 강재도 많이 해결해야 하였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참모회의에서 오래도록 논의했다. 부속은 성간군에 가서 깎아오며 파철을 리용하자는 사람, 부속이 아니라 아예 기중기를 한대 올려오자는 사람, 수도건설지휘부에서 해결받아올수도 있는데 무엇때문에 기중기를 개조하는 고생을 해야 하는가고 반문하는 사람...

참모장 송호순이가 어성을 버럭 높였다.

《그런 소리를 할바에야 무엇때문에 우리가 모여앉아서 논의를 하오? 술한 살림집들을 동시에 일떠세워야 하는 조건이어서 수도건설지휘부에서 기중기를 당장 해결해주기 힘들리라는건 뻔하지 않소? 우리 자체가 없는것은 만들어내고 부족한것은 찾아내야 한다는 정신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책상을 두들겨대는 참모장의 눈이 솟불처럼 이글거렸다. 침묵이 뒤따랐다.

《이렇게 합시다.》뒤쪽에서 송태순이의 조용하고도 저력있는 목소리가 울리었다. 《이건 내가 내놓은 안이니 나한테 맡겨주시오. 더 길게 말할게 없소.》

호순이는 형이 중요한 결단을 내렸다는것을 느낄수 있었다. 결심이 확고하게 서기전에 말하는 법이 없는 형이었다. 다들 돌아가고 둘만이 남았을 때 태순이가 동생에게 말했다.

《나는 이렇게 할 생각이다. 여기 가까운곳에 있는 만경대공작기계공장에 가서 부속을 깎아오겠다.》

호순이는 《지방에서 온 건설자들이 그런 일로 많이 찾아가기때문에 여간 시끄러워하지 않겠는데...될가요?》 하고 저으기 의혹을 표시했다.

《되도록 해야지.》 형의 표정은 진지했다.

내성적이고 결모습이 조용한 형 태순이는 얼핏 보건대 다른 기관과의 사업같은것을 해낼것 같지 않았다. 하지만 참모장 호순이는 말보다 행동을 앞세우는 성실하고 진지한 형의 성품을 믿었다.

며칠후 태순이는 그 공장을 찾아갔다. 아직 락

랑벌에 진출하기전이었어서 런대는 광복거리에 있었으므로 만경대공작기계공장은 가까이에 있었다.

호순이의 말대로 공장정문에서는 그를 반갑게 맞아주지 않았다. 그러나 그런 경우를 예견했으므로 태순이는 성을 내거나 덤비지 않았다. 《나는 공무동력직장장을 꼭 만나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고 그는 어성을 높이지도 않고 인내성있게 요구하였다.

마침내 정문을 통과하여 직장장을 만났다. 태순이가 부속품을 깎는 문제를 방조받으러 왔다고 하자 직장장은 몹시 딱해하면서 생산계획이 빈틈없이 맞물려있는데 어느 짬을 비집고 들어가겠는가하고 머리를 가로저었다.

《하루일이 끝난 뒤, 기대들이 시간있을 때 우리가 와서 깎겠습니다.》

그래도 직장장은 듣지 않았다. 바쁘다면서 피하려는 그를 붙잡아세우고 태순이가 말했다. ... 물론 수도건설에서 이 책임감은 지방사람이라 해서 덜하고 평양사람이라 해서 더하지는 않을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멀리 자강도땅에서 왔다. 무얼하나 가져오고 해결해오자 해도 멀어서 정말 힘들다. 그래서 당신들에게 부탁하는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통일거리 건설이라는 하나의 지향속에서 볼 때 내일 내일 하고 갈라볼수 있겠는가...

태순이의 사리정연하고 절절한 호소가 스민 이야기는 공무동력직장장을 마침내 감화시켰다. 그는 태순이의 어깨를 툭 치며 《내 생각이 짧았댔소. 멀리 자강도에서까지 와서 통일거리 건설을 잘하겠다고 애쓰는데 수도사람인 우리가 부끄럽소.》 하며 마침내 도와주겠다고 하였다.

직장장은 태순이와 함께 기사장을 찾아갔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난 기사장은 머리를 끄덕이며 《동무들이 밤에 와서 깎지 않아도 되오. 우리가 다 깎아주겠소.》 하고 쾌히 승낙하였다.

태순이는 기사장의 손을 꼭 잡으며 《고맙습니다.》 하고 목이 메어 말했다.

《허, 인사가 꺼꾸로 되었소. 우리가 고맙다고인사해야지요.》

태순이는 격동된 마음으로 부리나케 런대로 돌아와 참모장에게 전말을 다 이야기하였다.

호순이는 형님에 대한 믿음과 존경을 어떻게 나타냈으면 좋을지 몰라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방안을 왔다갔다 하였다.

태순이와 기술소대의 노력으로 다른 중요설비들도 해결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모범에 고무된 런대의 지휘일군들이 뛰고 또 뛰여 270여개의 자기틀도 해결하였다.

굴뚝에서 흰연기가 모락모락 오르는 기술소대의 가설건물마당에서 서성거리는 형님을 만났을 때 참모장은 이렇듯 지나간 일들을 더듬어보며 자기가 너무 형에게 부담을 많이 지웠다는 생각

이 들면서 가슴이 아파움을 어찌지 못했다.

《형님, 웬만한 일은 소대원들한테 맡기고 형님은 지휘만 하시오. 너무 무리해요.》

하고 효순이가 형에게 말했다.

태순이는 구부렸던 허리를 펴고 빙긋이 웃었다. 그는 손바닥으로 거뭇거뭇 돌아난 수염을 쓸며 《면도를 하루만 안해도 이렇다니까...》 하고 탄전을 썼다.

효순이는 형이 자기의 부탁대로 힘껏 밀어주고 도와주는것이 더없이 고마왔고 동시에 미안한감도 없지 않았다. 그렇지만 형에게 더 큰 일을 맡기지 않으면 안되었다. 런던에서는 송태순이를 설비참모로 임명하여 보다 포괄적인 범위에서 설비사업을 보도록 하였다.

《이거 형님에게 무거운 짐을 자꾸 짊어지우게 되는구만요.》

효순이가 이렇게 미안해하였을 때 태순이는 《내 어깨에 짐이 무겁게 실릴수록 통일거리 건설이 빨라지구 당의 심려가 그만큼 덜어진다고 생각한다.》 하고 뜻이 깊은 대답을 했다.

참다운 애정

날이 따스해지자 런던은 공사구역으로 진출하였다. 허허벌판이던 락랑땅에 가설건물들이 일어서고 빨건 진흙이 파헤쳐졌다. 기초파기와 기초콘크리트치기가 끝나는 차례로 살림집들이 솟아오르기시작했다.

2호동의 《가》동도 지상축조에 들어갔다. 그런데 미끄럼식을 처음 해보는 자강도려단 2련대는 첫걸음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휘틀이 벌어지면서 혼합물이 좌르르 쏟아지는가 하면 어떤데서는 휘틀이 올라간 다음 구멍이 뻥- 보이기도 했다. 참모장과 시공참모가 뛰어다니며 목이 쉬게 설명하고 일깨워주지만 경험과 숙련이 부족한 건설자들은 쉽게 미끄럼식방법의 묘리를 터득하지 못했다.

골재와 자재를 받아오는 문제도 간단치 않았다. 수다한 건설대상들에서 저마다 먼저 실어가겠다고 손을 내미니 웬만큼 날래지 않고는 그것들을 제때에 실어들이지 못했다. 그런데다가 세멘트상하차는 누구나 반갑게 하려 하지 않는 작업이었다.

강재와 세멘트 및 골재 보장을 전적으로 맡은 3대대는 물동을 제때에 실어들이지 못하여 저녁 총화때마다 련대장과 참모장의 추궁을 자주 받았다.

《아니, 우리 대대때문에 속도가 지장받는단말이요?》 하고 3대대장이 한번은 참모장에게 반발했다.

《그렇게 말해도 지나친건 아니요. 건설이란 뭐요? 골재와 강재, 세멘트만 물어들이면 축조는 뉘단말이요.》

밤잠을 자지 못해 눈이 충혈진 참모장 송효순이가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3대대장은 얼굴이 빨개져서 씩씩거렸다. 효순이는 보장대대가 힘들어한다는것을 모르는바 아니었으나 또한 강한 요구를 제기하지 않을수 없었다.

효순이는 그날 저녁 현장에 나가서 자갈을 부리우고있는 3대대 사람들을 만났다.

자갈을 부리우는 청년들속에 분대장을 하는 막내 철순이가 있었다. 철순이가 작업조를 책임지고있었다.

《철순이, 나 좀 보자.》

철순이는 삽을 든채 형에게로 다가왔다. 철순이는 효순이와 함께 87년도부터 수도건설에 참가하고있는데 시키는 일을 군말없이 잘하는 성실한 사람이다. 그런 측면에서는 큰형을 닮았다. 그렇지만 둘째형의 기질도 어지간히 닮아서 수틀리면 앞뒤를 재지 않고 대드는 때도 있으나 물론 그것은 극히 드문 현상이다. 막내인데다가 생기기도 3형제중에서 제일 깨끗하게 생기고 나이도 펍 아래여서 어머니와 형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있다.

《내 생각에는 지금 3대대의 보장작업에서 어디가 제일 걸린것 같니?》 형이 물었다.

눈을 껌뻍이며 잠시 생각하고나서 철순이는 《세멘트상하차지요.》 하고 간단히 대답했다.

《아니, 내 말은 세멘트를 비롯해서 골재, 강재들이 제때에 들어오지 못해서 축조에 지장을 주는일이 더러 있는데 조직사업에 걸렸는가, 운수수단에 걸렸는가 하는거야.》

형이 다시 물었다.

《잘 모르긴 하겠는데.》하고 철순이가 대답했다. 《운수수단두 팔릴 때가 있구, 우리 소대 경우를 보면 오늘은 이 일했다 래일은 저 일했다 하면서 골재나 세멘트가 들어오는데 따라 닥치는대로 하는데 복잡해요.》

《음-》 효순이는 머리를 끄덕였다. 《그래...작업 가능한한 전문화해야 하겠다.》

《그런데 그러면 일이 힘들고 쉬운 차이가 있지요. 이때문에 아마...》

《뭐 비슷해, 세멘트상하차가 네 말마따나 좀 힘들지.》

형은 동생의 말을 들으며 작업조직을 더 잘할 필요가 있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보장사업에서 혁신을 일으키기 위하여 동생이 앞장서도록해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철순아, 난 네가 세멘트상하차를 전문 책임지고 했으면 한다. 그것이 제일 걸렸기때문에 너한테 부탁한다. 세멘트부터 전문화하자.》

《내가요?》 철순이는 씨뿌듯해하였다.

《네가 형을 좀 도와주려마. 도와줄바에는 힘든모퉁이를 맡아서 제껴야지. 형이 참모장인데 너한테 쉬운 일을 시키며 앞장서라하면 되겠니? 큰

형두 요전에 말했지? 우리 형제가 힘든 일을 맡아서 누구보다도 더 잘하자고...》

3형제는 서로 맡은 일이 다르고 또 분주하여 같이 모여있는 때가 드물었지만 한번 모여앉으면 형제간의 따뜻한 정을 나누며 즐겁고 의의있는 시간을 보내곤했다. 방금 효순이가 한 말은 설날에 큰형 태순이가 동생들에게 한 호소와 당부를 넘두에 든 것이었다. 사업에 들어가서는 참모인 큰형이 참모장인 둘째에게 복종하지만 그렇게 형제끼리 있을 때면 큰형은 맏이로서 동생들을 깨우쳐주는 것이었다.

《그리구》 하고 효순이가 계속했다. 《네가 힘든 세멘트상하차를 책임지고 앞장서면 대대 지휘 일군들이나 대중에게 주는 영향이 얼마나 좋겠니? 동생이기때문에 미고 하는 부탁이다.》

철순이는 불기우리하고 길쭉한 얼굴을 숙이고 웅얼거렸다.

《알았어요. 해보겠어요.》

《응, 고맙다! 큰형두 좋아할게다.》

효순이는 동생과 헤어져 사무실로 돌아오며 어려운 때 믿고 의지하게 되는 형제들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느꼈다. 이들 형제들간의 사람은 이렇듯 사업과정에 독특하게 나타났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기 어려운 삶은 소리를 형제간에는 내놓고 말할수 있었으며 어려운 부탁도 하기 좋았다.

동생 철순이에게 세멘트보장을 전적으로 책임지우도록 3대대장에게 지시한 효순이는 그에 머무르지 않고 때때로 직접 동생이 일을 어떻게 하는가 료해하였다.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칭찬은 하지 않고 언제나 잔소리를 했다. 어떤 때는 어찌나 호되게 추궁하는지 3대대장이 오히려 옆에서 변명해줄 정도였다.

철순이는 얼굴이 빨개져서 풀풀거리며 의견이 있었지만 말을 하지는 못했다.

큰형과의 사업에서도 효순이는 오히려 남들보다 삶은소리를 더 했다.

살림집의 골조가 20층을 넘어서서 약간 속도가 떨어지던 어느날 참모회의에서 참모장은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자들의 열의에 참모들이 따라가지 못하기때문에 속도가 더지며 더 속도를 낼수 있는것도 못낸다고 하면서 대표적으로 설비참모인 형을 비판했다.

《혼합기가 한시간이나 서있었는데 이것은 예비부속을 제때에 마련해놓도록 조직사업을 간지게 못한 설비참모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참모부서일군들이 일에 투신하지 않고 책임을 아래에 미는 현상이 있습니다.》

태순이는 머리를 숙이고 참모장의 비판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총화가 끝난후 태순이는 참모장방을 찾아갔다. 참모장이 없었다. 이상하게 생각되어 두루 살펴보니 효순이가 킁킁한 담모통이에 등을 구부트하고서서 담배를 태우고있었다.

태순이는 그에게로 다가가며 무얼 하는가고 물었다.

《형님이요?》 저으기 저락된 기분으로 효순이가

돌아보았다.

《왜 이러구 서있니? 얼굴색이 좋지 않은것 같구나! 참모장이 그러면 전체 런던에 주는 영향이 나쁘다. 맥을 놓거나 힘든 기색을 보여서는 안된다.》

형이 따뜻하게 타일렀다.

효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형님, 내 사실은... 형님을 비판하고나서 속이 좋지 않아서 그러오. 가슴이 아파요. 내 형님을 빗대놓고 다른 동무들을 각성시키느라 아프게 말했지요. 형님처럼 일에 투신하구 책임성높은 참모가 어디 있소? 그런데두... 하지만 내가 형님을 비판해야지 누구를 비판하겠소?》

태순이는 천천히 주머니를 뒤져 담배를 꺼내었다. 효순이가 불을 붙여주었다.

담배연기를 연거퍼 몇번 내불고나서 태순이가 노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 아직 참모장자격이 없구나. 나는 참모장의 비판을 달게 받아들였는데... 뭐가 가슴아프다는 거냐. 내 사실 요새 좀 긴장이 풀렸댔다. 혼합기 사고가 그 단적인 표현이야. 그러니 비판은 아주 적중했고 옳았다. 그런데 너 뒤에 돌아앉아서 그 무슨 소리냐. 형이라 해서 묵과하면 되겠니? 그리구 다른 사람들보다 형이나 동생을 더 다그쳐대는것두 옳은거야. 그것이 우리가 남들보다 일을 더 많이 하고 더 잘하자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나는 참다운 형제간의 사랑과 믿음이란 바로 그런것이라고 생각한다. 형제간의 따뜻한 정이 당의 의도를 잘 받들어 통일거리 건설에서 은을 낼때 값있고 참다운것으로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가 떠나올 때 어머니가 하신 부탁을 잊지 말자!...》

형의 절절한 지적은 효순이의 가슴을 후더옹게 하였다. 그는 격동을 금치 못하여 《형님, 내가 미처!... 내 꼭 채심하겠소.》 하고 더운 김을 내뿜으며 짚으나 열렬하게 말했다.

... 11월에 25층까지 축조를 끝낸 런던은 이어 내부마감작업에 들어갔다.

×

3형제의 이야기는 이밖에도 많다. 그리고 그것은 수천수만명 통일거리 건설자들의 수많은 아름다운 소행들중의 한 실례에 불과하다. 그렇기때문에 나는 이 3형제와 함께 그 모든 건설자들을 다 당을 따르는 《충성의 별들》이라고 말하고싶다.

그들, 유명무명의 건설자들에 의하여 통일거리는 완공의 날을 눈앞에 두고있다. 그날 당의 은정속에 새집들이의 기쁨에 잠겨있게 될 사람들에게 나는 미리 말해두고싶다. 그 행복과 기쁨을 마련해주기 위해 우리 당이 기울인 은정과 사랑에 대하여 그리고 그것이 꽃피나도록 추운날 더운날을 가리지 않고 일한 건설자들에 대하여 잊지 말자고.

시조

1 월은 숨는다

-들끓는 통일거리 건설장에서-

차영도

나는 1월을 여기서 본다!

1월!
얼어붙은 대동강바람이
허연 입김을 날리며 달려드는
혹한속의 건설장-
나는 1월을 여기서 본다

사나운 겨울의 울부짖음속에
고드름을 드리운 돌격대병실,
하얗게 성에붙린 취사장문틈새로
도간도간 들려오는 칼도마소리
그것마저 이따금 얼어붙는듯

문밖을 나서면
뺨을 치는 칼바람
소소리 일어난 고층건물들도
서리찬 하늘끝에서 언뭉을 떠는데

그래, 이것이
겨울의 건설장인가? !
이것이 한겨울 소대한이
어디선가 키득거리며 얼어버린 1월인가?!

아니다! 오, 아니다!!

보라, 타는듯 불이 이는
여기저기에 나붙은 힘찬 구호들
이름처럼, 그 열기처럼 들끓는
통일거리 건설장,
마지막 완공으로 육박해가는 거리-

언땅에 무섭게 삽날을 들이박는
돌격대원들의 등어리에서
피여오르는 김, 때아닌 김,
목수건을 힘차게 두른 처녀들의 입가에서
쉬임없이 내여뿜는 심장이 타는 연기-

나는 1월을 여기서 본다!
이 통일거리 건설장의
불같은 사람들속에서
이해의 첫 1월을 본다!

통일열망에 피타는 사람들
이해의 다시 없을 두 경사의 달에
무엇인가 가장 큰것을 안고갈
그 충열에 타끓는 사람들속에서
1월을 본다!
불타는 1월을 본다!

기발

돌격대병실 지붕우에
기발은 왜 띄우는가
부는 바람마저 얼어붙는 하늘가에
기발은 왜 띄우는가

물어보라,
아직은 힘에 부친 돌격대생활에
정을 못두었던 나 어린 처녀
마침내 소리없이 흘리는
그 뼈아픈 자책의 눈물에 물어보라

물어보라
바람찬 겨울
차디찬 대기마저 서리가 돋히는 새벽에
곤한 잠을 깨우며 울리는

돌격대의 기상나팔소리에 물어보라

돌격대병실 지붕우에
기발은 왜 띄우는가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기발은 왜 내리우지 않는가를

힘겨워도 쓰러져도
주저앉을수 없는 그 이름 돌격대!
집을 떠나 한겨울
건설장에서 이겨냄이
결코 말처럼 쉽지 않은 돌격대생활-

그때문에 누구나
때없이 눈길 들어 우러르는 기발이다

우리르면 경건한 마음속에
절로 경례가 가는 기발이여
이름못할 고결함이
력력히 빛발치는 기발이여

얼마나 좋은가
새하얀 눈이
그 티없이 깨끗한 눈이
춤추듯 춤을 추듯
하늘이며 땅이며 온통으로 덮어버린
신비의 세계-

하냥 좋아
눈내리는 하늘 향해
머리 젖힌 옥금이
행복에 겨워, 기쁨에 겨워
돌격대병실 프락에서
이해의 첫눈을 맞네

얼마나 좋은가
로동속에 또 한살
새해 맞아 갓스물
그 풋저운 처녀의 가슴으로
산악처럼 일어난 거창한 통일거리를
내것이다! 소리치며 안아보는 수도건설자-

오, 정녕 어렵고 힘들 때
조국의 아들딸들을
우리 혁명이 말없이 지켜보는
엄엄한 시선이여,
지붕우의 돌격대기발이여!

첫눈

새하얀 눈이
내리는 눈이
정말로 춤을 추며
하늘이며 땅이며 온통으로 덮어버린
이해의 첫눈,

아, 지금 저 눈송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 속삭이는걸가?!
삶에 대하여
청춘에 대하여
행복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그 이야기
우리 옥금이 궁지에 넘쳐 들고있는걸가?!

로동속에 성장한 그 기쁨이 없이는
창조자의 희열에 사무친
그 이름 못할 행복이 없이는
누구도 들을수 없는 그 이야기
감히 알아들을수 없는
저 눈송이의 말-

바람은 뽁뽁 불고부는데...

들끓는 건설장 통일거리 곳곳에
바람은 뽁뽁 불고부는데
건설자들속에선 때없이 수군수군
귀맛좋은 소식들이 바람처럼 퍼도네

바람은 뽁뽁 불고부는데
저마다의 마음속에
이는 회오리, 이는 회오리-
-우리도 이번엔 1등을 해야지
-내부공사 래날엔 어서 끝내고
도배와 장판도 멋지게 끝내야지

바람은 뽁뽁 불고부는데
일손에 불이 인

-방직공장 처녀들이 벌써
2호구획 살림집 장판을 끝냈대
-황해남도 려단이
이번에도 1등이래

건설장 곳곳에선
오늘도 새 소식이 바람처럼 뽁뽁-

-거기선 벌써
기증기가 건설장을 떠나갔구나
-첫 증기가 도는 아늑한 방안은
정말 살기도 좋겠구나...

바람은 뽁뽁 불고부는데
저마다의 가슴엔 이는 불, 이는 불...

1월은 왜 서두르는가

건설지휘부를 다급히 찾는
려단장의 하루작업실적보고가
팽팽히 얼어붙은 전화줄을 타고
1월의 어둠속을 줄달음친다

지휘부 타자기들은 불이 일도록
련속 크고작은 문건들밑에
《1월》이라는 활자를
다급히 쪼아박는다

엄숙히 모여앉은 작업총화에선
마치 수확시간처럼
1월의 날과 날이
저마다의 량심앞에

따져지고 쪼개지고 계산된다

오, 1월!
일찌기 당에서 목표한
완공의 그 4월을 당장 눈앞에 둔
참으로 서두르는 통일거리의 1월이다

당이 인민과 약속한
살림집 선물을
인민 위한 사랑의 그 절정우에
한없는 감격의 그 드높은 파도우에
불타는 심장으로 받들어올리는 1월이다
그래서 이처럼 서두르는 1월이다!

가자, 1월이여

가자, 1월 이여
우리 기어이
완공의 테프를
이 통일거리에 드리울
기다리는 그날로 가자!

온통 꽃보라속에 파묻혀
기쁨이 숨막힐 그날
우리 수령님과 지도자동지
꽃주단 펼쳐드려 여기 모시고
목메여 만세높이 부르고부를
기다리는 그날로 가자!

가자, 1월이여
위훈많은 굴착기의 무쇠발로
언땅을 구르며 구르며
기중기의 진팔을 주먹처럼 휘두르며
수도건설의 힘찬 대행진으로
기다리는 그날로 가자!

가면 거기선

생각깊은 건설의 나날
그리고 불같이 념원하고 맞고싶던
통일의 그날도 우리를 기다릴듯만싶은
참으로 가고픈 그날로 가자!

가자, 1월이여
소대한의 칼날같은 추위속에
억센 가슴 내여민
산악같은 고층건물 벽체들에선
힘찬 구호들이 앞다투어 웨치고있다
듣느냐, 너 1월이여
가자, 기다리는 그날로 어서 가자!

오, 이 나라 하늘밑에
또 하나 기적같이 일어서는 새 거리
당에 바친
우리의 땀이며 의지이며 신념이기도 한
그리고 사무친 통일의 념원이기도 한 거리-
가자, 수억만 창문들이 꽃보라에 파묻힐
그날의 통일거리로
1월이여 어서 가자!

나에게 가장 기쁜 순간은 외 2 편

최인덕

보통날 비내린 길을 가다가도
문득 기쁨이 가슴에 젖어드는것은
이슬머금은 꽃들을 보았기때문인가
어린 날 손목잡고 걸음마 떼여주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라서인가

기쁜 순간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어머니의 사랑처럼
애틀한 정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주는 때
그런 때가 나는 제일 좋더라

어머니의 정깊은 눈길에서
이 세상 모든 빛을 안을 때처럼
따뜻한 그 등에 업혀
이 세상 모든 시름잊고
칭얼대던 어린날처럼
사람들 나에게 속을 터놓을 때가 눈물겹더라

공장에 가면
불길 이글거리는 로에서
젊은 단조공과 함께 땀흘리며
강쇠같은 마음속 생각도 불려내는
아, 그런 때 그런 순간이면
어쩐지 자꾸 어머니가 떠오르더라

어머니의 마음은
몰탈물은 삽자루 틀어쥐고
기초를 파헤치는 아들의 터갈린 손도
제일 먼저 알아보는 그 눈빛
높이 일떠설 건물만이 아닌
충성의 높은 탑을 먼저 헤아리는 그 사랑

그러면 언제나 누가 보는데 없어도
자식을 위해 묵묵히 바쳐온
어머니의 자욱자욱이 눈앞에 보이고

그런 사랑 그런 정성을 바친
또 한명의 숨은 공로자를 찾았을 때
우리 수령님 얼마나 기뻐하셨던가

그 누가 나에게
가장 기쁜 순간이
어떤 때인가고 물으면
나는 서슴없이 말하리라

당원증을 수여받던 날
어머니품에 안긴 자식같이
당기발에 맑은 눈물로
맹세를 새겨가던 젊은이
새 발명권 또 받아안고
기척도 없이 내 사무실에 뛰어드는 때-

아, 기쁨중 기쁨은 이런 때더라
비판받은 한 당원이
제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가시없는 어머니의 손에
매라도 더 맞고싶다며
심장과 온몸을 송두리채 맡기는 때가

기쁘면 기뻐서 찾아오고
아픔이 있으면 아파서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 다 안고
어머니와 자식처럼
마음속 문턱도 없이 낮도 밤도 없이
당일근 나를 찾아올 때
그런 순간 그런 때가 제일 좋거니

아,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마음속 집을 덜어내고 나갈줄 아는
그런 효자들이 태어날 때
스스럼없이 어머니의 마음이 되는
그런 순간이 나에게겐 제일 좋더라!

일감에 대한 생각

나이가 들어
머리에 흰서리가 내리어

때로 생각이 깊어지는게 아니다
하루일을 더듬으며

별많은 강변길을 거니는것도...

나에게는
해야 할 일이 류달라
재물을 부리는 아기의 능금불에서도
찾아야 할 빛이 있어
어머니의 웃음도 같이 헤아려보는 사람

눈이 와도 비가 와도
내 찾는 일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어
아래목을 짚어보는 어머니처럼
심장속의 열도를 짚어보는 사람

아들딸 초소로 보낸
후방가족아바이의 얼굴에서
영웅이 되어 돌아오는
새 세대 청춘들의 모습에서
흘러넘치는 밝은 빛을 보면
내 생의 자옥도 보람차지 않던가

그럴 때면
신심에 넘쳐 번쩍이는 사람들의 눈빛에서
내 한일을 놓고 비쳐보게 되더라
실패와 실패로 고민에 잠긴
한 젊은 과학자앞에선
더 큰힘을 주지 못한 내 일감을 찾게 되더라

열, 백을 주고도 만족을 모르는
내 그런 어머니가 되었던가
사람들의 마음속 작은 그늘도
내 무심히 스쳐버린것 없던가

주문일지가 공백으로 남아있는 매대앞을

레사로이 지나친적은 없던가
아, 쇠물빛을 가늠하는
용해공의 눈빛처럼
나는 사람들의 마음속 생각을 짚어가며
강철의 대오로 이끌어야 할
어머니 당일군

선반공이 기대앞에 서고
직포공이 비단필을 살필 때
내 일감은 눈에 띄지 않아도
초소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잡고있어
쇠물의 불보라속에
가슴우에 번쩍이는 훈장마다에
내 일한 자옥이 새겨져있더라

아, 깊어지는 생각이여
언제나 인민과 생사운명 함께 나누는
어머니 당일군으로
내 마음의 창문을
군중을 향해 활짝 열고
내 순간도 일손을 놓지 않았던가를
가슴깊이 되새겨보나니

내 일손 쉬임을 몰라야
우리 당이 가장 아끼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정이 교여넘치고
내 심장 지칠줄 몰라야
천만의 발걸음 해와 별 우리러
부서질줄 모르는 강철이 되리라!

나의 출근길

이른 아침이면
누구나 다같이
일터로 가는 출근길이건만
발자국 하나, 들려오는 말소리에도
나에겐 무심히
스쳐지날수 없는 길이어라

푸르른 새벽 마당을 쓸려 나서면
새벽바람에 실려오는
아침밥 짓는 구수한 냄새에도
내 마음 먼지 가닿더라

더 늘쿠어야 할 두부공장과 김치공장
마지막 폐지까지 번져보아야 할
식료상점매대의 주문일지에...

출근길 서두르는 옆집젊은이
계단을 두개씩 내려밟는 소리에도
내 마음 따라서고싶더라
밤새워 입당청원서를 쓴
그 젊은이의 기쁨 함께 나누고싶어

줄지어 학교가는 아이들

불룩한 책가방에서 울려오는
달랑거리는 필갑소리에서도
내 느끼게 되더라
학생들에게 차례질 학습장에 대해

그러면 출근길에 나선 내 마음
새로 꾸린 종이공장
초지기 로라옆에 서있고
잠자는 아이의 머리맡에 앉아
행복에 겨워 책가방을 챙겨주던
다감한 학부형이 되는 길

출근으로 봄비는 건늬길에서
경례를 보내는 교통안전원
어깨의 견장에 땀혀 빛나는
한방울의 이슬도 무심히 볼수 없으랴
인민의 안녕을 지켜 지낸 밤이 있어
활기 넘치는 출근길에 대하여

생각마다 불러주는 거리의 창가에서
후더운 흰김 쏟아져나올 때면

마음 후더워 찾게 되더라
구멍탄공장의 저탄장둘레와
보이라앞에서 땀흘리는
열관리공들과 이야기도 나누고싶어

아, 일터로 가는
나의 출근길은 멀지 않다
나의 출근시간은 길지 않다
하나 내 가는 길엔 포장길만이 아닌
식료공장 원료기지 발머리와 잇닿아있고
새로 늘여야 할 수도판이 따라서고
밤새운 과학자의 책상머리를 지켜주는
어머니의 발걸음이거니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이 성스런 구호를 심장깊이 새기며
인민의 마음속을 찾아가는 나의 출근길!
가장 높은 인민의 지향향해
수령님과 당과 대중과 하나로 이어가는
보람찬 지름길이여라

교문

리기력

내 어린꿈 피던
교향의 모교
너를 떠난지 수십년 지나
다시 이 교문앞에 서니

지나온 인생길에 문은 많았어도
그 어디에도 없었구나
너처럼 생각깊이
내 걸음 멈추게 한 문은

처음 들어설 때엔
누구나 똑같은 철부지였어도
졸업한 그날로부터 세월은 흘러
다시 너를 찾으니
빛나는 위훈 없인 들어설수 없구나
오, 모교의 교문이여

그 어느 지도에도
너는 새겨있지 않았더라
못사람들의 기억속엔 더욱 없고
너를 떠난 나도
기억한 때보다
있고 산 때 더 많았구나

우리글을 처음 익히던 그날로부터
어린 마음속에 봄싹처럼 자라난
그 정직함, 그 깨끗함
한없이 귀중하고 아름다운 그 마음으로

조국앞에 다진 나의 첫땀세도
여기에 어려있나니

네가 불러준 그 노래
군모우에 별로 새겨지고
네가 배워준 그 지식
창조의 노을로 불태우며
내 달려온 길은 멀었어도

준엄한 혁명의 그 길우에
내 순간이나마
그날의 맹세 저버린 때는 없었던가
에서 되새겨보게 되는 마음이여

아 교문!
네게 비긴
나의 옛 담임선생님의 그 정다운 미소가
조국이 나에게 준 끝없는 사랑이였고
에서 가리켜준 그 정어린 손길이
조국이 나에게 준 미더운 당부였거니

사람들이여
머나먼 인생길, 시련도 있는 그길에
자주 이 교문을 추억하시라
그러면 말없이 소박한 이 교문이
깨끗한 마음으로 떠나던 그날의 맹세
그대앞에 언제나 되새겨주리

피리소리

양익선

사람이 늙으면 총기가 덜해져서 제가 난 자식들한테도 속히우기가 일쑤라더니 이런 경우를 두고하는 말인가보다.

별무리 총총한 밤. 나는 모닥불이 활활 타오르는 가독나무누에막 둔덕우에 올라앉아 이런 생각을 굴리며 어이없어했다.

사실 지금은 군적으로 김매기가 한창이다. 나는 며칠전 논판에서 설참에 젊은것들한테 푼수없이 화선악기 얘기를 했더니 그것이 어떻게 돼서 군관개관리소 책임기사로 일하는 만아들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그날저녁 싱글벙글 웃으며 네 밥상에 마주앉아 하는 말이 아버지의 참가밀에 요즘 한창벌어지고있는 가족노래경연에 우리 온 식구가 출연하는것이 어떻느냐고 묻는것이였다.

《아버님으로 말하면 어떤분입니까. 남반부에서 머슴군으로 지지리 고생살이를 하시다가 의용군으로 공화국북반부에 열혈단신으로 들어와 오늘은 이같이 행복한 대가정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군당선전비서동지하고도 의논해봤는데 스물이 넘는 우리 가족이 무대에 펼쳐나면 굉장하겠다고 하면서 우리 제도의 행복상을 보여주는것도 의의가 크일이라고 패히 찬성하더군요.》

그건 사실이다. 내 남은 자식들모두가 관리일군이 아니면 과학자나 기사로 일하고 대학으로부터 중학교, 유치원 탁아소에 이르기까지 손자들이 진을 치듯 한자리씩 차지하고 나라의 혜택을 받으며 마음껏 배우며 자라고들 있으니 행복이라면 이같이 행복한 가정이 또 어디 있겠는가. 게다가 아들 손자들 모두가 나를 닮아서 악기 하나씩은 다룰줄 알고 노래라면 도금을 못쓰는축들이다. 이것들을 다 거느리고 무대에 오르면 군회관은 물론 도나 중앙의 웬만한 무대는 한가득 채울것이니 이 아니 장관이겠는가.

하지만 김매기철이 한창인데 오래동안 놓았던 피리를 잡자면 연습이 있어야겠는데… 하고 내가 걱정을 했더니

《그건 넘려마세요. 아버지한테 누에막경비를 세우면서 연습시간을 충분히 주자고 했어요. 노래경연이 중요한만큼 빈틈없이 짜고들드군요.》 하고 아들은 대답했다.

아래방에서 한구들 둘러앉아 저녁을 먹던 머느리며 손자들도 《하자요. 아버님…》, 《할아버지, 하자요!…》 하고 중구난방으로 떠들어대는통에

나는 그만 손을 들고말았다.

《그럼 하자꾸나. 노래경연이 그렇게 중요한것이라면 말이다.》

그래서 피리연습을 한답시고 손수 오동나무피리를 깎아들고 이 둔덕에 오른것이다.

자리를 잡느라고 분주하게 돌아칠 때는 미처 몰랐다. 그러나 호젓하게 나왔어 정각 피리를 불자니 멧적은감이 나서 잠시 오동나무피리를 주무럭거리며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굴리다가야 (아차! 내가 아들녀석한테 속았구나!) 하고 무릎을 철썩쳤다.

달포전에 아들들이 인젠 아버님도 환갑이 가까와오는데 좀 쉬운 일자리로 옮겨앉는것이 어떻느냐고 권고하는것을 노여운 말로 물리쳤던적이 있었다. 그후로는 아무말없이 조용들 하더니 가족노래경연이라는것을 궁리해내서 나를 이 등판에 올려보낸것이 아닌가.

(영큼한 녀석들!…)

나는 자식들한테 감쪽같이 속히운것이 어이없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여 허거픈 소리를 냈다.

솔직한 말로 자식들의 그런 소행이 밍지는 않았다. 인젠 철들이 들어 제법 부모들을 돌볼줄도 알게 된것이다.

나 역시 어제날같이 앉아서 젊은이들과 함께 일할 때면 힘이며 정력이 딸리였다. 달포전 자식들의 권고가 있었을 때에도 체면상 밀막아버리긴 했어도 남들의 집이 되고 웃음거리가 되기전에 쉬운일자리로 옮겨앉아 남은 여생을 쉬엄쉬엄 흥겹게 살아가는게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도 했었다. 나로말하면 한늬 농사일로 썩살이 박히도록 부지런히 일해왔고 다섯아들을 다 끝날같이 키워 내세워놓았다. 한가한 일자리인즉 그 대가로 응분하게 차례진것이 아니겠는가.

나는 아이들의 이 처사에 대하여 타협을 하고 눈치를 채지 못한척하기로 했다. 어찌보면 그 애들이 애비의 체면에 손상을 주지 않고 뜻대로 해놓은것으로 해서 기특하게 여겨지기도 했다.

가족노래경연 역시 그것대로 중요한 일이다. 군에서 주관하니만큼 군의 체면이 깎이지 않게 준비를 잘해야 한다.

선전비서어른도 가족노래경연이 단순한 소조공연 같은것이 아니라 우리 제도의 행복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일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나는 자신의 마음속에 갈마드는 그 어떤 먼구스러운 감정을 이런 생각들로 누르며 몸갓춤새를 바로했다.

손수 품들여 만든 오동나무피리를 입술에 갖다대는 순간의 맛이 유별났다. 나는 몇음정 불어보고 귀를 강구었다. 자신이 낸 소리가 하늘이며 들관이며 어둡속으로 어떻게 번져가는가를 그 음정이 사라지기전에 음미해보고싶어서였다.

이 땅의 해빛과 온기 속에서 자라난 오동나무피리는 나의 넋을 자기를 낳아준 자연과 쉽게 이어주는듯싶었다. 피리소리는 둔덕밑의 안개며 수정천이며 가지치기가 한창인 퍼르스름한 밤논판을 조용히 번져갔다. 손에서 피리를 놓은지도 오랜세월이 흘렀건만 그 유정함과 부드러움, 옛숨씨야 어디 가랴싶었다.

《허허… 이렇게 인생살년의 락이라는건가? …》

나는 자신이 낸 음정에 취해 밤하늘을 향해 절절 웃었다.

어느덧 나는 자신을 잊고 단순하게 생긴 몇치안되는 오동나무피리에 온 넋을 쏟아부을수 있게 되었다.

피리불기에 얼마나 심취되었던지 나는 누가 가독나무숲을 헤치고 올라오는것도 모르고있었다. 어둡서니같은 검은 형체가 우뚝불앞에 우뚝 나타났을 때에야 와들 놀라며 입술에서 피리를 뺐다.

《이밤중에 웬 사람이슈?》

나는 전혀 낯모를 사나이를 향해 물었다. 그 사나이는 개울과 최쪽, 가독나무숲을 곧장 질러서 올라온 모양인지 옷자락이며 바지가랭이가 밤이슬에 후줄근히 젖어 말이 아니었다.

나이는 내 나세 비슷한데 불빛에 비친 얼굴엔 이름할수 없는 그 어떤 열기가 풍기었다. 그의 눈빛은 무엇인가 격렬한 마음을 안고 달려오던 사람이 그 어떤 부딪침을 당하여 굳어진듯한 표정이었다.

《여기 불결에 와 앉으슈. 뭇때문인지… 옷을 흠뻑 적셨구려.》

나는 동년배의 아량을 갖고 자리를 권했다.

《그게 오동나무피리요?》

사나이는 아직 흥분을 누르지 못하고 물었다.

(아하, 이 사람도 음악미차광이로군!…) 하고 나는 생각했다.

옛날 소시적에 불였던 취미나 천성적인 끌림에 못이겨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엔 없지 않는 법이다.

나는 빙그레 웃었다. 오래간만에 분 나의 피리소리가 이 사람을 여기까지 이끌어왔다는것이 나로서는 기분이 좋았다.

《허허… 그렇소. 내 손으로 짚은 피린데 음정이 제대로 잡힌것 같소?》

《잘 부는군요.》

나는 피리의 음정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는 이렇게 대답한다. 그 대답 또한 싫지 않았다.

《잘 불긴… 어찌겠소. 좋은 세월이라 애들이 함께 가족경영에 나가자구 성화가 하나갈에서 김매기가 한창인 바쁜철에 이렇게 가독누에막에 나앉아 연습을 한다오. 잇달아 큰 공사도 한다는데…》

《여기 농장에선 물질을 종전설계대루 켜나가기루 한다우?》

나는 입을 하 벌리고말았다. 방금전까지도 오동나무피리요 뭐요 하더니 지금은 물길공사니 종전설계니 하는 왕창같은 소리를 한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나는 의혹이 버쩍 생겨 엄한 목소리로 물었다.

《난 청단리관리위원장 오진석이요.》 하고 그는 대답했다.

《올가을에 있게 될 물길공사때문에 군에 갔다오다가 피리소리에 끌려왔소.》

(듣던바 그대로군!) 나는 생각했다.

청단리관리위원장이라면 군적으로 《말썽》이 제일 많은 사람으로 소문이 났었다. 일에선 억척같지만 성격상 과묵한데 비해서 피벽스럽고 왕창같은 요구로 사람들을 놀래우는적이 빈번했다.

오늘점심때도 군관계관리소 책임기사인 아들한테서 이 사람 얘기를 들었었다. 며칠째 뻘질나게 군에 찾아올라와 종전설계대로는 못하겠다면서 물질을 산락으로 올려부치는 새 설계를 내놓으라고 하면서 벽을 문이라 뻘쳐댄다는것이다. 물론 그의 요구대로 하면 몇정보의 토지류실은 방지할수 있다. 하지만 중앙적인 총설계와 연결되어있고 공사기일이며 할당된 로력, 세멘트, 강재 등 총계획안이 다시 검토되고 작성되어야 한다. 그게 말갈에서는 쉽고 그럴듯해보이지만 전반을 고려해볼때 관리위원장의 주장은 주관이며 고집에 지나지않는다고 하면서 이걸 납득하지 않으려는 이 사람에 대해서 골머리를 앓는다고 아들은 말했었다.

(아마 이밤도 그 일때문에 군에 갔다오는 모양이군…)

나는 그의 젖은 바지가랭이를 비웃음 섞인 눈길로 바라보며 통명스럽게 대답했다.

《나는 쓸데없이 남의 일에 빠치지 않소.》

사실 나는 성격이 조잡하고 피벽스러운 사람을 좋게 생각하지 않았다. 어찌보면 생활은 복잡다단한것 같으면서도 다 제 흐름길을 따라 흘러가

고있는것이다. 생활을 큰 강에 비기면 사람은 그 강물을 타고 흘러가는 물방울과 같은 존재여서 그 물결에 모든것을 맡기고 즐겁고 흥겹게 흘러가면 되는것이다. 더우기 즐겁고 흥겨운 이 세월에 생각도 될수록이던 단순하게 갖고 남한테 뒤지지 않을만큼 제 말은 일을 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면 되지않는가. 매사에 간섭하고 복잡하고 난해한 의견들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까지 불안스럽게 굴며 살필요가 뭔가 나이가 들어 제나름의 인생체험이 많아진 나는 될수록이던 이런 사람들과 교제를 피하고 멀리 하려고 애썼다.

때아닌 때에 나타난 이 불청객으로 하여 나의 흥은 어지간히 깨지고말았다. 그런데 상대방은 심드렁한 내 심중에는 개의치 않는듯 이상할만큼 흥분된 표정으로 굳은 청을 드는것이였다.

《피리를 한번 더 불어주!》

나는 그의 눈빛이며 목소리에서 류다른 느낌을 받았으나 대답은 꾸밈없이 해버렸다.

《피리두 잘될 때가 있지 망탕 불어대는데 아니요.》

덤덤히 앉아있던 그는 생각깊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놈을 열년간 사람이라구 욱하지 마오. 왜 그런지 이 유정한 밤에 피리소리를 들으니 고향생각이 간절해지는군요.》

《거기 고향이 어디요?》

《내 고향은 경상도 원평이란곳이요. 태백산줄기를 따라 남단으로 내려가면 락동강상류에 감이랑 대추랑 잘되는 그런고장이 있소...》

나는 느닷없이 코마루가 쩡해졌다. 나 역시 고향을 남에다 둔 사람이 아닌가. 대번에 가슴이 후터워지고 그 사연을 모르고 인정머리 없이 굴은 자신의 행동이 미안스러웠다.

《의용군으로 들어왔소?》

그는 고개를 끄덕거렸다.

둘은 한참동안 말없이 앉아있었다. 이 짙막한 통성속에 어찌보면 비슷하다고 할수 있는 서로의 지나간 한생이 비껴있음을 마음속으로 느꼈기때문일것이다. 거기에는 인생의 기쁨도 격동도 있었지만 지지리 가슴때우는 고통과 슬픔, 이루어지지 못한 념원으로 하여 솟구쳐오르는 분노와 애수 또한 없지 않는것이다.

이 침묵속에 둘의 마음은 펍 가까와진듯싶었다.

그는 마치 하던 얘기를 계속하듯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의 아버지는 산판에 솟구이막을 지어놓고 참나무를 찍어 솟을 구어파는 솟구이군이였소.

어깨가 든든하고 힘꼴이나 쓰던 아버지의 어깨에 어머니와 나 어린 동생 셋을 해서 다섯식구가 얹혀살았소. 호구지책이 어려운 형편에서두 날 만이구 머리두 괜찮다고 해서 공부를 시켰소...》

이렇게 하여 나는 이 의심적던 사나이의 지난날의 생활이야기를 듣지 않을수 없었다. 평범한 말로 시작된 그의 가정사가 그를 흥분케 한 피리소리며 물길공사며 하는것들과 어떤 련계가 있는지는 아직 알수 없었지만 구리빛 도는 그의 얼굴이며 격렬하게만 보이던 그의 눈길에 어린 구슬프고도 생각깊은 표정에 나도 이끌려들어가지 않을수 없었다.

《아마 내가 공부를 좀 괜찮게 했던가보우. 하루일을 끝내고 돌아온 아버지는 빠근한 어깨를 주물면서도 앓은뱅이책상을 마주하고 공부하는 나를 내려다보며 별썬 웃군했소. 그자신이 학교문전에도 못가보고 판 무식쟁이인 집안에 그래도 공부를하는 자식이 있어 펍도 대견하게 보였던가보오.

가난은 했지만 오붓하게 살았소. 가정엔 소박한 꿈도 있었고 웃음도 있었소. 아마 가난뱅이들한테 작은 꿈조차도 이처럼 귀중한 모양이지.

한데 그 꿈과 웃음이 하루사이에 다 날아나버릴줄이야.

그날도 아버지는 솟집을 지고 산판을 내리다가 우뚝 멈춰섰소. 화염방사기통을 등에 진 미국놈들이 렬을 지어 불을 뿜으며 올라오고있었소.

놈들은 그 지대에 비행장을 닦아놓고 주변의 나무들을 모조리 찍고 불살랐소.빨치산의 출몰을 미리 막는답시고 하는짓들이었소.

때마침 아버지는 바위뒤에 몸을 숨기느라고 했지만 불길이 온몸을 한번 스쳐지나가는것을 막지 못했구려. 솟처럼 꺼렇게 끄슬린 아버지가 두손을 허우적거리며 내려오던 모습이 지금도 눈앞에 보이는듯하오. 아버지는 얼굴이며 온몸에 심한 화상을 입는데다가 눈까지 멀었던거요.

얼굴이 꺼렇게 타고 두눈의 백내장이 희게 내려덮인 아버지를 부여잡고 어머니도 울고 우리 형제들도 울었소. 아버지의 눈을 덮은 어둠은 우리 온가정에 내려덮였던거요. 캄캄한 어둠과 절망이 소리치며 심장들을 쥔것였던거요.

아버지는 왜서인지 자꾸 나의 손을 더듬어찾았소. 그리고는 그 거울진 손으로 펍 움켜잡고 갈린목소리로 거듭 이렇게 뇌이는게 아니겠소?

《진석아, 안됐구나! 응, 네가 안됐구나!》

그때 나는 아버지가 왜 나한테만 이런 말을 곱씹는지 몰랐소.

며칠후 내가 거뵈하던 가방대신에 아버지가 지

던 무거운 솥집을 지고 산판을 내릴 때에야 그 뜻을 알았구려. 열일곱살나이에 어깨를 파고드는 솥집을 지고 가느다란 다리를 후들거리며 비탈길을 뚫아내릴 때에야 이제부터 온 가족의 운명이 나의 어깨에 실렸다는 것과 애 어린 꿈이며 놀음이며 생의 즐거움이 모두 사라져버렸다는 걸 말요. 더우기 참기 어려운 고역과 고달픈 나날로 하여 어린 마음에 일찌기 해별이 사라지고 멍이 들고 슬픔이 짙게 찾아오리라는 것을 아버지는 알았던 거요.

처음에 나는 효자된 심정으로 힘자라는 것 일을 잘해서 아버지도 어머니도 잘 모셔드리리라 결심했드랬소. 허지만 아버지도 힘겨워하던 가정의 운명은 어린나이의 어깨우에 너무나 무거운 짐으로 실리웠고 나날은 헤아릴 수 없는 고달픔으로 이어졌소. 그속에서 꽃피나던 꿈과 희망은 무참하게 이즈러졌고 어깨며 잔등과 함께 혈기넘치던 젊은 피는 꺼멓게 죽어갔소.

애매하게 들쓰는 모욕은 얼마나 많았겠소. 산림간수란 것들이 때없이 나타나 으르렁댔고 장판에선 순사며 부자집마나님이나 마름같은 것들이 어린 솥장사를 비웃고 욕하고 때로는 때리기까지 했소. 그래도 그런 일은 세월이 그렁겠거니 하구 참을 수 있었소. 하지만 솥집을 지고 공공 갑자기 장에갈 때 같이 학교에 다니던 총각애들이나 처녀애들을 만날 땐 말그대로 쥐구멍에라도 기여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대요. 열일곱 그 나이시절 처럼 깨끗하고 자존심이 강하고 수치를 참지 못하는 시절은 없지요.

나는 그때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소.

솥을 판 돈으론 보리쌀 몇 되 사서 지게에 엮고 술을 열근히 마시고 돌아오느라면 속이 좀 후련해지는 것 같았소. 길이 좁다하구 개바닥이며 논판을 질벅질벅 가로질러 돌아오우. 집 샅문을 들어설 때면 가관이였겠지. 솥검댕이 얼굴에 술기운이 별경게 오르고 바지가랭이는 흠칠잡이구... 하지만 어머니나 아버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소. 아마 그저 마음속으로 가련한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소. 아버지는 그저 덤덤히 앉아계시고 어머니는 나 몰래 눈물을 훔치더군요.

생술인지라 때로는 너무 취해서 집을 못 찾고 최독이나 서독발, 내가 같은데 넘어져 잠드는 적도 있었소.

보리이삭들이 한창 패일 때인 늦은 봄날이었소. 그날도 나는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보리밭 한가운데 네활개를 활짝 벌리고 누워버렸소. 어느새 잠들었던 나는 비몽사몽간에 어디선가 들려오는 피리소리에 눈을 떴소.

드문드문 눈에 띄우던 별들은 구름속에 감춰지고 흐릿한 밤하늘에선 가랑비가 소리없이 내리고 있더군요. 따스한 봄비는 보리밭에, 내 얼굴에 애무하듯 조용히 뿌려졌소. 알릴 듯말듯한 비발과 어딘가 애수를 띠고 들려오는 피리소리에 나는 왜서인지 저도 몰래 눈물이 글썽해지는 것이었소. 눈물인지 비물인지 모를 따스한 것이 귀밑을 타고 흘렀소. 나는 그것을 씻을 념도 안하고 하늘을 향한 채 그냥 누워서 피리소리를 듣고있었소.

그 누구를 애타게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 타이르는 것 같기도 한 피리소리였소. 그 소리는 술에 취하여 보리밭에 번뜻 나가넘어진 나의 몸을 어루만지는 것 같았소. 아니 몸만이 아닌 어린 마음을, 이즈러지고 거칠어진 나의 넋을 부축여주려 안타까이 하소하고 애무하는 것만 같았소.

나는 지척거리며 일어나 갓난애가 어머니 품에 끌려가듯 다정한 애수의 음향을 따라 걸어갔소.

내가 다달은 곳이 어디였겠소. 그곳은 다름 아닌 우리 집이었소. 눈먼 아버지가 퇴마루에 나앉아 피리를 불고있더군요.

그날부터 우리 집에서는 하루도 피리소리가 끊기지 않았소. 처음에 나는 건장한 분이 하루종일 집에 갇혀있자니 무료해서 그러는 게로구나 하는 정도로밖에 생각 못했드랬소.

하지만 그게 아니었소. 그 피리소리에는 무엇인가 깊은 뜻이 울리고있었소. 아버지는 우정 별로 슬프지 않는 곡조만 택해서 불렀던가보요. 얼핏 듣기엔 그저 부드럽고 은은한 소리였소. 하지만 깊은 심려가 비낀 슬픔이며 피로움을 감출 수 없었고 그것을 애써 감추려는 것으로 하여 가슴을 더욱조이는 듯한 음정이 울려나오고있었소.

아버지인들 얼마나 피로웠겠소! 자기대신 솥지계를 진 아들을 두고, 다 깨어져버린 집안의 꿈과 자식의 미래 그리고 더욱 거칠어져가는 아들의 불쌍한 모양을 보고도 꾸짖지조차 못하는 아버지의 피라는 심정이 그 피리소리에 다 담겨져 있었소.

그 피리소리를 들으면 나는 길설에 누워있다가도 공공 갑자기 일어나 지척지척 집을 찾아오곤 했지요. 그걸 봐서 아마 내가 그 피리소리를 반가운 심정으로 받아들였던 모양이요.

그러던 어느날이었소. 산자드락길을 걸어오고 있던 나는 곰바위엿 굽인돌이길에서 문득 걸음을 멈추었지요.

내앞으로 곧장 한 처녀가 걸어오고있었던 거요. 순희라는 처녀가... 학교에 다닐 때 나와 제일 가까웠던 처녀였소. 사랑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멀지만 사춘기의 처녀총각들이 갖게 되는 깨끗하고

순결한 그런 우정이라는데 있지 않소? 정갈한 시내물과 같고 동녘하늘에 비끼는 새벽노을과 같은, 아직은 불처럼 뜨겁지는 않아보이지만 어찌보면 사랑보다 더 순결하고 고상한 그런 관계말요. 다른 것은 잊을수 있어도 이런 관계는 사람의 인생에서 영원한 추억으로 남아있는 법이지요.

순희와 나는 그런 사이였지요.

바로 그 처녀가 석양빛을 등지고 걸어옵니다. 무슨 생각에 잠긴듯 약간 숙일사하고 걸어오는 처녀는 아직 날 못알아본 모양이요.

코마루가 상큼하고 예쁘장하게 생긴 얼굴, 가름한 뺨을 스치며 흘러내린 머리칼이 바람결에 춤추듯 가볍게 날리요. 어느때같으면 그 청신한 모습과 가벼운 걸음걸이, 정겹고 깔끔한 눈매를 나는 천진란만한 즐거움을 안고 맞았을거요. 그 황홀한 모습앞에 반가움을 내색지 않느라 우정땀을 부려 변성기의 투박스럽고 거친 목소리로 불렀을거요. <야! - 순희야-> 하고 말요.

하지만 나는 망두석처럼 굳어져버렸소. 그날저녁 그 피할수 없는 굵인돌이길에서 나는 자신의 짧은 인생에서 처음 겪어보는 고통을 겪고있었소.

그것은 수치와 절망의 몸부림이었소. 솟구이군의 너털너털한 녀마웃차림, 어깨에 걸친 지게와 거기에 얹혀져 데루거리는 보리자루, 솟검땀이칠에 술기운까지 올라 뺨경계 더욱 험상스러워진 자신의 얼굴... 그앞에 다가오는것은 석양빛을 등지며 금빛을 두룬듯이 더욱 아릿다와진 처녀였소. 영원히 익혀지지않는 모습이요. 광명의 온 세계가 처녀의 뒤에 있고 나는 끝없는 암흑의 나락끝에 서있는것만 같았소. 눈앞이 캄캄해지고 길들이지않은 짐승처럼 사납게 울부짖기라도 하고픈 심정이었지요. 그것은 말그대로 다가오는 황홀과 광명앞에 수치와 비참의 녀의 전률이었소.

순희도 날 알아본 모양인지 오흘 걸음을 멈추고 놀란듯 손을 들어 입으로 가져가드군요. 나는 지금이라도 당장 지게를 벗어 뺨개치고 도망이라도 치고싶었소. 하지만 내가 피할곳은 어디 있소?

나는 어떤 반발심에 콧 뿔밀리워 성큼성큼 처녀앞으로 다가갔소. 그리고는 무작정 쳐들린채 있는 처녀의 가냘픈 손을 우악스럽게 휘어잡았소.

<순희! 이 솟구이쟁이하구 같이 살래?>

처녀는 대번에 눈이 휘둥그래지드군요. 나의 행동이 얼마나 뜻밖이었겠소. 나의 말은 더욱 뜻밖이었지요. 열일곱 그 나이에 그런 고백, 그런 수작질이 당차하오? 이 어이없는 행동을 무엇으

로 설명할수 있겠소. 나의 물골, 나의 수치, 아마 거기서 오는 수치와 모멸을 그런 파렴치한 행동으로 감추려고 했던거요.

하지만 처녀한테 얼마나 불랑스럽고 한심한 행동이었겠소. 순희는 금방 울음이라도 터칠것 같은 표정이었소. 눈물이 그의 까만 눈동자에 펴 돌더군요.

<술주정뱅이같은게!...>

그는 잡힌 팔소매를 뉘 뿌리쳤소.

<그꼴루 눈먼 아버지와 동생들을 어떻게 먹여 살려!...>

그리고는 찬바람을 일으키며 나를 피해 달아나더군요.

열일곱살 처녀들만이 할수 있는 맴판 말투였소. 하지만 그 짧은 몇마디속에 얼마나 살뜰하고 애끓는 처녀의 마음이 담겨있었겠소. 그때 나는 그걸 몰랐소. 그걸 느끼기에는 자신의 고통과 설움이 너무나 컸던가보요.

나는 제 정신이 아니었소. 채찍으로 머리를 얻어맞기라도 한듯 머리칼을 움켜잡고 정신없이 마을쪽으로 뛰어갔소. 개울가에 꼬꾸라지기도 하고 길옆에 덩굴기도 하면서말요.

나는 마을어구에서 칼에 맞은 사람처럼 우뚝 서버렸소. 또다시 아버지의 피리소리가 들려왔던거요. 부드럽고 은은한 피리소리... 그 누구를 부르는것 같기도 하고 타이르는듯도 한 피리소리...

어느날이면 반가왔을 그 피리소리가 어쩐지 그날은 그렇지 않드군요. 오히려 청승맞게 아픈 가슴을 허비고들면서 부아를 돋구는것이 아니겠소.

저 청승맞은 피리며 뭐며 이 세상 모든것을 짓부셔버리고 실컷 통곡이라도 하고싶은 심정이요.

나는 설음을 참느라고 입술을 앙다문채 눈시울을 내리깔고 집마당에 들어섰소.

<왔-냐?>

불던 피리를 옆에 놓으며 아버지가 반기드군요.

나는 곧장 옷방으로 향했소. 방금 쏟아지려는 눈물을 어머니와 동생들 앞에 보이고싶지 않았지요.

눈앞이 뿌릿하고 정신없이 덤비다나니 나는 마루에 놓인 피리를 와썹-소리가 나게 밟았구려.

때마침 옷방에서 뒤옹박을 들고 나서던 어머니가 그 모양을 보았소.

<너 정신나갔냐? 아버지의 피리를 밟다니...>

<누가 이 잘난걸 문가에 놓으래요?>하고 나는 부스러진 피리조각들을 발길로 쓸어서 마당으로 내뜨리며 소리질렀소.

그 순간 《첼썩!-》 하는 소리와 함께 내 눈앞

에서 불꽃이 번쩍 일었소. 놀라 눈길을 치켜드니 어머니의 해쓷한 얼굴과 떨리는 입술이 보이더군요.

<불효자식같은놈아! 네가 감히 그런 수작질을...> 하고 어머니는 여윈 가슴을 들먹이며 말했소.

<아버지가 오죽해서 그 피리를 부는줄 아느냐? 술주정뱅이가 된 네너석을 꾸짖지는 못하구 집이라도 제대로 찾아오라구... 이너석아, 그래 피리를 부시다가는 끊고 네 발자국소리가 나나 귀기울이시고 그리고는 다시 불고 또 귀기울이는 애비의 그 심정을 네가 아느냐!...>

<여보!...>

아버지의 부드러운 목소리였소.

<그애를 너무 꾸짖지 마오. 이 애비대신 힘든 일을 하느라고 그애들 여복하겠소. 피리야 또 하나 꺾으면 되지. 마당에 실한 오동나무가 자라는 데 말요.>

나는 더 참지 못하겠더군요. 옷방으로 뛰쳐들어가 이불을 뒤집어썼소. 주먹으로 입을 틀어막았소. 하지만 터지는 오열을 참을수 없었소. 나는 꺾꺾 소리를 내며 울었소. 그 절망의 울음소리는 불도 켜지 않은 우리 집 초가의 나지막한 이영밀을 짝 채웠겠지요.

내가 왜 몸부림치며 울었겠소? 여보시오! 내가 아버지나 뺨을 친 어머니가 원망스러워 울었다고는 생각지 마오. 거칠어진 어린 마음속에도 인간 본성의 애정은 살아있었던거요. 나 자신과 참담하기 그지없는 우리 가정의 운명을 두고 나는 울었소. 눈먼 아버지와 병든 어머니, 어린 동생을 생각하며 울었고 영원히 사라져버린 어린 시절의 꿈이며 순회며 동무들과의 잃어버린 우정을 두고 울었던거요. 더우기는 나 자신이 거칠어질대로 거칠어져서 어느덧 불효막심한 자식이 되어버린데 대해서 울었소. 그러면서도 어쩔수 없이 래일도 모레도 세상사람같지 않은 모양을 하고 싶구이아궁에 기여 들어가야 하구 그것을 팔아 번 돈으로 보리쌀 몇되박을 사들고 오늘처럼 집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생각에 기가 막혀 울었던거요!...

아버지는 다시 만든다던 피리를 그후에 더는 만들지 않았소. 하긴 그렇지, 모진 사회가 빚어놓은 가정의 암담한 처지며 짓궂혀 이즈러진 아들의 마음을 피리론들 어찌겠소.

아버지는 갑자기 병어리가 된듯 말없는 사람으로 변해버렸소. 얼굴색은 더욱 컴컴해지고 수척해가더군요. 생의 의욕을 잃어버린 우리 집안은 더욱 참담한 기분에 잠겨버리고 고역과 궁핍, 우울과 말없는 한숨과 절망 속에 아버지뿐아니라

온 가족이 쇠약해지고 점차 죽음으로 가고있었소.

피치 못할 열병이 도는 집안처럼 말요....>

그는 웅얼거리듯 말을 끊고 물끄러미 우등불만 바라보고있었다. 그의 두눈은 지금 모든것을 잊고 그때 자기 가정의 암담한 정상을 들여다보고 있는듯싶었다. 죽은 사람처럼 얼굴이 컴컴해진 그의 모습을 바라보는 나의 두눈에서는 뜨거운것이 고여올랐다. 나 역시 그런 참담한 생활의 고통을 체험해본 사람이었다. 그의 이야기속에서 나는 나의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을 보았고 그 참담한 슬픔과 고통을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어쩐지 나는 그의 이야기를 더는 들어낼것 같지않았다. 그의 이야기와 잇달은 침묵이 나의 가슴을 답답하게 했거니와 자신을 잊다싶이 피로운 추억에 잠겨있는 그의 넋을 깨워야 했다.

나는 말머리를 돌릴양으로 서둘러 이렇게 물었다.

《그래, 당신은 우리 군대가 남진할 때 입대했겠소?》

그는 스러져가는 우등불에 장작개비를 기계적으로 몇개 던져넣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요...》

불길의 확 타올랐다. 그의 얼굴에도 화기가 피어나기 시작했다.

《남에서 입대한 거의 모든 동무들이 우리 군대가 남진할 때 입대했지만 나는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때 입대했소.

아마 나이가 어린 탓도 있었지만 남진의 격동적인 환호속에서 그것을 자신의 운명과 결부시켜 생각할줄 몰랐던가보요.

나는 해방의 기쁨을 기쁨으로만 받아들였소. 극히 짧은 기간이지만 그 기간에 나는 숫지계를 벗어놓고 책가방을 다시 멜수 있었고 순회와도 어제날의 깨끗하고 순결한 우정을 회복했소. 설익었던 그 술버릇을 떼버린것은 말할것도 없구요.

그 광명의 순간은 너무나 짧았소. 한달 남짓 지나서 전략적인 일시적후퇴가 시작되더군요.

나는 그때에야 입대를 청원했소.

물론 눈먼 아버지와 병약한 어머니, 어린 동생들을 생각지 않은것은 아니었소. 내가 집을 떠나 버리면 그들의 처지가 어떻게 되리라는것도 짐작했소.

<애야, 네가 집을 떠나면 우린 어떻게 살라는 거냐. 눈먼 아버지의 손길을 잡고 류랑결식을 하라느냐. 네 비록 어리지만 우리 집안에 있어 호주구실을 해줘야 한다. 애야!》

어머니는 내 팔소매를 부여잡고 말그대로 절망에 싸여 손을 비틀며 울었소. 그 정상을 내려다보는 내 마음은 어떠했겠소? 허나 나는 숫구치려는 눈물을 머금고 지킴을 지키며 목석처럼 버티고 서있었소.

뿌잇해진 나의 눈길은 형클어진 어머니의 머리너머로 마을 한복판에 꽃혀있는 공화국기발을 우러러보고있었소. 인민군대를 맞이하던 날 꽃혀있던 그 기발은 그날부터 하루도 내리우지 않은채 휘날리고있었소. 그 기발을 바라보는 나의 눈앞에는 저 기발밑에서 토지개혁이며 전선원호며 밤낮없이 들끓던 눈부신 나날들이 생생히 떠올랐소. 내가 나서자란 고향집의 밀짚지붕이며 올라리며 마당가의 오동나무들이 마지막빛을 뿌리고있는듯 나의 눈을 아프게 찔렀소.

마을길엔 색깔은 군복을 입은 인민군대대렬이 마을사람들의 눈물겨운 환송을 받으며 떠나가고있었소.

말로써는 표현할수 없었지만 나는 무엇인가 지난날의 암담했던 세계를 뛰어넘어 자기 운명을 개척해야겠다는 완고한 생각을 품고있었소. 나는 그 숫구치막과 수치와 오욕, 슬픔을 못이겨 술을 마시고 비칠거리며 돌아오던 비참한 그날의 세계로 되돌아가고싶지 않았던거요. 눈먼 아버지며 불쌍한 어머니와 동생들의 운명을 구원하는 길도 어머니가 붙잡는 여기 고향에 떨어지는 길이 아니라 어머니의 만류를 뿌리치고 떠나가는 길이라 는것을 알았던가보오. 아직 어려 표현할길 없는 이 아픔을 안고 목석처럼 서있는 아들의 가슴을 어머니는 허비고 또 허비었소.

그런데 아버지가 내 마음을 알아주듯 허허 웃으시며 어머니를 타이르는게 아니겠소.

《여보, 뭘 그렇게 울며불며 야단이요. 장한 생각을 하고 떠나가는 애를 웃으며 바래줘야지.

그애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나 말요. 우리같은 천덕꾸러기들이 잘사는 세상을 도루 찾자는건데 ...

호주구실인들 그 이상 더 잘할수 있소?》

그리고는 나를 향해 이렇게 말했소.

<야야 진석아, 장군님을 모시고 인차 돌아오겠다고 이 불쌍한 부모들한테 언약해다오.>

나는 옷방으로 뛰어들어가 오동나무피리를 들고나왔소. 잊을수 없는 그 봄밤 자신이 저질렀던 불효를 속죄하는 심정으로 남몰래 품들여 꺾아두었던 피리요.

나는 아버지앞에 그것을 받쳐들고 와락 뿔어앉았소.

<네! 아버지, 이 불효자식을 용서해주세요. 아

버지 말씀대로 장군님을 모시고 인차 고향땅에 돌아올테니 그때 이 피리를 불어 절 맞아주세요!>

나는 아버지의 거룩진 손이며 무릎을 뜨거운 눈물로 적시며 맹세했소. 보리자루가 데룡거리는 지계를 지고 부모들의 걱정과 련민에 젖은 눈길을 받으며 돌아오던 그런 술주정뱅이 <호주>로서가 아니라 총칼로 앞길을 헤치고 투쟁으로 광명을 이끌어올 그런 당당한 호주가 되어 돌아올것을 맹세했소.

아버지는 이 아들이 쥐여준 피리를 어루쓸며 애무에 젖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소.

<야야 그러마, 네가 장히 돌아올 땐 내 피리소리가 당차하랴만 그래두 널 반기는 심정으로 불고 또 불마!> ...》잠시 끊겼던 그의 목소리는 다시 갈린 소리를 냈다.

《...40여년이란 세월이 흘렀소. 불효막심한 이 자식은 반백이 되도록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소.》

분출하려는 격노를 마음속에 붙들어두려고 모진애를 쓰듯 그의 목소리는 침통하게 갈린 소리를 냈다.

《고향집 퇴마루엔 칠순이 넘는 눈먼 아버지가 아직도 피리를 불고있을것만 같소. 마당가에 서있는 오동나무에도 수십돌기의 새 년륜이 새겨졌을거요. 그런데 나는... 인차 돌아가겠다면 그 언약은 어데 두고 여기 앉아있는거요!

나는 지금 몇백세대를 책임지고 농사며 살림살이를 운영해나가는 관리위원장이요. 내 어깨도 인젠 어지간히 든든해져서 천이나 넘는 농장식물들을 남부럽지 않게 감당해내고있소. 그런데 나의 친아버지며 어머니, 형제들인 고향의 불쌍한 다섯식솔을 먹여살리고 행복하게 해주는 호주로는 못됐단 말이요.

술직히 말하오만 그날의 리별이 이처럼 길줄 몰랐소.

마흔해가 넘도록 지키지 못할 그런 언약을 하고 떠나올 자식이 이 세상 어디 있겠소.

아, 피리소리! 부드럽고도 은은하게 날 부르며 타이르는것 같기도 한 피리소리가 이밤도 내 귀전에 들려오는것만 같소.

사람들은 날더러 성미가 거칠고 안정을 모르는 피벽한 사람이라고 하오.

내가 어떻게 만사를 너그럽게만 대하는 셈평좋은 인간이 될수 있겠소. 무엇인가 속에서 불이 타고 뿔어번지고 그리고도 불만족스러운것이 내 마음인데 말요.

남들이 날 피벽스럽다고 하라면 하라지요. 통

일되는 그날까지 나는 안정을 모르고 살아갈게요.

아마 고향마을어구에 이르러 아버지의 그 잇을 수 없는 피리소리를 듣기전에는...

그 피리소리가 날 부르는것 같애 밤잠도 안오고 일을 하고 또 해도 성차지 않는구려. 마음같애서는 이 몸이 그대로 달려가 저 저주스런 분단의 콩크리트장벽에 부딪쳐 고향으로 가는 길을 열어놓고싶은 심정이요.

사실 오늘 피리소리를 듣고 이리로 오면서 혹시나 내가 지금 비내리는 보리밭에 누워있다가 비몽사몽간에 오동나무가 서있는 고향집을 향해 걸어가는게 아닌가 하는 착각까지 했드랬소. 하지만 그 길은 그렇게는 걸어서 갈수 없는 길이 돼버렸소. 40여년의 분단과 콩크리트장벽이 앞길을 막고있지요. 그래서 나는 무엇이든 일감을 만들어 뛰고 또 뛰는거요. 부모님들앞에서 한 언약을 지키는 길은 이 길밖에 없잖소...

용서하오. 나혼자 너무 오래 지껄였구려. 얼마나 사람처럼 피리소리를 듣고 불쑥 남의 거처에 뛰어들어가지고 말오.

우리고장엔 이런 말이 있소. <사연없이 아닌밤중 남의 집에 뛰어들었겠나?>

넌리 헤아리구 너그럽게 웃어달라는 뜻이요...

나는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굳어진 사람처럼 앉아있었다. 더우기 웃을수는 없었다. 그 무엇인지 아직은 석연치는 않았지만 나는 그 어떤 강한 충격을 받은 심정이었다. 그의 과거이자 나의 과거요, 그의 피로움이자 나의 피로움과 비슷하다는 의미에서만이 아니였다. 감동을 초월한 그 어떤 자책 비슷한 충격이 나의 심증을 뒤흔들어놓았다.

불덩이같은 이 사람앞에서 자신에 대해서 나는 수치심까지 느꼈다. 자기 만족에 취해 나는 방금 전까지도 웃고있었다. 가족경연을 생각하며 웃었고 자기 피리소리에 흐뭇해서 웃었다. 아니 방금 전만이 아니라 어언중 오랜 세월을 자기 도취와 만족으로 살아왔었다. 나역시 남조선에 고향을 둔 사람으로서 고향생각을 하지 않은것은 아니였다. 그리움과 피로움과 통일의 열망을 안고 두고온 부모형제들을 그러보곤하였었다. 허나 이 사람처럼 부모들앞에 한 언약을 지켜 불덩이처럼 뜨겁고 열렬하게 안정을 모르고 살아왔던가. 오늘의 나날을 통일로 이어가는 심정으로 자기 일터와 생활에서 불같이 달리고 또 달려왔던가! 나

역시 처지가 다를바 없건만 행복과 안식 속에 편하게만 살아왔다. 세월이 흘러 만약 사람들의 마음속에 나처럼 이런 태평무사한 행복감만이 깃든다면 저 분단의 장벽은 누가 깨며 헤어진 북남형제의 눈물겨운 상봉의 날은 누가 마련할것인가.

나는 마음속으로 이 사람앞에, 아니, 고향에 두고온 늙으신 부모님들앞에 무릎을 꿇고앉아 자기 자책을 하였다.

(이 불효자식을 용서해주십시오!-)

나의 넓은 눈을 번쩍 폈다. 나와 마주앉은 이 사나이가 끝없이 돋우보이고 세상에 둘도 없는 은인이나 벗처럼 생각되면서 그가 여기 와준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다.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어서 고맙소.》 하고 나는 그의 손우에 내 손을 얹으며 말했다.

《나 역시 고향을 남쪽에 두고온 사람이요.》

《그렇소? 보아하니 당신도 의용군출신이구려. 좋은 친구를 만나서 반갑소. 내 읍에 오르내리다 클클해지면 들릴테니 그때마다 피리소리를 한번 썩들려주겠소?》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것처럼 그렇게 좋은 친구가 못되오. 피리 역시 당신 말을 듣고보니 옛날처럼 흥취가 나는대로 망탕 불지 못하게 됐소구려.》

《하하... 이 사람도 피짜로구만. 그건 그렇구 올라오면서 보니 작잠누에가 참 잘됐구려. 래일 아침녘에 우리 농장에서 눈치빠른 아낙네 뒷을 골라보낼테니 누에치는 경험을 좀 배워주오.》

(일이 짙은 꼬여간다!) 하고 나는 부아가 나서 생각했다. 이 친구는 내가 피리련습을 핑계로 김매기전투장에서 빠져나와 경비삼아 산판에 오른 사람으로서 누에치기에는 생판 무식쟁이인줄 모르는 모양이다.

(에라 올테면 오라지! 난 그땐 벌써 여기 잘난 누에막이 아니라 벽쩍 끓는 김매기전투장에 가있을걸. 임자만 피짜가 되라는 법이 있나.)

《보내오. 친구!...》

나는 검실검실한 그의 얼굴과 열정적인 눈동자를 정겹고 선망어린 눈길로 마주 바라보며 호기있게 대답했다.

《다 드날리며 사는 세월에 나라구 피리나 불며 한가하게 앉아있겠소!》

그도 벌써 웃었다. 이밤 밤손님으로 와서 그가 처음 웃는 웃음이여서 그런지 그 웃음이 나한테는 류달리 후덥게 안겨왔다.

길을 비켜주자 외 1편

문동식

밤새워 쇠물끓인 용해공들이
교대를 마치고 정문을 나선다
이 아침 거리에 나선 사람들아
길을 비켜주자 용해공들에게

마을과 거리들이 단잠에 든 밤
용해공 저 억센 사나이들만은
밝아오는 하루의 첫아침
어머니조국에 쇠물을 바치려
로와 함께 심장을 불태웠거니

길을 비켜주자 용해공들에게
저들이 리발소에 들어선다면
그들에게 먼저 자리를 내어주자
저들이 상점매대앞에 선다면
그들에게 먼저 자리를 비켜주자

온 나라의 장엄한 기계군단도
저들이 부어낸 강철이 이니더나
어머니들 옷을 짓는 바늘로부터
꽃봉오리 꽃리봉 머리빈침까지
저들이 부어낸 강철이 아니더나

알거나 모르거나 용해공의 덕을 입고
누구나 행복속에 웃음꽃 피우거니

저들이 유원지에 들어선다면
먼저 태워주자 관성렬차에
웃음 활짝 핀 저들의 얼굴이
저 푸른 하늘가에 해처럼 빛나도록

용해공들 영화관에 들어선다면
선참 내어주자 제일 좋은 자리를
저들이 부어낸 강철에 받들려
부강하고 번영하는 조국의 모습을
흐뭇한 마음속에 바라보도록

길을 비켜주자 용해공들에게
강철로 나라의 성새를 쌓고
강철로 미래의 지름길 열어가는
저들이 어디서나 앞에 서도록
조국의 래일을 한눈에 굽어보며
더 많은 쇠물을 부어낼수 있도록

길을 비켜주자 용해공들에게
그러면 생활의 맨 앞장에서
눈꽃 날리는 용해공들 걸음따라
그대들은 어디서나 들어설수 있으리라
더 복된 앞날을 가슴에 안으며
더 크게 열리는 행복의 네거리로

호각소리, 종소리

들끓는 용해장에 호르--호르록-
용해공 영호가 울려가는 호각소리
그 소리에 구름속의 해처럼 웃으며
선녀는 하늘중천 기증기 몰아가네

아무렴 그렇지 내가 부르면
바늘의 실처럼 따라와야지...
영호의 그 마음 용해장에 울리네
호르록- 호르록- 신이 나서 울리네

아무렴 호각소리 높이 울리면
처녀의 심정도 울렁거려야지...
기증기 몰아가며 선녀는 울리네
뽕강-뽕강- 종소리, 신호종소리

호각소리 종소리 두 심장 뛰는 소리
더 많은 쇠물을 더 빨리 부어내려
밀어주고 당겨주고 함께 달리며
청춘의 두마음 한마음 되는 소리

불타는 전기로가마속에선
어찌 쇠물만이 무르익는다더나
처녀총각 가슴속 살뜰한 정도
무르익어 함께 끓고있거니

듣기도 좋구나 호각소리 종소리
전기로는 기뻐서 쇠물노을로
그 소리 감싸안고 속삭여주네
너희들의 일이야 무슨 걱정 무슨 걱정...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서-

두 녀인

남상혁 (총련)

그림 김원태

(전호에서 계속)

《자, 도착했습니다.》

준호는 누구에게라 없이 말하고는 천천히 차를 내렸다. 순애는 맨먼저 뛰어내려 버섯집 둘째길 량견에 한벌 깔린 코스모스를 보며 엄마를 불렀다. 정순이도 민옥을 재촉하여 순애곁으로 다가가서는 파란 하늘아래 무수히 피어있는 코스모스를 보며 탄성을 질렀다.

잔풍한 날씨였다. 햇빛도 여기만을 골라 찬란히 비치는것 같았다.

민옥은 기지개를 켜듯 산속의 맑은 공기를 한껏 들이쉬었다. 연한 갈색 보라우스밀에서 가슴이 고무공마냥 부풀고 같은 빛갈의 바지에도 날씬한 몸매가 흘렀다. 질끈 동인 하얀 허리띠는 그의 허리를 더욱 가늘어보이게 하였다.

꽃밀에 반사된 그의 얼굴은 생기에 넘쳐있었고 온몸에서는 생에 대한 희열이 약동하는듯하였다.

정순은 눈부시게 민옥을 보았다.

죽다가 살아난 그가 지금 생기를 도로 찾아 이토록 아름답게 피어난걸 보니 정순은 자기 일처럼 기뻐던것이다.

한편 푸른 하늘을 향하여 두팔을 뻗친 민옥의 날씬한 몸매가 눈에 비치자 군살이 도도룩한 제 허리를 생각하며 시새움 비슷한 야릇한 심정에 사로잡히기도 하였다. 몇해전까지만 하여도 정순은 바지를 즐겨입었는데 요즘은 아무리 허리띠를 죄어도 빼죽거리는 군살이 싫어서 아예 그만두었다. 그래 오늘도 가무단에 있을 때 익힌 차림새로 자주색원피스를 점잖게 입고왔으나 민옥에게는 비할나위도 못됐다.

저쯤에서 준호가 매대에서 사온 깡통맥주를 마시며 이쪽을 보고있었다.

정순은 흠칫하였다. 그의 가슴속을 언뜻 지낸 야릇한 생각이 남편에게 들킨것 같아서였다.

그는 부러 큰소리를 내어 민옥에게 소리를 걸었다.

《민옥이, 먼저 점심을 할가?》

그러자 등뒤에서 남편이 《찬성!》하고 웨쳤다.

《순애 아버지 벌써 한잔 대셨구만요.》

민옥이 싱긋 웃으며 한마디 하고는 정순을 따라 점심차비를 서둘렀다.

점심은 포도농쿨이며 으름덩굴이 하늘을 가린 평퍼짐한 마루바닥에서 하게 되어있다. 량가에 벽돌을 세운 가운데 솟불을 넣고 그우에 그물을 걸면 되는것이다.

정순이와 민옥이가 남비에 든 불고기며 김치, 주먹밥이며 과실 등을 날랐고 순애는 과즙과 맥주병을 위태롭게 날랐다. 준호는 버섯집 주인한테서 참나무버섯을 두어소쿠리 얻어왔다.

《자, 합시다.》

준호는 말이 떨어지기가 바쁘게 고기며 버섯을 그물우에 얹었다. 양념장이 별절게 인 솟불우에 떨어져 뿌지직 하는 소리가 나자 이윽하여 구수한 물고기내와 버섯 익은 향기가 연기와 더불어 감돌기 시작하였다.

《자, 먼저 축배부터 합시다.》

또 준호가 말했다. 그는 맥주병마개를 따고는 먼저 민옥에게 권했다. 일순 주춤하던 민옥은 정순이가 쥐여주는 고뿌로 술을 받았다. 순애에게도 종이 차례졌다.

《그럼 민옥씨의 퇴원과 <창녕>의 개점축하와 예에- 그리고 민옥씨의 건강을 축원하여 축배!》

준호가 먼저 잔을 찰려주고 다음에 정순, 순애가 찰려주었다.

민옥은 준호의 갑각스런 말에 금시 코마루가 정해졌다. 때마침 연기가 저한테로 몰려오는바람에 그는 《아이, 내워》 하며 눈언저리에 솟은 물기를 손수건으로 닦고는 그자리를 얼버무렸다.

《고마와요.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시소예.》

민옥은 복받쳐오르는 심정을 가까스로 누르며 부러 밝게 말하고는 눈물과 함께 단숨에 고뿌를 비웠다.

두어패의 손님들이 새로 들어와 제각기 자리를 차지하고 고기며 버섯이며를 구웠다. 그바람에 여기저기서 난 연기가 어울려 일시 자욱하더니 서서히 밖으로 새어나갔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가.

준호는 벌거우리해진 넓은 이마를 연방 손수건으로 닦았고 백자와 같이 하얀 민옥의 얼굴도 분홍빛으로 상기되어있었다. 정순이도 얼굴해졌다.

순애는 어른들하고 앉아있기가 따분했던지 벌써부터 버섯집둘레를 들락날락하며 혼자 놀았다. 그것도 지루해지자 뽀르르 달려와서 민옥을 붙잡고는 밤따리 가자고 졸랐다. 순애도 이젠 제법 민옥에게 익숙된 모양이었다.

그리하여 순애와 민옥이, 정순이는 가랑잎을 밟으며 오솔길을 헤치고 뒤산으로 올라 밤열매를 따고 준호는 호반을 거닐다가 차안에서 한숨 자며 그들을 기다렸다.

그날 그들일행은 구니다찌인터를 내리고 한증

탕에까지 들려서 흥시의 《리무진》에 돌아왔다.

민옥은 그날 처음으로 정순네 살림집에 들어갔다. 정순이가 잠깐 쉬었다 가라고 불드는바람에 거절할수도 없어 따라갔던것이다. 《창녕》에 가도 기다리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도 있었다. 아니 그보다 오늘 하루를 통하여 느낀 혈육의 정, 그가 벌써 이전에 아득히 먼데 두고온 포근한 가정의 분위기에 싸여 좀더 있고싶었던것이다.

순애는 계단을 오를 때도 민옥의 손을 놓지 않았다. 3층복도에 오르니 창가에 불이 환하였다. 순애는 깡충 뛰어가더니 문을 활짝 열어 《오빠》하고 부르며 집안에 들어갔다.

정순이가 민옥의 등을 밀어 어서 들어가자고 재촉하였다. 성미가 털털한 정순이는 마루바닥에 올라서가 밥상머리를 대강 치우고 민옥에게 자리를 권했다.

그제서야 손님이 찾아온것을 알아차리고 아들이 와서 꾸벅 절을 하고 인사를 했다.

《너 진태제?》

《예.》

《축구런습 많이 했나?》

《예.》

몹집은 아버지보다 크게 무엇이 그리 수집은지 민옥의 묻는 말에 살짝 얼굴을 붉히고는 안방으로 들어가버렸다.

《커피를 하겠나 차를 하겠나?》

《아무거나 주이소예.》

《몹만 컷지 하는 일은 아이갈애.》

정순이가 쟁반에 더운 차를 얹어서 가져오며 안방을 보고 한마디 하였다.

《아이가 참 순해보여요.》

민옥은 차를 한모금 마시며 방안을 휘 둘러보았다. 모든 가장집물이 제자리를 차지하고있었고 그것들이 이 집 주인들과 조화를 이루어 이름할수없는 가정의 훈훈한 맛을 자아내고있었다.

민옥에게 있어서는 처음 들어와보는 집이었으나 별 생소한 감은 나지 않았다. 그도 그럴것이 언니로 따르는 정순이 내외와 딸 선아와 한동갑인 순애가 있어 마치 친정집에나 들렀을 때와 같이 마음이 놓이었다.

준호가 습관처럼 펄장고에서 맥주병을 꺼내어 마개를 뚫다. 먼저 민옥에게 권했더니 오늘은 너무 마셨다고 사양하기에 제 고뿌에만 따랐다. 그리고 단숨에 들이키고는 《카-》 하였다.

《참말 맛있게 드시네예.》

민옥의 말에 정순은 남편을 힐끔 보고는 순애 아버지는 저녁에 《카-》해야 하루를 마친다 했다.

안해가 그리거나말거나 준호는 두고뿌제를 채웠다. 그리고는 안방을 넘겨보더니 《야, 순애가 아지미 왔다고 착하게 하는구만.》하고 놀렸다. 순애는 오늘따라 돌아와서는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서 숙제를 한다고 야단이였다.

《순애가 용쿠나. 아지미 좀 불가.》

민옥은 앉아있던 의자를 뒤로 물리고 일어섰다. 그리고는 제 딸의 숙제를 봐주려는 어머니처럼 스스로없이 안방으로 들어섰다. 그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의 가슴속에서 제 딸과 순애가 엇갈리는 듯한 찢릿함이 스치였다.

준호와 정순이는 밥상머리에 앉아 무심히 안방을 보고있었다.

《무슨 숙제를 하나?》

순애곁에다가가서 다정스레 묻는 민옥의 말이 들렸다.

《어린 시절》

《<어린 시절>이 뭐야?》

《<김일성 원수님의 어린 시절>이예요.》

《오!...》

쟁쟁한 순애의 대답소리가 울리자 민옥의 뒤모습이 움칠하였다. 잠시 말이 없다가 나직한 소리로 《그래.》하고는 책장을 몇장 번지는 소리가 났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손까지 움츠려서 급기야 되돌아섰다.

준호와 정순이는 봐서는 안될것을 본것 같아 안방을 외면하고 못본체하였다. 엄혹한 조국의 정치상황을 듣고는있었던 그들이었으나 그렇게 돌변한 민옥의 정상을 보고는 그들자신이 오히려 당황해졌던것이다.

민옥은 잠시동안 안방에서 서성거리다가 나왔다. 마음의 충격을 진정시키려고 그로서도 무진애를 쓴것 같았다. 그래도 방금전에 피기가 돌던 온화한 그 표정은 가뭇없이 사라지고있었다.

《민옥이, 어쨌나?》

정순이 겨우 입을 열었다. 그는 자기의 시선까지도 피하며 곳곳하게 앉아있는 민옥을 보기 딱해서 말을 떼었던것이다.

《어쨌긴, ... 그저...》

민옥이도 겨우 입을 열었다. 입가에 경련 비슷한 쓴웃음을 지으면서.

《우리 집 이 총련집이란것도, 아이들이 총련학교를 다닌다는것도 다 알고있을건데 뭘 그리 새삼스레 놀래나.》

정순은 탁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별 자기들의 립장을 그에게 감추어온것도 아니고 이제껏 그를 도와온것은 불우한 그의 처지에 동정하여 같은 혈육으로서 위하려한게 아니었던가.

정순은 아무 꺼리는데없이 뻗뻗하게 이야기하였다.

《집작은 했드렸는데... 이렇게 갑자기 당하고보니 ...》

민옥이도 약간 진정된듯하였다. 그는 미지근하게 식은 차를 한모금 마시고는 열적게 웃으며 정순이더러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하였다.

며칠후의 오후 정순은 《창녕》을 찾아갔다.

그날 정순은 저녁식찬을 같이하고 돌려보내려 했는데, 본인만 싫지 않으면 면데도 아니고 해서 하루밤 재웠다가 보내려 했는데 안방에서 나온 민옥은 어색하게 앉아있다가 황황히 집을 나갔다. 사가미꼬호반에서는 그렇게 환하게 웃던 얼굴이 안방에서 《그일》을 당하고는 어찌하여 피가 얼어든것처럼 표정이 굳어져버렸는가.

정순에게는 그것이 리해가 안되었다. 아니 그렇게 돌려보낸 민옥이가 혼자서 어떻게 지내는지 불안스러웠다.

자동차를 세우고 골목길로 꺾어들었을 때도 그 생각을 좇으며 마음을 종잡지 못했다. 그러니 《창녕》의 문앞에 섰을 때도 선뜻 들어서지 못했다.

한순간 주춤하고나서 문을 두드리려는데 웬 사나이의 웅글은 소리가 들리었다.

정순은 와뜰 놀라며 두어걸음 뒤로 물러섰다.
(웬 사람일가?)

날이 밝으니 손님은 아닐거고 그렇다면 이런 시간에 누가? 입원하고있을 때도, 장사를 시작한 뒤에도 그를 만나러 오는 사람이라곤 자기들외에는 그리 없었던데 이런 시간에 누가 찾아왔을가?

궁금한대로 부지중에 귀를 강구려 한걸음 다가선 찰나에 문이 삐걱 열리었다. 정순이 흠칫 놀라 어쩔바를 모르고 엉겨주춤하는데 안에서 우람한 사나이가 나왔다.

사나이는 난데없는 중년부인을 지그시 눈여겨보았다. 정순이도 사나이의 시선을 느끼며 힐끔 치며보았다.

시선이 마주친 순간 정순은 속으로 외마디소리를 질렀다.

(아, 외삼촌!)

우람한 체구, 대머리의 가장자리에 성긋한 흰머리... 병원복도에서 본 민옥의 외삼촌이 틀림없었다.

(무슨 일로 왔을가?)

정순의 뇌리에 이런 의문이 불쑥 치미는데 우람한 체구는 벌써 골목을 빠져 큰길에로 사라지고있었다.

정순은 마음을 다잡고 동안을 두었다가 문을 두드렸다.

《민옥이 있나?》

《예, 어서 오세요.》

뜻밖에도 밝은 소리가 돌아왔다.

문을 열어 들어가니 민옥은 국을 끓이는지 국자를 휘저으며 서있었다. 민옥은 김이 서려오르던 냄비뚜껑을 덮고 요전번에는 신세 많이 졌다는 인사부터 하는것이였다.

그 소리에 정순의 마음도 절로 밝아졌다. 동시에 두팔을 벌리며 밝은 공기를 들이쉬던 민옥의 날씬한 몸매와 코스모스의 빛이 아롱아롱 비껴기쁨에 넘치던 그의 눈동자가 정순의 가슴속에

화면처럼 되살아났다.

저으기 마음이 가벼워진 정순은 방금 문앞에서 다닥친 일을 비쳐봤다.

《외삼촌이지? 아까 오셨던분은...》

《예, 그런데 어떻게? ...》

《하마트면 요앞에서 부닥칠뻔했는데.》

《그래요...》

《오늘은 무슨 일로 또 오셨나?》

《...뭘 별 일 아니예요.》

정순은 구긴데없이 척척 말을 했다. 그러나 민옥의 대답은 시원스럽지 못했다. 점점 새가 뜨더니 소리까지 작아지는듯하였다.

또 무슨 심상치 않은 곡절이 생긴것 같았다. 혹시 우리 집 안방에서 있었던 일이 꼬리를 끌고 있는것일가. 아니면 병원에서처럼 외삼촌이 또 난처한 문제를 가져온것일가.

그러나 정순은 그런 내색을 하지 않고 화제를 바꾸었다. 손애 아버지가 버섯집에 갔을 때 민옥이가 가지고온 김치맛이 좋더라고 칭찬하던 일, 아들이 남조선 아지미가 너무 아름답다와 놀래더라는 일, 손애가 아지미집에 데려가달라고 보챌다는 일 등을 두서없이 엮어대었다.

금시 민옥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그런데 정순에게는 그러는 민옥의 모습에서 평상시와는 다른 그들이 드리워져있는것 같아 그에 대한 위구심을 놓을수 없었다.

시계가 5시를 가리켰다. 이젠 가야겠다고 정순이 자리를 떠서 가려고 했을 때였다. 민옥이 정색하며 정순이를 불렀다.

정순이가 시간이 없으니 이번에 왔을 때 이야기기를 하자고 나가려는데 또 그를 불렀다.

《아니, 무슨 일인데?》

정순이 어서 이야기하라고 재촉하는양으로 의자끝에 살짝 앉는체하였다.

그래도 잠시동안 주춤거리던 민옥이 《언니, 앞으론...》 하면서 다시 한참을 갑자르는데였다.

《참 답답해라. 앞으론 어찌자는거야.》

정순이 의자에 깊이 고쳐앉으며 이렇게 되물자 민옥은 송구스러운듯 어렵게 말을 이었다.

《앞으론 이렇게 종종 만날수 없을것 같아요.》

《아니?! ...》

아닌밤중에 홍두깨 맞은듯 정순이 입을 딱 벌리고 민옥을 쳐다보는데 그는 《아니예요. 판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거 아니예요.》 하고 고개를 가로 저으며 열절게 웃었다.

《판 생각이 없다면 왜 그래?》

《아니 그저- 언니한테 너무 폐를 끼치는것 같고... 언니덕택으로 <창녕>도 틀이 잡힌것 같고... 이 이상 신세를 지는게 딱해서 그래요.》

민옥은 어금이에 무엇이 끼여있는듯 중얼거리었다. 더욱 눈이 휘둥그레진 정순의 시선을 피하여 말하던 그는 끝내 고개를 떨구고말았다.

《내가 총련사람이라고 해서 그러나?》

《아니예요. 언니는 나를 살려준 은인인데...》

너무도 서운한 정순의 말을 부정하려 고개를 번쩍 든 그의 눈에 이슬이 그러한 정순의 모습이 비치었다.

민옥이도 금시 코마루가 찡해졌다.

《정말 아니예요. 언니는 나를 살려준 은인이고 동서남북도 모르는 일본땅에서 나를 살려주는 제 일 고마운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억이 막혀 말을 못하는 정순의 눈에서 한줄기 눈물이 주르륵 불을 타고 흘렀다.

《그러지 마이소예, 언니!》

당황한 민옥은 얼굴을 싸쥐고 울음을 참는 정순의 두손을 모아잡으며 애원하듯 웨쳤다. 이 순간 민옥은 혈육이상의 뜨거운 정으로 자기를 대해준 정순언니를 이렇게 만든 자신이 한없이 야속하였다.

《언니가 조총련사람이라고만 해서 그렇게 절대 아닙니더. 벌써부터 외삼촌한테서 여러 말이 있었는데 사가미꼬에도 같이 가지 않았습니꺼.》

《...》

《그런데 외삼촌이 여기까지 찾아와서...》

민옥은 드디어 가슴속에 서서서리 얹혀있던 사연의 일단을 터놓았다.

외삼촌은 민옥이 즈까모도와 결별하고 혼자 살겠다 했을 때 너 좋아라고 한게 이 꼴이 되었으니 너 부모 대할 면목이 없다면서 한탄까지 했었다 한다.

그러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아무때나 찾아오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래도 민옥은 마음속에서 외삼촌을 용서할수 없이 혼자 살 결심을 하고 집을 나왔다.

《창녕》을 차렸을적에도 기별을 했었다. 그러나 외삼촌은 회사가 막대한 부도를 냈다면서 개점날에는 오지도 않다가 보름쯤 지나서야 나타났다 한다.

그래 한참 붐빌 때 카운터 안쪽구석에 앉아있다가 돌아갔는데 다음날 곧 전화가 걸려왔다. 외삼촌은 손님들 말을 들어보니 조총련사람들이 많은것 같은데 제발 걸려들지 않게 조심해라 하더라는 것이었다.

《...그뎨 외삼촌 말도 건성으로 흘려버렸지예. 언니소리도 별로 하지 않았고... 그러던 외삼촌이 아까 불쑥 나타나더니 <리무진>이 어떤 집인지 아느냐 하는게 아닙니꺼.》

민옥은 눈기로 정순의 동정을 슬쩍 살폈다. 아나나다를가 정순의 눈에 긴장한 빛이 번뜩 지났다.

민옥은 동안을 두었다가 말을 계속하였다.

《내가 병원에 있을 때부터 도움을 많이 받은 고마운분들이라고 했지예. 그랬더니 외삼촌은 그

게 조총련의 공작수법이라면서... 아니 외삼촌의 말인데 이 이상... 걸려들지 말라는게 아닙니꺼.》

《...》

《부아가 나서 제 조카를 그 지경으로 만들어놓은 외삼촌보다야 얼마나 고마운분들인가 하고 말하려다 겨우 말았지예. 말도 하기 싫어서 입을 꼭다물고 앉아있는데 이번에는 좀 누그러진 소리로 나도<리무진>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라곤 생각지 않는다. 니가 아무리 그러더라도 이놈의 세상에서는 걸려들 때는 그 아무도 막지를 못한다면서 외삼촌이야기를 합디더.

외삼촌은 남조선 류학을 갔다가 <간첩단>에 몰려 공부도 못하고 돌아왔는데 그후로는 비틀어져 일도 안하다가 그날은 손이 모자라 즈까모도와 같이 보냈더니 쟁패하고 불어 저 지경이 됐다는게 아닙니꺼.

나도 그때 즈까모도가 한쪽 눈을 실명하게 된 진 뜻을 처음 들었지예. 그래 내가 벌써 판이 깨졌는데 어쩔수 없는 일이 아닙니꺼 했더니 외삼촌은 그렇게 아니라 저 애가 그리 된것도 자기 문제가 많이 걸려있다 하지 않았습니꺼.

많은 이야기는 안합니다마는 이전에 일본에 갈이 끌려온 고향친구에 조총련사람이 있었고 그런관계로 그 친구의 아들하고도 내 아들은 종종 만나고있었는데 어느날 그놈이 덜컥 <간첩단>에 걸려들었다면서 너도 조심하는게 좋겠다는게 아닙니꺼.

솔직히 말해서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섬쩍 합디더. 돌아갈 때 외삼촌은 <리무진>에 대해선 민단지단에서 통보가 있어서 알게 되었다는것, 그렇다는건 당국에서도 <창녕>을 주목하기 시작했다는걸 알고 처신하는게 좋겠다면서 나갔지예.》

정순은 그날도 어슬넉에 《창녕》을 나왔다. 가슴은 자꾸만 옥죄여드는데도 머리속은 뒤엉켜 갈피를 잡지 못했다. 이냥 민옥이와의 관계를 끊자니 너무도 억울했고 그렇다고 상관없이 이제까지 처럼 《창녕》을 드나드는것도 민옥에게 화가 미칠것 같아 망설여졌다.

자동차를 운전하면서도 집에 돌아와서도 정순은 그 생각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남편이 점방문을 달고 올라오자 이내 그 말을 비쳐왔다. 그랬더니 준호는 처음 작은 눈을 크게 뜨며 놀라는듯 하였으나 그것도 한순간, 곧 체면비슷한 소리로 본인이 그런다면 할수 없지 않은가 하였다. 그말에 울컥하였으나 정순에게도 그 이상의 방도를 찾아낼것같지 않았다.

정순은 남편의 코고는 소리를 들으며 그생각에 몰몰하였다.

다시 며칠이 지나고 1주일이 흘렀다.

그새 정순이는 한번도 《창녕》을 찾지 않았다. 전화조차 걸지 않았다.

이제까지 《창녕》을 찾는것이 일상적인 일로 되고있었던 그에게 있어서 그것은 참기 어려운 고통이었다. 문득 민옥의 생각이 날 때면 의지의 힘으로 그것을 눌렀다. 누를수록 보고싶은 마음은 더해가고 그 생기에 지쳤을 때는 허무감이 그의 가슴에 퍼져갔다.

(결국 이렇게 우리 사이는 벌어지고마는가…)

그러다가도 정순은 소스라치며 그것을 부인하였다.

그러는 정순의 뇌리에 외삼촌의 모습이 언뜻 지나갔다.

(내가 이러고있을 사이에도 외삼촌은 더 자주 민옥을 찾겠지.)

요전번에 《창녕》문앞에서 부닥칠뻔한 외삼촌의 모습-우람한 체구, 대머리 가장자리에 성긴한 흰머리카락… 그것은 마치도 자기와 민옥의 사이를 갈라놓는 담벽처럼 그의 머리에 확대되어갔다.

그 서슬에 어떤 생각이 그의 뒤통수를 탁 쳤다. 우람한 체구, 대머리… 그것들이 그의 아득한 기억속에서 잡힐듯말듯 어른거려였다. 처음으로 병원복도에서 외삼촌을 힐끔 했을적에 느낀 의혹이 다시금 정순의 가슴속에 지긋게 되살아난것이다. 얼마전에 민옥으로부터 들었던 외삼촌의 이야기도 정순의 얹혀있는 기억의 어느 부분과 이어져 있는듯도 하였다.

(그렇다! 아버지 장의식때 본 고향친구가 아닌가!)

드디어 자욱하던 안개가 서서히 걷히면서 정순의 가슴속에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정순의 친정아버지는 50안팎의 젊은 나이에 간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가 조그 3학년때였다.

현직 총련분회장을 하던 아버지의 장의는 3일장으로 거행되였다. 고인을 추모하여 분향하러 오는 사람이 그치지 않던 이틀째 경야때, 정순에게는 낯선 아버지의 고향친구라는 사람이 찾아왔다.

고향친구는 시신이 안치된 제단으로 다가가서는 무릎을 꿇고 앉았다. 마디굵은 손으로 성냥을 켜고 선향에 불을 달았다. 그자리에 우뚝 서서 두번 큰절을 했는데 그때마다 검정양복이 찢어질듯이 팽팽하였다.

상주는 조그 1학년생인 정순의 동생이 하였다. 형(정순의 오빠)이 귀국하였으니 그가 해야 했었는데 상주로서의 자각이 있어 그러는지 여느때보다 어른스러웠다.

그때도 동생은 옆에 있던 큰아버지와 함께 지팽이를 짚고 나란히 서서 《아이고 아이고》 곡을 하며 낯선 아버지의 고향친구를 맞이하고있었다.

큰아버지는 조문객하고 낯을 익히고있었는지 알은체를 하며 편히 앉으라고 방석을 권하였다. 그러는데 고향친구는 반나마 벗어진 머리를 가볍

게 끄덕이고는 무릎을 꿇고 앉은채 정순의 아버지 사진에서 좀처럼 시선을 떼지 않았다.

큰아버지가 재차 열방에 가서 목이라도 추기라고 권하며 방문턱에 서있는 정순에게 눈짓을 하였을 때였다.

고향친구는 바위짝같은 어깨를 들먹이더니 급기야 《옥… 흑흑…》하고 울음을 터뜨리었다. 그리고 정순 아버지의 사진으로 기여가듯이 바싹 다가가서는 짐승같은 소리로 《이놈아》하고 웅쳤다.

《이놈아, 그렇게 나를 욕하더니 니가 먼저 가! 통일만 되면 나를 그냥 안두겠다고 하던놈이 이렇게도 빨리 간단말이야!》

고향친구는 우악스럽게 방바닥을 치며 울부짖었다. 불편하게 매고있었던 넥타이까지 풀어제끼고 목놓아 울며 웅쳤다.

큰아버지는 그걸 말리지 않았다. 동생도 눈이 둥그래서 보고있을뿐이었다. 자정을 넘어 말소리가 적어지던 열방에서 조문객들이 두어명 와서는 영문도 모르고 《그런다고 죽은 사람 살아나겠소. 그만 치우소.》하고 말리었다.

그날 아버지의 고향친구는 빈소가 있는 방에서 새벽까지 뜬눈으로 새웠다. 상주인 정순의 동생을 재워놓고는 큰아버지하고 두런두런 이야기하며 빈소를 지키고있었다.

첫새벽에 고향친구는 상가를 떠났다. 장의식에는 참가하지 않고.

정순은 좀 의아스런 생각도 들었으나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숨이 넘어갈듯이 통곡하다가 이따금 기절하는 어머니를 부축하여 우선 장의식을 탈이 안나게 치르는데 정신이 갔던것이다. 오빠가 귀국하여 없는 조건에서 정순은 오빠의 뒤통까지 어머니를 도와야 했던것이다.

초상을 마치고난 며칠후 정순은 머리 한구석에서 내내 떨어지지 않던 아버지의 고향친구이야기를 어머니에게 물었다.

어머니는 저으기 마음의 안정을 되찾은듯하였다. 아니 너무도 일찌기 마음의 기둥으로 의지하던 남편을 잃은 슬픔이야 오죽했으랴만 남편이 남기고간 어린 자식들을 제손으로 훌륭히 키워내야 할 무거운 사명감으로 하여 그 슬픔을 가슴속 깊은곳에 묻어두었는지 모른다.

어머니는 정어린 눈길로 딸을 보며 입을 떼었다.

《그 아재하고는 고향친구였지. 한고향에서 소꿉동무로 자라다가 일제시기 강제편행으로 끌려올때도 같이 와서 모진 고생을 겪었었지.

정말 형제처럼 지냈었지. 니가 태어난 뒤에도 자주 놀라와서 너를 안아주기도 했단다.

그러다가 언제부터인가 만나기만 하면 입다툼을하게 되었다…》

어머니는 그제 아마 귀국의 배길이 터질무렵부

터였을거라고 했다. 이 지역에서 총련이 결성된 당초로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학교사업이요, 조직사업이요 하면서 애국운동에 몸을 아끼지 않던 아버지였으니 귀국의 배길에 터졌을 때는 맨먼저 귀국하겠다고 야단이였다. 그러나 그 아재는 그러는 친구를 탓하며 고향도 아닌 북조선에 왜 돌아가느냐, 조국이 분단되어있는데 돌아가면 영영 생리별이 아니냐, 통일이 되면 함께 고향 가자 하고 한사코 말렸다. 결국 아버지는 고향에 두고 온 어머니걱정도 있었고 그외에도 여러 사정이 겹쳐 귀국하지는 않았으나 그때부터 둘사이에는 종종 의견충돌이 있게 되었다 한다.

그러다가 남조선과 일본과의 조약이 체결되어 피뢰도당들의 《고향방문》책동이 벌어졌을 때는 그아재가 이번에는 맨 선참으로 고향가겠다고 했다한다. 물론 아버지는 한사코 막아나섰으나 끝내 아재는 고향갔고 돌아와서는 로경에 이르신 정순의 할머니소식을 전해주면서 되려 아버지더러 고향갔다오라 했다. 어머니의 소식을 전해 듣고 사내울음을 울면서도 아버지가 아재의 권고는 못듣겠다고 하자 빨갱이는 그렇게 제 부모도 모르는 작자들이냐고 욕을 했다.

그때 아버지는 남의 속도 모르고 그제 무슨 소리냐, 통일되면 너같은놈은 그냥 두지 않을테다고 고래고래 웨치며 큰싸움을 벌렸다. 그뒤 몇해 동안 오가지 않던 둘이 다시 만나게 된것은 7. 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었을 때였다고 한다. 정순은 이미 출가하고난 뒤였으니 그때 상황을 잘 모르나 아버지들만 오간게 아니라 아재의 큰아들하고 당시 조선대학교를 다니던 정순의 오빠하고도 서로 만나고있었다 한다.

그러다가 아재의 큰아들은 《모국류학》을 가고 정순의 오빠는 사회주의조국으로 귀국하였다.

그런데 당장이라도 통일이 될듯하던 정세가 급변하였다.

남조선의 위정자들은 파썸적인 《유신체제》를 세워 《긴급조치》를 련발하였다. 남조선전역에서 민주세력을 황포하게 탄압하였으며 공화국과 총련에 걸어 하루아침에 《간첩단사건》도 날조하였던것이다.

그때 아재의 큰아들도 《학원침투간첩단사건》에 몰려 당국에 체포되었다.

아재는 아들의 석방을 위해 여러번 당국에 진정하러 갔고 그러는 사이에 둘사이의 거래도 뜸해졌다 한다.

《들러오는 소문으로는 아들은 이듬해 석방되어 일본으로 돌아왔는데 아재는 니아버지와 오빠때문에 아들이 걸려들었다고 했다는게 아닌가.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을 안하시더라.》

어머니가 딸의 물음에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한것은 이제까지 없는 일이었다. 아마도 남편의 삶

이 딸에게 고스란히 이어지도록 하려는 간절한 소원이 어머니로 하여금 그렇게 시켰을지도 모른다.

정순은 그날 어머니가 들려준 이야기를 듣고 숙연해진것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있다. 일제통치의 암담한 시절에 강제련행으로 일본땅에 끌려온 고향친구들이 한낱한시에 해방을 맞이하면서 하나하나의 조국을 받들지 못하고 이렇게 영영 갈리고 말았다. 온 민족의 머리우에 드리운 국토분단의 비극을 그날처럼 몸가까이 느껴본바는 없었던것이다.

(그렇지, 그날의 아버지의 고향친구는 민옥의 외삼촌이 틀림없을게다.)

10여년전의 그날 아버지의 빈소앞에서 통곡하던 고향친구의 바위짜같은 뒤모습이며 반나마 벗어진 머리, 그것은 민옥의 외삼촌임에 틀림없을거라는 확신을 정순에게 주었다. 비록 세월의 풍파를 겪어 머리카락은 가장자리만을 남기고, 그것마저 하얗게 세였지만 그 모든것이 얼마전에 《창령》문앞에서 만난 외삼촌의 모습과 틀림없이 겹쳐지는것이였다.

하지만 정순은 지금 몇달전에 병원에서 민옥의 고백을 듣고 그의 외삼촌의 처사에 의분을 느끼던 때와는 달랐다. 오히려 민족의 분단사에 부대끼며 생사의 곤경을 함께 헤쳐온 고향친구를 지척에 두고도 멀리하지 않으면 안되였던 그에 대한 동정심이 났고 형제처럼 살아오던 친정아버지와 민옥의 외삼촌을 생나무 짝듯 갈라놓은 그 상황에 대한 말할수 없는 울분이 치솟았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지사만은 아니였다. 오늘날에도 보이지 않는 분계선은 엄연히 동포사이를 갈라놓고있다. 하여 이 부조리한 상황을 바로잡자고 많은 사람들이 힘써왔고 친정아버지도 그 길에서 살다가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타계하신게 아닌가.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정순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만약 우리가 이 분계선을 지위버리지 않으면 부모들의 숙원은 영원히 한으로만 남을것이고 한데 어울려 살고있는 우리가 그것을 넘나들지 못한다면 조국을 분단하고있는 저 담벽은 더 높이 쌓여질것이었다.

정순은 요 1주일간 찢찢한 생각에만 골몰하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민옥의 말을 듣고 서운해하기도 하고 원통해하기도 한 그였으나 지금도 계속되고있는 친정아버지와 민옥의 외삼촌을 갈라놓은 부조리한 상황에 스스로 체념하고 그를 용납하려던 자신이 못내 부끄러웠다.

다음날 저녁에 전화를 걸었다. 하긴 자동차를 타고 10분이면 갈수 있는 지척이었으니 맞바로 갈수도 있었으나 그새 웅졸하게 생각하던터에 민옥이를 직접 대하기가 어쩐지 게면쩍은 생각이

들어서 그랬다.

뚜르르 뚜르르,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있으니 금시 정다운 민옥의 소리가 들려오는것 같아 절로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민옥은 나오지 않았다. 슬며시 걱정은 되었으나 장보러 갔을수도 있고 탄일을 보고있을수도 있을거라고 생각해서 그는 수화기를 놓았다.

《창녕》이 문단을 즈음에 다시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역시 수화기에서는 뚜르르 하는 전신음만이 들려왔다.

(어쩔을까?...)

가슴속에 잔물결이 일었다. 이 시간 같으면 손님들도 적을게고 혹시 바빠서 본인이 못나오드래도 손님들이 대신해서 의례히 나오는 법이다. 그러는데도 전화가 통하지 않는다는것은 그의 주변에서 무슨 사고라도 일어난게 틀림없을것이라는 추측이 갔다.

어느덧 그의 머리에 정순이네 집 안방에서 당황해하던 민옥의 얼굴, 《창녕》앞에서의 외삼촌의 모습, 미안해하며 어렵게 말을 꺼내던 민옥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다음날 정순은 남편에게 《리무진》을 인계하고 나서 자동차를 몰았다. 그날 오전중에도 전화를 걸었는데 역시 나오지 않아 불시에 걱정이 되어 바빠 《창녕》을 찾아가는것이였다.

정순이는 골목길에 접어들어 총총걸음을 쳤다. 저쯤에 닫혀있는 문이 보였다. 개점시간까지는 아직 멀었으니 레사롭게 생각하고 다가갔다.

정순이가 문앞에 서서 손기척을 하려는데 난데 없는 종이쪽지가 그의 눈에 띄어들었다.

-언제나 각별히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급한 불일이 생겼으니 1주일간 쉬겠습니다. 점방주인- 달필은 아니였으나 일본 《히라가나》로 또박또박 쓴 글쪽지가 붙어있었다.

(아니, 무슨 일이 생겼을까? ...)

정순은 그 글을 다시 새겨가며 읽었다. 거기서 무슨 실마리라도 찾아내려고. 그러나 거기서는 아무 기미도 찾을수 없었다.

다시 며칠이 지나갔다. 정순은 그 어간에도 아침저녁으로 전화를 걸어봤고 《창녕》에 가보기도 했다. 그러나 《창녕》의 문은 꼭 닫힌채 말이 없었다.

이웃사람들에게 물어봐도 모른다 했다. 남은 길은 외삼촌의 거처를 알아내어 물어볼수밖엔 없었으나 거기까지는 용기가 나지 않았다.

글쎄쪽에 쓰인 1주일이 지나도 민옥은 나타나지 않았다.

정순의 걱정은 더해만갔다. 걱정이 쌓일수록 정순의 가슴속에는 오만가지 불길한 예감이 꼬리를 물고 솟아났다.

(외삼촌에게 끌리어가서 다시 즈까모도와 살게 된게 아닐가? ... 그런 일은 없겠지. ... 고향에나 다니러 간게지, 1주일이라는 기한이면 갔다올수 있을게고...

그렇다면 어째 기한이 넘었는데도 안돌아올가? 혹시 당국에서 문초를 당하고있는게 아닐가?)

정순은 제 생각에 스스로 놀라면서 온몸에 소름이 오싹 끼치는것을 느꼈다.

별 근거는 없었다. 있다면 민옥이더러 당국에서도 눈치챈것 같으니 《리무진》사람들과는 거래하지않는게 좋겠다고 했다면 외삼촌의 말이였다. 하긴 본국의 체제유지를 위하여 해외동포들이 제물로바쳐지는 레가 드물지 않았다. 민옥의 외삼촌이 그랬었고 그외에도 그런 레는 더러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민옥이는 그런데 절릴만한 사람같지 않았다. 그보다 작은 점방 하나 차려놓고 네식구의 입에 풀칠하는데도 바쁜 자기들이 그런데 련루된다는게 격에 맞지 않는것 같았다.

정순은 제풀에 썩 웃었다. 제가 무슨 엉뚱한 생각을 하나 하고 생각하니 한결 마음도 안정되는듯 하였다.

다시 하루가 지나고 이들이 지난 어느날이였다.

그날도 정순은 규칙적인 생활의 리듬에 따라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놓고 밑에 내려갔다. 샷타를 울리고 문을 열었다.

선달에 접어들자 강추위가 련일 계속되였다. 몸피가 큰쪽이라서 정순은 여간해서는 추운줄을 모르고 지낸다. 그런 정순이라도 그날 아침 점방에 첫발을 들여왔을 때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난방스위치를 넣었다. 가스기구에 불을 달고 마른 수건으로 창유리를 닦았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따금 손을 맞비비었는데 이윽고 방안이 훈훈해졌다.

오늘의 첫 손님을 기다리며 카운터안에 서있는데 전화통이 요란하게 소리를 질렀다. 정순은 급히 입구곁에 있는 전화구에 다가가서 수화기를 들었다.

《예, <리무진>입니다.》

정순은 오늘 첫 손님을 맞는 기분으로 한껏 밝은 소리를 내었다.

《언니?》

《아니...》

《민옥입니다.》

《아니, 어디로 갔다가 인제 오나?》

뜻밖의 민옥의 전화에 정순은 금시 코마루가 시큰해졌다. 최근 얼마동안 민옥이로 하여 죄였던 마음의 탕개가 탁 풀리면서 그랬던것이다.

《미안합니다. 친정에 갔다왔어요.》

《그랬구나. 그런걸 난 또...》

정순은 사정을 몰라 저혼자 불길한 상상을 하

여 애를 태우던 이야기를 하려다 말았다. 괜히 민옥에게 근심을 끼칠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 친절은 모두 무고하시던가?》

《예, 장사를 시작했다는걸 알고 걱정을 많이 함디더.》

《그렇게지. 그런데 고향은 갑자기 무슨 일로 갔었나?》

《…예, 그 문제로 언니를 만나보려고 전화했지 예.》

민옥이는 좀 가라앉은 소리를 했다. 역시 무슨 곡절이 있는것 같았다.

그러나 정순은 모른체하고 부러 밝은 소리로나도 거의 한달이나 민옥이를 보지 못했으니 섭섭해서 죽을 지경이라면서 당장에라도 만나자 했다.

오후에라도 찾아가겠다는 정순의 말을 막으며 민옥은 오늘은 제가 찾아가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슬며시 걱정이 되어 무슨 일이냐 하고 물어봐도 민옥은 갔을 때 이야기하겠다고만 했다.

정순은 그제 궁금하기도 했으나 어쨌든 민옥이 여기를 찾아오겠다고 한 그자체로써 마음은 마냥 즐거워졌다. 민옥이가 외삼촌의 말을 듣고 정순이더러 이제 종종 만날수 없게 되었다고 《선고》했을 때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던가. 그때문에 또 이가슴을 얼마나 죄여왔던가. 그러던 민옥이가 다시 《리무진》에 오겠다고 한게 정순에게는 더없이 기뻐던것이다.

란치타임을 치르고나자 점방안은 조용해졌다. 창가에 두어명 앉아있을뿐이었다.

그날따라 공교롭게도 점심시간만을 도와주는 종업원이 오지 않았다.

안해의 연락을 듣고 내려온 준호는 눈코 뜰새 없이 돌아쳤다. 특별히 바쁘지는 않았으나 매사에 행동거지가 유유한 그로서는 안해의 말없는 닥달을 느끼며 움직이거나 좀 나른해지는것 같았다.

준호는 카운터에 앉아 담배를 한대 붙여물었다. 정순의 말에 의하면 오늘 민옥이가 여기를 찾아온다던데 그러면 자기가 계속 점방을 봐야 할것이었다. 그래 쉬엄쉬엄 할 심산으로 불이 움푹해지도록 연기를 들이빨고 후-하고 길게 내뿜었다.

한편 정순은 벽시계를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연신 거리쪽을 기웃거리었다. 《울 시간이 되었는데…》 하고 혼자 중얼거리더니 준호결로 다가왔다. 그리고는 작은 소리로 잠간 올라갔다가 세탁기를 돌리고 오겠다고면서 썩 나가버렸다.

민옥은 그 직후에 들어왔다.

준호는 입구에서 난 방울소리를 듣고 손님이 들어온줄을 알았다. 얼른 담배를 끄고 일어서서 습관적으로 고개를 돌려 소리를 걸러다가 검정의 투를 입은 날씬한 녀인을 본것이다.

《아이고 민옥씨!》

《그새 안녕하셨습니다겨.》

약간 고개를 숙이고 다정스레 인사를 하는 민옥에게 준호는 맨 안쪽의자를 권했다. 그리고는 물고뿌를 내놓으며 허물없이 마주앉았다.

검은 외투를 벗고 앉은 민옥이는 앞가슴이 봉긋한 크림색 원피스를 입고있었다. 반년전의 창백했던 민옥이의 모습은 말끔히 가셔지고 입술에 연지까지 찍은 그는 활짝 피어나는듯하였다.

그러는 민옥을 준호는 눈이 부시여 바로 보지를 못했다. 말까지도 부자연스럽게 더듬거렸다. 그래 넓은 이마를 문대고있다가 순애 어머니를 부르겠다고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

남편의 전화를 받고 정순이는 이내 내려왔다. 첫눈에 민옥을 보더니 탄성을 올리며 몰라보겠다고, 어디 색시가 찾아왔나싶었다고 반가와하며 수다를 떨었다.

민옥은 그제 싫지 않았다. 한달전에 《창녕》에서 한 자기 말을 듣고 그렇게도 서운해하던 정순 언니가 그 일을 타하기는커녕 이전과 다름없이 대해주는게 더욱 기뻐던것이다.

그렇수록 소박하고 인정스런 이들을 외면하고 거역하지 않으면 안되는 자신의 처지가 원통스러웠다. 민옥은 오늘 그런 사연을 가슴에 품고 여기를 왔던것이다.

한달전 《창녕》에서 그 일이 있던 직후에 다시 외삼촌으로부터 전화가 있었다. 외삼촌은 고향의 어머니로부터 온 기별이라면서 청천벽력파도 같은 소식을 전해주었다.

그것은 딸을 데리고 행처를 감추었던 이전의 남편이 재혼을 했는데 남편은 딸 선아를 계모밑에 두기보다 친어머니결에서 키우는게 좋겠다는 연락을 제3자를 통해서 해왔다는 말이었다.

친정어머니가 너무도 놀라는통에 앞뒤도 모르고 선아 어머니는 일본에 시집갔다 했더니 그럼 어쩔수 없겠다고면서 전화를 끊더라는것이였다. 반미치다싶이 딸의 행처를 찾던 민옥을 생각해서 친정어머니가 제 정신을 차려 외손녀의 행처만이라도 알려달라고 했을 때는 전화는 끊기였다는것이였다.

민옥은 고향 갈 차비를 서둘렀다. 첫먹이때 배

앗긴 딸때문에 미칠번도 했고 제 신세를 한탄하며 목숨까지 끊으려고도 한 그였다.

지금도 엄마가슴을 파고들던 고사리같은 손이며 보드라운 입술의 감촉이 못건디게 그리워 《창녕》의 옷방에서 혼자 놀던 민옥이었으니 어찌 한 시인들 지체할수 있었겠는가.

입관에서 재입국신청을 하고 고향으로 떠나는 날 외삼촌은 민옥을 조용히 불렀다.

《민옥아, 니 부모를 대할 닢이 없네. 가거들랑 외삼촌이 죽을 죄를 지었다고 사죄하더라고 전해라.

그런데 딸을 찾아내면 어쩔래? 늙은 부모들한테 말기기보다 니가 데리고 살아야겠는데... 그러자면 일본에 불러야 하겠는데 지금 상태로는 어려울기다. 우선 재류허가를 취득하기 어려울기고... 쓰카모도하고 길이 살겠다면 몰라, 아니 서류상으로만 꾸며놓아도 되지 않나.》

그 말이 떨어지자 민옥의 눈빛이 번쩍했다. 그러자 외삼촌은 말끝을 얼버무리더니 동안을 두었다가 탄 말을 끄집어내었다.

《<리무진>사람들은 요즘도 오나? 조총련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면 민단에서도 허가를 안할기고 잘못하다간 당국에 딱 걸릴수도 있으니...》

외삼촌은 한달전에 하던 이야기들 다시 되뇌었다.

민옥은 그 말은 듣는동안은동해서 일본을 떠났다.

고향에 가서도 민옥은 딸 선아의 행처를 끝내 찾지 못했다. 기간을 며칠 연장해서 지인들을 찾아왔으나 허사였다.

민옥은 만나는 사람마다 자그마한 단서라도 잡히면 알려줄것을 부탁하고 돌아왔다. 돌아오는 비행기안에서 그는 10년가까이 행방을 모르던 딸 선아가 그의 손이 닿는곳에서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는듯한 확실한 예감에 가슴부푸는걸 어쩔수 없었다.

금방이라도 딸을 안을수 있는것 같은 행복감에 잠기는 순간 민옥의 뇌리에 외삼촌의 말이 번뜩이었다. 정말 선아를 찾은 다음 《리무진》사람들과는 어떻게 지내겠는가, 민옥은 새삼스레 그 생각에 골몰하였다.

(선아를 찾으면 정순언니하고도 이제까지처럼 종종 오가지는 못하게 될게 아닌가. 그렇다고 이제까지 받은 사랑을 거역할수는 없는거고...)

그리하여 민옥은 생각끝에 정순내외에게 무슨

보답이 될만한 일을 하고 관계를 끊자는 모진 마음을 먹었다.

그건 오늘까지 친혈육이상으로 도와준 그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라고 생각하였다.

그래 그는 일본에 돌아온 다음날 《리무진》을 찾았다. 전화로 처리할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런데 민옥은 이전과 조금도 닮없이 대해주는 정순이내외앞에서 오래도록 속에 품은 말을 꺼내지 못하고 주저하였다. 그의 속도 모르고 정순은 민옥이더러 저의 친정아버지와 외삼촌은 한 고향사람인것 같다느니, 다신 섬섬한 말을 하지 말고 앞으로든 의중계 지내자느니, 고향은 무슨 일로 갔됐느냐느니 두서없이 말을 해대었다.

진정어린 정순의 말에 민옥은 놀라기도 하고 서글서글 웃기도 하였으나 선아의 이야기만은 하지않았다. 아직 찾지 못하고있다는것도 있지만 정순에게 더이상 걱정을 끼치고싶지 않았던것이다.

말을 끄집어낼 계기를 찾던 민옥은 점점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냥 있으면 이들내외의 정의에 더 끌리어갈것만 같아 걱정이 되었던것이다.

민옥은 마음을 다잡고 자리를 고쳐앉았다.

《언니.》

이렇게 불러놓고 다시 한참을 갑자르다가 정순을 똑바로 보고 말을 이었다.

《오늘까지 저를 살피주고 도와준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병원에 있을 때도 그렇고 <창녕>을 차릴 때도 어려운속에서 많은 도움을 주어 참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한달음으로 내리엮은 민옥은 고개를 한번 깊숙이 숙이기까지 하였다. 그리고는 오늘 아침에 은행에서 내려온 현금봉투를 핸드백안에서 꺼내었다.

《노엽게 생각지 마시고 받아주이소예. 이견 약소하나마 그 사례로... 그리고 요전번에도 한 이야긴데 좀 어려운 일이 생겨서 앞으론...》

《그래 사례는 얼마나 주겠나!》

정순은 참다못해 민옥의 말을 밀막았다. 테블 위에 놓인 현금봉투를 보는 그의 얼굴에 알릴락 말락경련이 일었다.

《사례는 얼마나 주겠냐말예요.》

여태껏 보지 못했던 정순의 사나운 눈초리에 민옥은 가슴이 섬쩍하였다. 무슨 말을 하고싶었으나 입술이 굳어져 말이 안나갔다.

《무슨 곡절이 있는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도 가진 않겠어. 하지만 민옥이를 도운걸 요 몇푼의 사례로 보상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너무 억울하지 않나.》

《언니, 아니예요. 그런게 아니라...》 하고 겨우 입을 떼 민옥의 말허리를 잘라 정순은 웨치듯이 말했다. 그의 눈에는 벌써 이슬이 넘쳐날듯 고였고 입술은 바르르 떨리고있었다.

《억울해요. 이 돈으로 관계를 끊자는것 같은데 민옥이가 바란다면 이것 없이도 앞으로 오가지 않을수도 있어. 이렇게 무슨 언니고 동생이겠나...》

정순은 마지막말을 맺지 못하고 얼굴을 싸쥐고는 밖으로 뛰어나갔다.

너무도 격해올랐던 그는 더는 그자리에 앉아있을수가 없었던것이다.

정순이 나간 다음에도 민옥은 굳어진채로 앉아있었다. 너무도 큰 정순의 노여움앞에 아연해진 그는 다음순간 정순언니의 정의를 저버린 자신에 대한 가책으로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사람좋은 준호는 사이에 끼여 안절부절 못하였다. 선의로 해주려는건데 제 너편네가 환장을 했다면서 준호는 민옥이더러 앞으로도 종종 놀러오라 했다.

민옥은 그날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리무진》을 나갔다.

세말이 가까와오면서 《창녕》은 눈코 뜰새없이 바빴다. 그런속에서도 민옥은 《리무진》에서 있는 그 일로 하여 얼마동안은 회오감에 몸을 지지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번은 거처야 할일인것 같아 체념비슷한 감정도 꿈틀거렸다. 어차피 선아를 찾으먼 일선을 그어야 할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점차 가슴에 퍼져갔던것이다.

한편 정순이도 민옥에게 배반을 당한것 같아 가슴에 뭉쳐진 응어리가 좀처럼 내려가지 않았다.

얼어지면 코닿는데 사는 두 녀인이었으나 그들의 관계는 점점 벌어져갔다. 정이 들면 진리도 지척이건만 그러지 않을 때는 지척에 살아도 천리같이 멀었다.

그런대로 그들은 새해를 맞이하고 다시 몇달을 보냈다.

정순이는 요즘 오래동안의 현안이였던 《이자가야》개점준비로 정신이 없었다. 순애가 다니는 학교가 있는 이웃 시에 좋은 자리가 나서 거기에

《이자가야》를 차릴 준비를 다그치고있었다. 살림집도 이사하게 되었는데 아이들은 학교가 가까와졌다고 멋도 모르고 기뻐하고있었다.

오래 다방을 해오다가 진작 새 장사를 시작하지니 걱정이 많았다. 그러나 정순은 낮에는 《리무진》을 보고 밤에는 어떤 《이자가야》의 립시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점방내장과 손님접대방법, 요리와 경영방법 등을 배워나갔다. 준호도 자금조달은 물론 기회있을 때마다 여러군데를 돌아다니며 새 장사를 연구하고있었다.

그러노라니 한때 분할과 체념으로 응어리졌던 민옥에 대한 생각도 점점 사그라져갔다.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는 요즘엔 어쩌다 생기는 틈시간에 민옥의 영상이 언뜻 가슴을 스치곤했다. 그때마다 애뜻한 그리움에 가슴찌릿해지는 정순이었다.

참으로 세월은 마음의 상처를 가셔주는 더없는 묘약인것 같았다.

그러던 6월중순께 정순은 립시종업원으로 들어간 《이자가야》에서 밤일을 하고 자정이 가까울 무렵 집에 당도했다. 집안에 들어와서 밥상머리에 앉으니 피로감으로 몸이 그자리에 잤아드는것 같았다.

정순이가 시름겹게 화장을 지우고 세수하려고 일어섰을 때였다. 따르릉하고 전화가 울렸다. 야밤에 울리는 전화소리는 곱절 요란했다. 정순은 아이들이 깽가봐 크림이 묻은 손을 화장지로 닦으며 얼른 수화기를 잡았다.

《여보세요. <리무진>입니다.》

정순은 입버릇처럼 점방이름으로 대답했다. 수화기에서는 좀 저어하듯 동안을 두더니 이윽고 《언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아니, 누구세요?》

정순은 그 소리에 놀랐다. 귀익은 소리이긴 하였으나 너무도 당돌한 부름에 자기 귀를 의심하였던것이다.

《언니, 접니더. 민옥입니다.》

《아니, 민옥이가 어떻게!》

놀라움과 반가움으로 저도 모르게 수화기를 갈아쥐는데 수화기에서는 더욱 정찬 소리가 울려왔다.

《그새 가까이 있으면서 가보지도 못하고 정말 미안합니다. 작년에 그렇게 언니를 노엽힌 저를 제발 용서하이소예.》

《무슨 말을, 오히려 내가 언니구실을 못하고

…》

《아닙니다, 언니 마음을 너무도 몰랐던 제가 나뻐지예.》

《…》

정순의 가슴에 이름할수 없는 감정이 북받치었다. 가슴속을 채웠던 애절한 그리움이 일시에 분출하였던것이다.

정순의 그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민옥은 더욱 밝은 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이번에 <창녕>의 1년기한이 오면 남조선에 돌아갈랍니다.》

《뭐라고?!》

《선아를 찾았어요!》

《!》

《작년말에도 그때문에 고향 갔었는데 조총련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면 딸을 찾아도 일본서 같이 못산다카기에… 그땐 참말 언니한테 미안하게 뒀습니더.》

《그랬구나. 그런데 선아는 만나봤나?》

《만나보진 못했습니다. 얼마전에 서울에 있는 친구한테서 기별이 있었는데 거의 틀림없을거라고 합니다. 그래 선아를 일본 데리고와서 살 궁리를 해봤는데 학교랑 제 친구랑 생각하면 당장 일본오기 어려울것 같아서 또한번 지가 고향가서 살아볼생각을 한겁니다.》

민옥의 전화소리는 밝기만 하였다. 정순에게는 수화기너머로 행복에 겨워 함박꽃같이 웃고있는 민옥의 모습이 보이는것만 같았다.

참으로 민옥은 얼마나 기구한 인생행로를 걸어왔던가. 경상남도 창녕에서 중학을 나온후 어린나이에 벌써 부모솔하를 떠나 구로공단의 녀직공으로 일하던 그때로부터 얼마나 모진 풍파를 헤치며 살아왔던가. 그러던 민옥이 찌꺼기때 헤어졌던 딸 선아를 다시 찾아 새생활을 시작하려고 하고있는것이다.

지금 그의 지척에서 민옥은 미칠것만 같은 행복을 삭이지 못하고 앞으로 펼쳐질 꿈같은 새생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있다. 민옥의 그 심중을 생각할때 정순이도 눈물겹도록 기뻐던것이다.

이리하여 두 녀인은 다시 오가게 되었다. 서로 바빠서 이전처럼은 거래하지 못했으나 그대신 전화는 더 자주 오가게 되었다.

민옥이도 이전처럼 외삼촌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며 정순내외가 소속하고있는 단체에 대해서도 제나름의 생각을 가지게 된것 같았다.

때마침 평양에서 학생소년예술단이 일본에 와있었다. 학생들의 공연쯤은 구경시켜도 놀라지 않을것 같아 어느날 정순은 민옥에게 말을 비쳐왔다.

일이 바빠서 못가겠다는 대답이었다. 눈치를

보니 좀 피하고있는듯하였다.

순애가 다니는 우리 학교도 바깥에서 엿보았을 뿐 끝내 학교안에는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그러는 민옥을 보며 정순은 친정아버지와 민옥의 외삼촌을 갈라놓은 조국의 엄혹한 분단상황이 오늘에도 이어지고있다는것을 통감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렇다고 생나무 꺾듯 내리떡일수는 없었다.

다만 민옥은 정순이에 대해서만은 이전보다 더 다정스레 이야기도 하고 언니로 믿고 따랐다.

6월하순경의 어느날 정순이가 밤일을 하고 돌아오니 그를 기다린듯이 민옥이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그것은 《창녕》의 차용기한이 다가오는데 수속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것이였다. 마침 다음날이 《리무진》과 《창녕》의 정휴일이라서 정순은 그런 문제는 순애 아버지가 더 잘 알고있으니 저녁을 같이 하면서 듣자고 하였다. 민옥은 꽤히 승낙하였다. 그에 덧붙여서 오늘 담근 《창녕》의 특제김치를 가져갈테니 저녁차비를 잘 해달라고 우스개소리까지 하였다.

다음날 민옥은 김치하고 파실 몇가지를 꾸져서 《리무진》으로 향했다. 6시를 좀 넘어서 《창녕》을 나왔는데 바깥은 노을이 곱게 비끼고있었다.

전차를 한구간 타고 증시역에 내렸다. 넓은 역전광장에는 초록색으로 빛나는 느티나무의 신흥이 수은등의 희부연 불빛을 받아 가지런히 서있었다.

민옥은 벽돌을 가끈하게 깔아놓은 유보도를 지나 큰길로 나갔다. 이 길을 따라 바로 걸어가면 그가 입원하고있었던 병원이 있고 그앞에 《리무진》이 있는것이다.

민옥은 그 길을 여기서 흘러간 가지가지 추억을 더듬으며 천천히 걸었다.

그가 《리무진》에 당도했을 때는 하늘에 별들이 총총하였다.

민옥은 옆에 달린 계단을 올라 3층으로 가 그들의 호실 문앞에 섰다. 가볍게 손기척을 하며 《계심니껴?》했더니 문이 덜컥 열렸다. 방안의 불빛이 눈부시게 민옥을 비쳤다.

《아지미, 잘 오셨습니다.》

순애가 현관에서 깅듯이 절을 하고 인사를 하였다. 그뒤에서 진태도 수줍어하며 꾸벅 절을 하였다.

현관에서 아이들의 인사를 받고있으니 정순이까지 나와서 어서 들어오라고 재촉하였다.

민옥은 순애에게 이끌리다싶이해서 방에 들어섰다.

벌써 탁상에는 한상 차려놓고있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일가, 탁상우에 있는 좀 도도룩한것에 흰천이 씌워있었고 그 둘레에는 맥주병, 파죽 그리고 색다른 반찬들이 얹혀있었다.

민옥이는 가지고 간걸 정순에게 주며 의아한 눈길로 그것들을 보았다. 그러니 준호가 오늘은 우리 순애 생일인데 같이 쇠자고 오시라 했다면 서 자리를 권했다.

(아차, 내가 무슨 망녕일고.)

민옥은 빨간 모자를 쓰고 병실에서 노래를 불러주던 그날의 순애를 선명하게 회상하며 선물은 고사하고 생일날마저 잊고있었던 무정한 자신을 책망하며 자리에 앉았다.

《자, 시작합시다. 진태 불!》

준호가 이마를 번뜩이며 제법 의젓하게 선언하였다.

그 신호에 따라 진태가 방안의 전기불을 모두 켜었다. 흰 천이 걸혀지고 꽤 큰 둥그런 케키가 희뵈히 나타났다. 준호가 재치있게 13개의 초불에 불을 달았다.

초불이 자아내는 환상적인 분위기에서 준호와 정순, 순애와 진태의 얼굴이 흰하게 비쳐졌다.

가슴을 옥죄이며 이 정황을 지켜보던 민옥의 눈이 한곳에 못박혔다.

케키 한복판에 《선아와 순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하는 글발이 또렷하게 그려져있었던것이다.

민옥은 고개를 꼭 숙여 입술을 악물고 오열을 참았다. 자기는 어머니라면서 제 딸의 생일도 변변히 못해주는데 이 사람들은 뭇이길래 남의 딸의 생일까지도 잊지 않고 이렇게 축하해주는가.

민옥은 숙였던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그러한 눈으로 이들을 보고 《순애 아버지, 정순언니,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는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말았다.

《자, 어서.

래년에는 선아하고 같이 생일을 쇠겠는데 오늘은 그 예행연습이야.》

정순이가 옆에서 민옥의 어깨를 흔들며 타일렀다.

눈이 말뚱해서 보던 순애도 타들어가는 초불이 걱정이 되는지 《아지미, 어서》 하였다.

그제서야 민옥은 딸 선아를 대신하여 순애와 불을 맞대다싶이 갓다대여 초불을 확 불어서 켜었다.

박수소리가 터지고 방안이 다시 환해졌다.

선아와 순애의 생일축하는 혈육의 정이 뜨겁게 오가는 속에서 계속되었다.

눈에 뛰여든 이 글발이 금시 흐려져왔다. 그에는 상관없이 준호는 《우리 순애와 아주머니의 딸 선아는 같은 6월 30일생입니다. 그럼 순애하고 선아를 대신하여 아주머니가 같이 초불을 끄셨습니다.》 하였다.

오래간만에 맥주를 먹어 얼근한 민옥은 정순이가 내준 시래기국을 보고 즈까모도에게 당한 수

모가 생각났던지 눈물이 글썽해하였고 달력의 《6월 30일》란에 빨간 동그라미를 쳐서 《순애와 선아의 생일》이라고 적어놓은것을 보고도 눈굽을 적시었다.

그날 민옥은 막차를 타고 돌아갔다. 시간도 늦었으니 자고 가라는데도 한사코 돌아가겠다고 정순네 집을 나갔던것이다. 물론 아이들이 공부하는 안방에는 들어 가지 않았다.

정순은 민옥을 바래리 밖에 나왔다.

초여름의 밤바람을 시원스레 맞으며 그는 민옥이와 함께 큰길을 따라 걸었다. 자동차도 사람도 그리 다니지 않는 밤길을 키가 날씬한 민옥이와 중키에 뚱뚱한 정순이의 그림자가 형제처럼 의중게 걸어갔다.

정말 두 녀인은 만난지 1년도 안되는 사이에 형제처럼 친숙해졌다. 서로 나서자란곳은 달라도 한혈육이라는 그 한가지 리유로 이렇게도 굳게 어울렸던것이다.

정순은 지금 자기 곁을 걷는 녀인이 남조선에서 왔고 멀지 않아 다시 남조선으로 돌아간다는게 믿어지지 않았다. 식민지노예로부터 한낱한시에 해방이 된 친정아버지와 민옥이 외삼촌을 그렇게 무참하게 갈라놓은 《분단상황》속에서도, 지금도 엄연히 겨레들사이에 존재하는 《담벽》을 넘어서서 손을 맞잡고 이렇게 한길을 걷는다는게 희한한 일로 생각되었다.

물론 아직은 속마음까지가 한몫을 향하고있지는 않을것이다. 그러나 언젠가는, 아니 우리 선아와 순애가 클 때에는 다같이 행복을 구가하는 민족공동의 한마당이 펼쳐지리라것을 바라마지 않았다.

승시의 역전광장은 불야성처럼 밝았다. 밤하늘엔 별무리들이 흐르고 수은등의 옅은 빛이 붉은 벽돌바닥과 느티나무의 초록빛을 비치는 이 일각만은 둘레의 야음속에서 별스럽게 떠있는듯하였다.

《언니, 오늘은 참말 즐겁게 놀았습니다.》

역구내에 들어선 민옥은 호수와 같은 맑은 눈에 그윽한 빛을 띄우며 노래하듯 말했다.

《오늘만인가. 선아를 찾으면 앞으로 우리 딸들의 생일을 함께 쇠게 될지 누가 알겠나.》

정순은 의미심장한 눈길로 민옥을 바라보며 말했다.

민옥은 그 눈길의 전송을 받으며 역홈으로 사라져갔다. 이윽고 막차가 덜커덩거리며 역구내를 빠져나갔다.

정순은 그자리에 우뚝 서서 막차의 빛줄기가 저쪽 굽인돌이를 돌아 어둠속으로 녹아들 때까지 바래고있었다. (끝)

멀고도 가까운 나라

김선지

첫상봉

하는 말씨는 달라도
하는 생각이 같아서
마음속엔 언제나
형제처럼 가까운 벗들

그처럼 멀고 먼 하늘길
바다건너 대양건너 왔어도
피곤을 몰아내는 반가움
헤어졌다 만나는 친구의 상봉처럼
뜨겁게 열싸안은 뜨거운 포옹

피부색은 다르고
서로 먼곳에 떨어져있었어도
뜻이 같은탓에
첫 대면에도 낯설지 않은
구바의 벗들이여

그들이 인사처럼
엄지손가락을 펴보이며 웃을 때

우리는 그 밝은 얼굴에서
주체조선에서 사는
자부심을 뜨겁게 안았고

친절히 안겨주는 꽃송이에서
향기보다 그들의 마음에 취해
먼길의 피로도 잊었더라
뜨겁게 잡아보는 손길들에서
영원히 헤어지지 말자는
약속을 읽었더라

처음 만나는 사이였어도
사회주의 한길에
반제반미투쟁의 한길에
서로 굳게 서있기에
멀리 있어도 가까웁고
처음 만나도 구면같은
친근한 구바의 벗들이여

한지붕아래

우리는 격식없이
임의의 장소에서
그 누구와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다정한 친구되어

우리는 예고없이
임의의 시간에
연구기관과 학교도 찾고
가정에도 들렀다

조선에서 왔다는
그 한마디의 말이면
구바인민들모두가
우리를 가장 가까운 벗으로
친근한 형제로 환영했다

구바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모신
조선에서 왔다는 말이
지구의 동반구와 서반구의 계선을 벗어나
격식과 관례를 벗어나
마음속 가까이 가장 친근한
이웃으로 되게 했어라

아, 어제도 오늘도 한길을 걸으며
뗏어진 정이 뜨거워
대양건너 멀리 떨어져있어도
한지붕아래 친형제로
가까운 이웃처럼 두 나라의 마음은
멀지 않구나

《꾸바-조선친선학교》

아름다운 청년섬
바다 가까이
한쪽의 그림처럼 솟아있는
《꾸바-조선친선학교》

이 학교에서
첫 졸업식이 진행된다고
정계의 인사들도 찾아와 축하하는
제1기 졸업식

이날을 뜻깊게 맞이하자고
달린옷을 새로 짓고
거기에 한뼘두뼘
41명 졸업생의 이름을
각가지 색깔로 수놓아 입은 여성직원도 있구나
지리만을 전공한다는 교원이
졸업식을 축하하여 시를 지었구나

교직원들의 성의로
졸업사진첩이 마련되고
기념수첩이 마련되고

이 뜻깊은 날 즐거운 날에
꾸바의 교원들도
우리의 학생들도
눈굽을 적신다
4년간의 나날에 맺어진
친선의 우정이 깊어

아 졸업식연단에서
우리 학생대표가 읽는
피델 까스트로동지에게 올리는 편지
대를 이어 조선, 꾸바 친선을 꽃피우겠다고
청높이 웨칠 때
높이 올리는 환호성, 환호성
영원한 메아리로 울려 퍼지누나

축하연설도 친선
졸업축하공연도 친선
학교 이름도 친선
아, 《꾸바-조선친선학교》
이는 대를 이어 친선을 꽃피워가는
조선, 꾸바 친선의 화원이여라

휴식일의 해수욕장

파도와 힘겨루며 씨름하는듯
사람이 나타나면 파도가 사라지고
파도가 나타나면 사람이 사라지고

바다기슭에선 아이들도
고무배타고 파도에 뛰집히며
구멍대메고 잔물도 먹으며
엄마손에 이끌려 해염을 배우는데
때로는 울음도 터뜨리고
웃음도 피어나네

아, 땅도 바다도 다 인민의것
자연의 모든 아름다움도

인민이 향유하는
사회주의 꾸바의 이 하루

그들은 웃으며 말하네
우리는 《천당》과는 너무 멀리
미국과는 너무 가까이 있다고

하기에 휴식일의 해수욕장은
한갓 휴식만이 아닌
래일의 전투준비
꾸바의 미래를 지켜갈
몸과 마음 단련하는 《운동장》이라고

작별의 포옹

첫 졸업생이 떠난다고
청년섬부두가에
구름처럼 모여든
사람들의 물결

그속에는 있어라
재학생들도
친선학교 교원들도
수많은 정계의 인사들이

우리의 첫 졸업생들
오늘은 친선학교 교복을
기념품처럼 정히 개여 트렁크에 넣고
졸업식을 계기로 조국에서 보낸
새 옷을 입고 청년섬을 떠나네

한창 자라는 나이에 와서
키도 무척 컸구나
마음도 크게 자랐구나
름름한 그 모습들

하나같이 자랑높은
졸업증을 품에 안고
오늘은 려객선으로
청년섬을 떠나누나

이 길은 조국으로 가는 길
그리운 고향에 안기는 길이어도
어찌하여 그들
선뜻 배에 오르지 못하는가

포옹, 포옹, 또 포옹
꾸바의 교원들과 차례로 포옹하며
작별의 눈물 짓는구나
사진을 주고받고
집주소도 적어주며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스승의 목소리 뜨겁고
제자의 목소리 정에 넘쳐

아, 스승과 제자와의 정만이 아니여라
한집안 한혈육처럼
함께 배우며 일해온 나날만이 아닌
영원한 친선을 약속하는 메아리
헤어져도 마음만은 안고가는 부두가
대를 이으며 친선을 꽃피워갈
꽃씨가 움트는 청년섬이어

싸우는 꾸바

유치원에 가도
작은 전투배낭과 목총이
벽에 걸려있네
평평한 들관길을 걸어도
곳곳에 요새가 구축되어있네

엇저녁까지
부인과 함께 해수욕장에도 왔던 주의 일군
오늘은 훈련의 날이라고
군복차림에 총을 들었구나

보람찬 로동속에서도
명절과 휴식일에도
흥겨운 노래와 춤 속에서도
마음속 어깨우엔
언제나 총을 메고사는 꾸바의 사람들

아, 결사의 각오를 가진
꾸바인민들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삶과 투쟁의 구호 목숨으로 지킨다
-사회주의나 죽음이나
우리는 승리할것이다

아, 판가리싸움에 나선
병사의 심정으로
아이들도, 녀인들도 늙은이들도
미제의 코앞에서 곳곳이 당당히
오늘과 래일의 영원한 삶의 터전
사회주의를 지켜 싸우는구나
꾸바, 서반구의 사회주의보루여

아름다움에 대한 생각

손광주

파도는 세차
기슭을 들부시고
오랜 세월 꾸준히
씻어가고 허물어 낸
아, 볼수록 기이한 해금강의 기암절벽

수천년세월
그 하나하나 천지가 다듬어세운듯
신비하구나
정교하고
한없이 귀한 이 모든것

마음속은 그저 불안하구나
산악같이 달려드는 사나운 파도
그 어느 하나의 모습에라도
허물을 남길가봐

지금도 달려들다는
힘이 진한듯 물러서는 저 파도
허나 태평스레
억만의 물방울을 뿌려올리며
기슭 부리는 푸른 파도 향해
오히려 웃음을 머금은 그 자태여

그 어떤 원썩와도 싸워이긴
이 강산의 슬기를 담았느냐
죽음의 계선을 넘어서 빛나는
영웅의 억센 넋이 깃들었느냐

세월의 풍파와 겨루면서도
화려하고 정교한 경치만이 남았구나

건똥 머리들고 일어선
저 기묘한 기둥과 기둥들...

씻길것은 이미 다 씻겨가고
다칠수도 건드릴수도 없는
가장 굳센것만이 여기 일어섰다고
존엄높은 그 기상을 속삭이는듯

아름답구나
집채같은 파도 달려들다
머리 숙이는 억세인 저 기슭이,
찾아드는 물거품을 떠이고
우뚝 솟아나는 억척같은 저 바위가

아름답구나
바람 세찬 저 절벽가에
용사인양 곳곳이 기여오르는듯
거연히 푸르른 저 소나무가

머리 들고 일어선 그 하나하나
억세계 빛나는 그 하나하나
아, 이 가슴에 이름 못할 감격이 설레누나
수천년 고이 품은 뜻이 어려
네 기암들은
너무도 돋보여라

아, 강한것은 저렇듯 아름답구나
아름다운것은 저렇듯 강하구나
그 무엇도 다칠수 없이
세월속에 더욱 빛나며

그날은 오리라

제 2부

윤광연

새벽

구역체신소 시외전화실. 금숙이가 전화를 하고 있다.

《…기사장동무가 수고 많아요… 네 만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동생이 아니라고 한마디로 부정하고 훌쩍 돌아서버리기가 미안하군요. 그 사람은 그냥 내가 자기 동생이라는거지요 뭐. 그래서 래일아침 그 사람들이 서울로 떠날때 배웅까지 하고 갔으면 해서 그래요… 네. 네. 그렇게 수고 좀 해주세요. 안됐어요.》

금철의 집

심중한 기색으로 사진첩을 번지는 금철.

금숙이가 외출복옷차림으로 들어선다.

《어데 갔었니?》

《농장에다 시외전환 좀 했어요.》

《애, 서울서 온 그 사람이 널 기어코 제 동생이라고 그런다면서?》

《예, 그래서 어제저녁 지도원동무가 와서 그신문을 가져갔어요. 그 사람한테 보이겠다고요.》

《음…》

《오빠, 남조선축구선수들이 래일 떠나지요?》

《4박5일이니까 래일이구나.》

《그래서 기념품을 하나 장만해가지고 그 사람을 바래주고 농장으로 내려가겠어요.》

《으음, 잘 생각했다. 그래라. 꼭 그래라.》

거리

생각에 잠겨 걷는 금철.

금철의 집

방을 정돈하던 옥주가 묻는다.

《사진첩 고모가 보자고 꺼내놔나?》

《아니, 난 어제 보고 제자리에 끼워놔다.》

사진첩을 제자리에 꽂는 옥주.

《참, 애순이 옷보낸거 꼭 맞나?》

《오-어쩌면 그렇게 꼭 맞냐. 목깃도 착 붙는게…》

《양복점에 맡길 때 애순이건 내것보다 좀 크게 재단해달라고 그랬거든. 꽃두 좀 크게 달구…》

《평양언니 덕분에 애순인 으쓱해서 다닌다.》

《흐흠, 호호… 애순이 전번 평양에 왔을 때 옷이랑 꼭 같이 입고다니니까 다들 쳐다보지 뭐. 생

긴것두 비슷하다나.》

평양거리

문화용품상점으로 들어가는 금숙과 금철 처.

문화용품상점

《저 도자기가 좋잖을까?》

《실수해서 깎수도 있잖아요. 저 수예품을 사세요. 집에 걸어놓고 오래 볼수 있게.》

《오. 그게 좋겠어. 누이가 하나 고르게.》

진렬된 수예품들.

《저 <달밤의 기러기>가 어때요? 민족적인 정서가 풍기지 않아요. 체육을 하시는분이니까 이런 정서적인것이 좋을거예요.》

《그래그래. 저걸 좀 주시겠어요.》

판매원에게서 수예품을 사드는 두 녀자.

이때 밖에서 환호소리와 《조국통일》, 《조국통일》 하는 웨침소리가 들린다.

밖을 내다보던 금숙.

《남조선축구선수들이 지나가요!》

급히 뛰어나가는 두 녀자.

빠스를 타고 지나가는 남조선축구선수들을 환영하는 행인들.

두 녀자도 행인들속에 섞여 《조국통일》을 웨친다.

《저기에 그분도 계시거예요!》

《원 이렇게 만나니 정이 통하고 눈물이 나는데 로태우역적놈은 <승공통일>이요 뭐요 하고 떠다니…》

《글쎄 그저께두 그 사람을 만나니까 개성이나 해주에서 오신분들을 만나는 감정이나 무엇이 다른게 있겠어요.》

《그러게나 말이야. 글쎄 오빠 남조선축구선수들이 온단 말을 듣더니만 밤새 잠을 못들더라니까.》

《우리 시아버진 뭐라시는지 알아요? 통일이 되면 첫 한가위날에 서울에 나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묘에 자기가 성묘를 하신다지요 뭐.》

《에그, 환갑이 다 되오도록 시부모 묘도 모르고 살고있으니…》

금철의 집

《통일의 그날을 위하여》

수예품에다 글자를 새기는 금숙.
창밖에선 《조국통일》이라는 장식글자가 계속 새겨진다.

어느 청사 방
국장이 지도원 김영수와 말하고있다.
《그러니까 그 신문을 보고서야 자기 동생이 아니라고 말하드란말이지?》
《예.》
《결국 우리가 그 사람의 부탁을 못들어주는것으로 되는게 아니요?》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도 함북도 종성과 황해남도 벽성에 더 알아봤지만 다 아닙니다.》
전화종소리가 울린다.
국장이 송수화기를 든다.
《예, 제 여기 국장입니다. … 예 여기 있습니다.》
송수화기를 김영수에게 넘겨준다.
《건설사업소에서 지도원동무를 찾소.》
송수화기를 받는 영수.
《예, 제 김영습니다… 아, 금숙동무 오빠되시는 분입니까?… 예, 이거 전화로 처음 뵙습니다…예, 예…》
긴장해지는 김영수.

밤
고려호텔
휴게실에 앉아 누구를 기다리는 금철.
김영수가 미안한 기색으로 다가온다.
《어떻게 할까요? 연회가 제 시간에 끝날것 같지 않다는만요.》
《그래요? 그럼 제 저녁을 먹고와서 좀더 기다려보겠습니다.》
《예, 그게 좋겠습니다.》

창광거리
생각에 잠겨 걷는 금철.
어느 식당으로 들어간다.

식당안
접대원이 가져다주는 음식그릇을 앞에 놓는데 뒤에 앉아 식사하는 젊은이들의 말소리가 금철의 귀에 들려온다.
《글쎄 우리 아버지 5월1일경기장에 가서 얼마나 소릴 치셨는지 목이 다 쉬었지요 뭐.》
한 처녀의 이야기에 옆의 청년이 받는다.
《우리 미란인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서 남조선 축구선수들을 만났었는데 고 어린게 녀자선수들을 붙잡고 막 울었다지 않아.》
《참 이상하지요. 림수경이가 왔을 때도 그렇고

남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면 왜 자꾸 눈물이 날까요?》
《그러게나 말이야.》
금철의 마음도 그윽해진다.

금철의 집
형님의 동자질을 돕는 금숙.
《오빠가 왜 이렇게 늦어져요?》
《글쎄. 통일거리 건설장에 나가신 모양이야.》
《저녁은 어떻게 하구요?》
《현장식당에서 대충 잡숴졌지.》
《아이참, 내다올려야지 않아요?》
《어디 하루이틀이라구.》
《그래두…형님, 오빠 저녁 싸줘요. 내다 올리구 올게.》
《애애, 노친네 점수짜이게 그러지 말구 가만 있거라.》
《이젠 나이두 있는데 식찬 한가지라도 입에 맞게 해드려야지.》
《에그-누이만 나오면 꼭 시어머니밑에 드는것 같아서 원.》
《나야 뭐 한분밖에 없는 오빠니까 그러지요.》
《아니 누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 자기한테 오빠가 하나구 그래 나한테 령감이 둘인가?》

《예?!》
서로 마주보던 두 녀자 자기들 말이 우스워 호호호 웃고만다.
방안에서 이들의 얘기를 듣던 옥주가 해죽거리며 말한다.
《아버지하구 고몬 별래.》
《왜?》
《난 오빠하고 맞서면 앵앵거리며 씹박에 모르는데 아버지 그저 <우리 금숙이> <우리 금숙이>, 고몬 그저 <우리 오빠> <우리 오빠>》

《요건-》
《호호… 나두 오빠하고 오래 헤어졌다 만나면 그렇게 고모처럼 오빠한테 정성을 바칠수 있을가요?》
《넌 몰라. 아무리 고모가 아버지를 생각한대두 두 아버지가 이 동생한테 바친 그 마음에는 대비도 안돼.》
그윽해지는 금숙의 눈.
눈앞에 떠오르는 지난날의 일.

농장 종자소독실
소독작업을 지도하는 금숙.
한 농장원이 들어와 금숙에게 알린다.
《기사동무, 평양서 오빠랑 형님이랑 오셨어요.》
《예?!》

마을길
 막 뛰여가는 금숙.
 겨울차림의 금철과 그의 처가 서있다.
 《오빠-》
 《금숙아-》
 서로가 달려온다.
 《인사해라. 네 형님이다.》
 《형님! 처음 뵈워요.》
 《누이!》
 두 녀자가 껴안는다.
 《그런데 집으로 가지지 않구요.》
 《아니, 너하구 먼저 상론할게 좀 있어서 그런다.》
 《예?》
 《어데 좀 들어가서 얘길하자.》

농장사무실
 려행용 가방에서 옷가지며 수건 등을 가득 내놓는 금철의 처.
 《오빠, 이건 뭘예요?》
 《너를 만나고 돌아가서 형님이랑 토론을 좀 했다. 네가 시집을 갈 때 홀몸이었으니 시집식구들 레단도 변변히 못했을거고, 또 너한테 우리가 옷가지 하나 못해주질 않았니?》
 《아니 그래서?!》
 《누이, 변변치 못하지만 어떤걸 누구에게 드릴지 누이가 여기서 결심해요. 이걸 누이 옷감이고.》
 《형님!》
 금철이가 눈을 슴벅이며 말한다.
 《이제라도 우리가 친정구실을 해야 할게 아니냐!》

《오빠!》
 금숙이가 그저 앓아 눈물만 자꾸 떨군다.
 생각에서 깨어나는 금숙.
 평양역사의 탐시계가 열한시를 알린다.

고려호텔
 현판에 들이닿는 뺨스와 승용차들.

휴계실
 급히 뛰여오는 김영수. 금철에게 소리치듯 말한다.

《기사장동무, 그 사람들이 읍니다.》
 《그래요?》
 금철이가 일어나 영수를 따라 급히 간다.
 맨 나중에 만취한 현덕을 끌고 들어오는 만선.
 허꼬부라진 소리로 현덕이 만선을 뿌리친다.
 《놓으라. 내 혼자 간단말이야. 취한줄 알아? 비

켜!》
 《떠들지 말고 꼭 붙잡으라구.》
 《비키라는데!》
 금철과 영수가 다가온다.
 《현덕선생, 연회가 만족했습니까?》
 《예? ... 예 이겁니다. 이겁니다.》
 비칠거리며 엄지손가락을 내흔든다.
 《선생, 선생을 만나보고싶어 찾아왔습니다.》
 영수가 금철을 소개한다.
 《안녕하십니까? 리금철이라고 합니다.》
 《예?!》
 현덕도 만선도 놀란다.
 《리금숙관리위원장의 오빠되시는분입니다.》
 《아...》
 만선의 반가움과는 달리 현덕이 긴장해진다.
 《어떻게? 절 만나실려고요?》
 《예, 리선생과 좀...》

《아, 아, 제 잘못했노라고 그러질 않았습니까. 사죄 합니다. 당신들에게 무례한짓을 한데 대해 깊이 사죄합니다.》

두손을 모아붙이고는 바로 서려고 비칠거린다.
 《사죄를 받으려 온건 아닙니다.》
 《그럼 위자료를 요구합니까? 인신모욕죄로...드립시다 드립시다.》

돈을 꺼내려고 안주머니에 손을 넣는 현덕을 만선이가 황급히 붙잡는다.
 《여보게, 왜 이러나? 여기는 서울이 아니야. 평양이란 말일세. 평양.》

《평양? 예, 그래서 내 평양술 많이 마셨습니다... 예에 안기부자식들이 자꾸 옆구리를 찌르는걸야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리선생, 취하셨구만요. 전 선생이 동생과 헤어질 때의 사실을 몇가지 알고싶어 찾아왔는데요.》

《아, 아 그럴 필요 없습니다. 리금숙 그 녀인은 내 동생이 아닙니다. 글썄 럽치두 없지. 다섯살잡이 피골이 상접한걸 누덕웃을 입힌채 내버리고 갔다가 그런 귀부인을 제 동생이라고 하다니...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안녕.》

비칠거리며 계단을 오르는 현덕의 목소리.
 《금숙아, 넌 죽었니? 살았니? 어데 숨어서 이오빠의 애간장을 태우느냐?》
 만선이가 미안해서 말한다.
 《저 친구 만취했습니다. 그냥 마셨거든요.》

카운다
 거계까지 비칠거리며 온 현덕.
 《응?!》
 카운다에 서있는 점대원처녀의 얼굴에 그의 시선이 못박힌다. 그 처녀의 모습우에 어린 시절 동생의 모습이 겹놓인다.

《금속아! 금속아!》

동생의 이름을 부르며 접대원처녀한테로 달려가던 현덕이가 의자에 걸쳐 넘어진다.

마주 달려오는 접대원처녀.

《선생님, 상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세요?》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아가씨, 나 술 한잔만 주시오.》

엉거주춤 일어나 접대원 처녀앞에 돈을 내미는 현덕.

근심스레 말하는 처녀.

《선생님, 술을 더 하시면 안되겠어요. 몸을 돌보셔야죠... 자, 이걸 드세요. 이걸 제가 드리는거예요.》

처녀가 청량음료를 부어 현덕에게 권한다. 그러면서 딸마냥 살뜰하게 말한다.

《저의 아버지두 술을 몹시 좋아하십니다. 술을 마신 아버지에게 전 이걸 마지막에 부어드리곤해요. 드세요. 딸이 드리는거라고 생각하고 어서드세요.》

처녀의 따뜻한 목소리에 가슴이 더워진 현덕.

《고맙소! 평양아가씨 어찌면 얼굴도 아름답고 마음도 것처럼 아름답소?》

《아이!》

그러는데 만선이가 황급히 뛰어든다.

《여보게, 여기서 또 술을 마시면 어찌나. 자-》

만선이 현덕이 마시려던 고뿌를 막아버린다.

사납게 변하는 현덕의 눈길.

《야, 이걸 평양아가씨가 부어준거란 말이야. 내 딸이 부어준거.》

《자, 일어나라구. 여보게-》

《너 지금껏 내 친군줄 알았는데 <안기부>밀정이지?》

《여보게, 왜 이러나?》

《야, 왜 따라다니며 못살게 굴어? 왜 평양아가씨와 말도 못하게 하는가 말이야?》

《여보게 현덕이, 제발 이러지 말라구. <안기부>사람들이 오면 어찌자고 그러나 영?》

《난 세계의 그 어느 나라에 가서두 맘대루 말을했던 말이야. 미국에 가서두, 영국에 가서두. 그런데 왜 제 나라 제 땅인 평양에 와서 마음대로 말을 할수 없단말인가 아-》

《여보게 현덕이, 내가 자네 심정을 왜 모르겠나. 자 일어나라구.》

정말로 <안기부>요원들이 뛰어들었다.

《아, 현덕씨, 취하셨군요. 자 올라갑시다.》

그들이 랑쪽에서 팔을 붙잡자 현덕이 뿌리친다.

《으응?!》

《안기부>요원들의 인상이 시퍼래지자 불안해지는 만선.

《아, 그렇게 아니요. 아니요...》

무엇인가 설명해주려는 만선의 말은 들은척도 안하고 현덕을 나꿔채는 <안기부>요원들.

《올라갑시다!》

현덕이 끌려가며 접대원처녀쪽으다 소리친다.

《아가씨, 내 후에 와서 꼭 마저 마시겠소- 아가씨, 잘 있소-》

입술을 깨무는 처녀의 눈에서 눈물방울이 굴러 현덕이가 그냥 놓고 간 고뿌에 떨어진다.

금철의 방

책상우에 놓인 오누이사진. 그옆에 놓인 구기자고. 의자에 앉아 그것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금철. 그의 눈앞에 상봉의 날 가슴에 묻히던 금속의 모습이 떠오른다.

부엌에서 눈물을 머금고 자기를 바라보던 금속.

그후 옷감을 안고 울던 금속.

구기자고를 만드느라 애쓰는 금속...

어릴 때의 사진을 꺼내보이는 금속...

금철이 생각에서 깨어나 괴롭게 오락가락한다. 이윽고 탁상시계를 당겨 종바늘로 다섯시에 옮겨놓는다.

어둠속에 돌아가는 탁상시계.

다섯시다.

《따르릉-》

서둘러 일어나 옷을 입는 금철.

새벽

조용한 거리를 걷는 금철.

고려호텔현관에 들어선다.

수위에게 한참 무슨 말을 하니 영수가 나온다.

영수와 같이 호텔로 들어가는 금철.

조용한 호텔에 소리없이 움직이는 승강기 불빛.

두사람이 현덕의 호실 초인종을 누른다.

호실

초인종소리.

어둠속에서 만선이가 일어난다.

누운채로 불평스럽게 중얼거리는 현덕.

《안기부자식들이야. 새벽부터 쫓쫓.》

그러나 일어나 나가는 만선. 불을 켜고 문을 여니 영수와 금철이가 서있다.

《일어나게. 어제 그분들이 왔네.》

《영?!》

현덕이 황망히 일어나 바지를 주어입는다.

《편히 주무셨습니까?》

《아, 이거... 어젠 너무 취해서, 선생들과 무슨 얘기를 했던것 같은데요.》

만선이가 웃는다.
 《그래두 정신을 다는 버리지 않았됐군.》
 《하하...》
 금철이가 침착한 목소리로 말한다.
 《새벽에 실례되는줄 알면서두... 동생에 대해 몇가지 알아볼것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예?! 동생에 대해서요?! ... 그 일에 대해선량해해주십시오. 제가 그만...》
 《그런게 아닙니다...》
 저 선생이 의탁해 살던 집이 숙모별되는 친척이었습니까?》
 《5촌 숙모였지요.》
 《구박이 심했는가요?》
 《말할수 없었지요. 아마 동생애두 그래서 그 집에서 쫓겨났을겁니다.》
 《예... 동생의 아이적 모습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예?...》
 《이 사진을 줌...》
 품에서 사진을 꺼내는 금철.
 의아해서 사진을 받아들던 현덕.
 《영?!》 놀라서 헤덕비며 사진을 본다.
 그를 주시하는 금철과 영수.
 《이 사진이 어디서 났습니까? 예?!》
 영수가 흥분하여 소리친다.
 《엇그제 만났던 리금숙관리위원장이 바로 현덕 선생의 동생입니다!》
 《예?!》
 현덕이도 만선이도 놀란다.
 사진을 다시 보며 목메여 부르는 현덕.
 《금숙아! 금숙아!》

금철의 집
 수예품을 포장하는 금숙과 금철이 처.

거리
 살같이 달리는 승용차.
 흥분하여 앉아있는 금철.
 아파트밑에 이르러 승용차가 몇자 금철이가 뛰어 내린다.
 달려들어가는 금철. 자기 집 문을 열고 소리친다.
 《금숙아-금숙아-》
 방문을 열어보는 두 여자.
 《무슨 일어요?》
 《여기 다들 앓소.》
 금철이가 심중한 낯으로 금숙과 처를 앓힌다.
 울렁이는 가슴을 진정하느라 말을 못하는 금철을 이상하게 바라보는 두 여자.
 《오빠 무슨 일이에요?》

《금숙아, 놀라지 말아, 서울에서 온 그 사람이 바로 네 친오빠다.》
 《예?》
 금숙이가 뻥해서 그런다.
 《아니 여보, 무슨 말이에요?》
 금철 처도 같아 그런다.
 《내가 지금 그 사람을 만나 모든걸 확인하고 왔다. 그 사람이 네 돌사진을 알아보았다.》
 그제야 룡담이 아님을 안 금숙.
 《그럴수 없어요! 오빠, 그릴수 없어요!》
 누이를 잃지 않으려고 꼭 껴안은 금철 처.
 《여보!...》
 금철이 괴롭게 다음 말을 잇는다.
 《금숙아, 이젠 다 얘기하자.》
 《아니예요! 아니예요! 아니예요!...》
 몸부림치듯 울부짖는 금숙.
 《아니다. 이젠 죄다 사실이다. 15년전 내가 너를 만날 때 난 역에 마중나온 너의 얼굴이 내 동생과 판 다르다는걸 알았다.》
 《예?!》

역
 옥주를 데리고 기자와 같이 내린 금철.
 마주 나온 청년이 금철에게 말한다.
 《기사동무도 나왔습니다. 관리위원장동지도. 리당비서동지도 다-》
 《예?!》
 그쪽을 보는 금철.
 그의 시야에 나란히 서있는 세 여자가 안겨온다.
 (어느 여자일까? 내 동생은 꼭 아버지를 닮았었다. 저 여자?... 아니 맨 끝의 여자가 비슷한데.)
 그런데 가운데 여자가 움직이며 달려나온다.
 《오빠-》
 (웅?!)
 금철에게로 달려와 두팔을 거머잡고 애타게 부르짖는 금숙.
 《내 오빠지요? 내 오빠가 옳지요?》
 열차에서 사람들이 내다보며 손을 흔든다.
 《옥주야-》
 축복의 마음들을 싣고 천천히 굴러가는 열차바퀴, 눈굽을 훔치는 의용군 출신 장년과 할머니... 순간 금철이 목메여 부른다.
 《금숙아!》
 금철과 금숙이가 으스러지게 껴안는다. 서로가 눈물을 비오듯 쏟으며.
 그때를 회상하는 금철의 목소리.
 《그때 나는 분명 네가 내 동생이 아님을 알았다. 그러나 그날 그때까지 너와 다름없이 남쪽에

두고 온 너동생을 한시도 잊은적이 없는 내가,
길을 가다가도 금숙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후두두 떨리곤하던 내가 오빠라고, 부르며 달려
오는 너를 차마 내 동생이 아니라고 말할수 없었
다.

<내 오빠지요?> <내 오빠지요?> 하고 묻는 너
의 간절한 눈빛앞에 우리의 상봉을 그토록 귀중
히 마련해준 마을사람들의 축복앞에 어떻게 감히
그말을 한단 말이냐?... 그날 나는 온밤 잠들수가
없었다. 》

밤

잠못들고 뒤척이는 금철.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오빠가 아니라는걸
말해줘야 하는가? ... 그러면 금숙이가, 금숙이가
얼마나 낙심하고 실망해할까... 그렇다면 나를 친
오빠로 믿도록 그냥둔단말인가?...)

새벽닭이 운다.

건설사업소 당위원회

당비서와 마주앉은 금철.

《그러니 종시 동생이 아니라는 말을 못하고 왔
단 말이지요?》

《예, 차마... 할수가 없었습니다.》

《음...》

《그는 지금껏 나를 친오빠로 알고있습니다.

비서동무, 이런것도 거짓말에 속하는것이겠지
요?》

《자식에게 밥을 더 먹이려고 때식을 건넨 어머
니가 배부르다고 한 말을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
지요.》

《예?!》

《미국놈에 의해 강요당한 우리 인민에게 사실
을 터놓지 못하는 아픔이 어찌 그것뿐이었습니
까.》

금철의 얼굴에 결심이 어린다.

금철의 집

금숙에게 이야기하는 금철.

《그래서 나는 통일되는 그날 친오빠를 만나는
그날까지 네 오빠가 되기로 결심한것이다.》

금철 처에게 쓰러지는 금숙.

《형님!》

《누이!》

두 녀자가 끌어안고 운다.

금철의 진정된 목소리.

《너는 어제도 대 동생이였고 오늘도, 래일도
내동생이다. 너는 오늘부터 북과 남에 두 오빠를
가진 동생이 된것이다.》

《오빠-》

《금숙아, 너는 오빠와 헤어지던 날이 오빠가
뿔을 차다가 옆집 장독을 깨고 작은어머니한테
매를 맞은 날이라고 했지?》

《예.》

그때를 그려보는 금숙의 눈길.

쟁가당-

박산이 나는 장독.

데그르 굴러가는 버짚뿔.

《어느새끼냐?》

다닥치듯 울리는 고함소리.

와다닥-달아뛰는 사내애들.

숙모집 트락

어린 현덕의 귀를 잡고 때리는 숙모.

《이새끼야, 밥먹여주는것도 모자라서 이젠 장
독까지 깨뜨리며 돌아다녀? 그래 그 장값, 독값
무얼루 몰테냐? 이새끼, 먹는 밥이 남아 그 지랄
이냐? 양? 양?》

사정없이 때리는 숙모.

창문안에서 오빠가 매맞는것을 보며 슬피우는
금숙.

《오빠야, 오빠야...》

소쩍새 우는 밤

오빠와 헤어지는 금숙.

그때 일을 그려보는 금숙에게 계속 말하는 금
철.

《이렇게 너와 헤어진 오빠는 그 험한 세상에서
도 어디엔가 살아있을 동생을 찾고 부르며 오늘
까지 살아왔다고 했다.》

《오빠! ...》오빠를 부르는 금숙의 입술이 떨린
다.

《땡, 땡...》

여덟시를 치는 탁상시계.

금철이가 서두른다.

《시간이 없다. 빨리! 아홉시면 오빠가 서울로
떠난다!》

거리

살같이 달리는 승용차.

금숙의 눈앞에 빠르게 흘러가는 건물들과 가로
수들의 룬팍들.

고려호텔

남측 축구선수단이 떠난다.

거리

달리는 승용차.

고려호텔 현관에 들이닿는다.

금철이가 뛰어내려 먼저 들어갔다 급히 나오며

소리친다.

《다 나갔네! 평양역으로-》

평양역 대기실

초조하게 오락가락하는 현덕.

만선이 연방 창박을 바라본다.

남측안내원이 불안해서 말한다.

《오지 못하는것 같애요.》

이러는데 출입문이 열리며 여러사람의 다급한 발자국소리가 밀려들어온다.

《빨리!》

누구인가 복도에서 웨쳤다.

다음 순간 《왔소!》 만선이가 웨쳤다.

《영?!》

흠칫하는 현덕.

금숙이와 그 일행이 들어섰다.

후두둑... 심장의 떨림을 겨우 붙잡고 현덕이가 먼저 불렀다.

《금숙아!》

한걸음, 한걸음... 금숙이가 멈춰섰다. 이윽고 목메여 부른다.

《오빠!》

《금숙아!》

몽쳐안은 두사람의 손이 다 떨린다.

《네가 정말 내 동생이란 말이나? 네가 정말?》

《용서하세요. 제가 미처 몰라왔어요. 오빠.》

《어디 줌, 어디 줌...》

부들거리는 두손으로 금숙의 얼굴을 부여잡고 들여다보는 현덕.

《심청이처럼 너한테 동냥밥을 얻어먹이며 키웠드렸는데 정말 심청이처럼 황후가 되어 나타났구나!》

《오빠, 전 인민군대아저씨들의 등에 업혀 통궁으로 왔어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온 나라가 한가정처럼 사는 북반부의 한식구가 된거예요!》

《참말로, 얼마나 어진 양부모를 만나 이렇게 끝끝하게 자란거냐. 내 그분들을 만나 인사도 못드리고 가는구나!》

《오빠...》

금숙이를 대신해서 금철이가 말해준다.

《현덕선생. 금숙인 어느 양부모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민군대의 손에 의해 애육원에 맡겨진 때로부터 초등학교를 거쳐 대학까지 나라에서 자라우고 공부를 시켰습니다.》

《예?!》

눈물어린 금숙의 시선에서 이 모든것이 사실임을 확인한 현덕이 만선의 손을 쥐며 후덥게 말한다.

《만선군, 이북사회가 이런 세상이었구려. 이런 세상!》

그리고는 금철이쪽으로 돌아서 고개숙여 절을 하며 젖은 목소리로 말한다.

《고맙습니다. 혈혈단신인 제 동생을 데려다가 부모가 되어주시고 친형제가 되어주신 북쪽의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이때 열려진 출입문으로 새어 들어온 《안기부》요원이 현덕에게로 다가가 초조하게 말한다.

《현덕씨, 시간이 다 됐어요.》

그 말에 황황해지는 현덕.

《여보시오. 여보시오. 30분만 시간을 주시오. 30분만. 난 아직 동생과 얘기를 다 못했소!》

만선이라도 곁들어 간절하게 말한다.

《그렇게 좀 해주시오. 이들은 가족들의 안부도 채 나누지 못했소. 예?》

그러나 날카로와지는 《안기부》요원의 목소리.

《만선씨. 어찌자고 이러는거요? 우리가 하는일이 뭐 아이들 장난인줄 알아요?》

그 말에 만선이라도 참던것을 터친다.

《뭇라구요? 그럼 40년만에 만난 형제간의 상봉을 이렇게 갈라놓고 떠나야 한단 말이요?》

《아니 여보...》

《당신들은 왜 따라와 가지고 이 성화요? 당신들은 통일을 하러 왔소? 막으러 왔소? 당신들은 물러가시오. 통일을 하려는 민중의 앞길을 가로막지 말란말이요!》

그러는 사이 《안기부》요원 몇이 더 들어와 현덕의 팔을 끌어내기 시작한다.

《자자-》

금숙이가 소스라치듯 현덕을 붙잡는다.

《아니 오빠, 오빠.》

요원들이 우격다짐으로 문쪽으로 현덕을 민다.

《금숙아-》

《오빠-》

만선이가 허공에서 주먹을 펴며 절규한다.

《여보시오, 당신들도 사람이요?》

오누이의 부르짖음이 처량하게 울린다.

《오빠-》

《금숙아-》

대기실 복도

달려오는 기사들.

《안기부》요원들에게 끌려가는 현덕.

《금숙아-》

놈들에게 앞이 막힌 금숙.

《오빠-》

역구내

렬차가 떠난다.

《오빠-》

피타게 부르며 따라오는 금숙.

그러나 렬차는 기적만을 남기고 떠난다.

그런데 웬일인가.

《빅!》 갈퀴는 소리를 내며 멈춰서는 렬차바퀴.

한 일꾼이 달려오며 소리친다.

《금숙동무, 빨리 오르시오. 동무를 위해서 렬차를 세웠소.》

《예?!》

금철이와 가족들이 달려온다.

《빨리!》

조카애들이 선물꾸레미를 안겨준다.

《고모, 이걸 전해줘요. 저희들이 보내는거예요.》

달리는 렬차복도

여기서도 우리측 안내원과 《안기부》요원들 사이에 말싸미 벌어졌다.

요원들이 오빠를 만나려 렬차에 오른 금숙이네 일행을 또 막아선것이다.

《여보, 당신네한테 인정이라는게 있소? 인디아주의를 입버릇처럼 외우는 당신들이 이들 남매의 상봉을 자꾸 막아나서는 이유가 뭐요? 한형제간의 상봉도 이렇게 무서워하는 당신들이 어떻게 천만 리산가족의 재회와 만남을 마련한다는거요? 예?》

우리측 안내원 김영수의 정연한 론박에 어쩔줄 몰라하는 《안기부》요원들.

《아, 거야 뭐...》

금철이가 앞으로 나서며 놈들을 밀어내친다.

《비키시오. 이 렬차는 우리 렬차며 땅도 우리 지역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법도대로, 인간의 법도대로 현덕선생 남매간의 상봉을 마련해줄 것이며 축복해줄것ий요.》

이때 소식을 안 현덕이가 짹 찬 사람들을 비집고 이쪽으로 온다.

《우리 금숙이가 차에 올랐다면서 ?》

달리는 렬차안

금숙이가 포장한 기념품들을 내놓으며 말한다.

《오빠, 이건 평양오빠네와 제가 보내는거예요.

이안엔 제가 놓은 수예품도 있어요.》

기념품을 받아들고 금철에게 고맙게 말하는 현덕.

《고맙습니다. 잘 간수하겠습니다...》

금숙아, 이번에 내가 평양에 체류하는 기간은 짧았지만 누가 진정으로 통일을 바라고 누가 통일을 바라지 않는가를 똑똑히 알았다. 그리고 인간을 위한 참정치가 어떤것인가를 내 눈으로 직접 보고 간다.

리별이란 가슴아픈 일이지만 이런 좋은 세상에서 사는 너를 보고가니 내 마음이 든든해진다. 네가 만약 서울에 있었다면 몇푼의 돈은 쥐여줄 수 있었어도 것처럼 고귀한 지식과 고결한 정신력은 도저히 줄수 없었을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난 대학이란 엄두도 못낸 사람이다.》

만선이가 동정어린 목소리로 말한다.

《아마 이 사람이 옷을 걷어올리고 제 다리를 보였다면 오빠가 그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고생하며 살아왔는지를 알고 동생이 그냥 소리쳐울것을 겁니다.》

《오빠-》

자신의 지난날에 처량해지는 현덕.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부러진 다리를 끌고 경기장에서 정신을 잃은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그렇지만 세상리치가 다 그러한줄 알았다. 이북에 이런 좋은 세상이 있는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구나.》

《전 오빠가 북반부현실을 바로 알고 떠나는게 정말 기뻐요. 통일이 되는 날까지 곳곳이 살아주세요.》

《오냐.》

금철이가 힘있게 말한다.

《미국놈들을 몰아내고 통일이 되는 그날은 꼭 올것입니다.》

《금철선생, 서울에 나가면 동생을 꼭 찾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서로 북과 남에서 부끄럽지 않게 삽시다!》

기적을 울리며 렬차는 계속 달린다.

관문점으로 달리는 빠스들.

이윽고 분계선을 넘는 남측선수단 일행.

금숙이를 꼭 끼고 걸어온 현덕이가 이윽고 걸음을 멈춘다. 분단선이 한발작 앞에 있다.

헤여지는 오누이.

《오빠-》

동생의 부름소리에 분단선을 뚫던 현덕이가 획 돌아선다.

이윽고 떨리는 온몸으로 말을 한다.

《여러분, 나는 지금 이 세상에 남은 오로지 단 하나의 분단국가인 내 나라의 분단선우에 섰습니다.》

이쪽에 남으면 처자와의 리별이요 저쪽으로 넘어서면 동생과의 리별인 이 분단국가 국민의 쓰라린 마음을 여러분은 보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이고 우리는 누구입니까?

정으로 살고 정으로 죽는 인간, 이 세상 어느 민족과 다름없는 우리도 그런 인간이울시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땅에 사는 우리 민족만이 이런 고통을 숙명으로 받아안고 살아야 합니까?

...

이북에서 나는 많은것을 알았습니다. 이북도 내형제 내 겨레가 사는 땅, 결국 이 나라를 갈라놓은 장본인은 내 민족이 아닌 외세의 침략무리였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싸우겠습니다! 통일을 위하여, 겨레를 위하여, 이 나라의 하나됨을 위하여 몸바쳐 싸우겠습니다!》

《안기부》요원들이 잡아갈자 현덕은 분계선 남쪽으로 넘어섰다.

동생은 북쪽, 다시는 만날수 없게 그들은 갈라졌다.

《오빠-》

《금숙아-》

《현덕선생.》

북쪽에 남은 여럿의 눈물겨운 부름에 현덕이가 손을 들어 인사한다.

《북쪽의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오빠-》

파도

바위에 부서지는 파도!

설화

《서로 찾고 부르는 북남형제들의 목소리 그 누가 막는단 말인가?

막드시 분렬의 장벽은 무너지고 조국통일의 그 날은 오리라! 그날은 오리라!》

통일영웅의 빛나는 삶

리소영

빛나는 삶

총칼앞에서도
꺾이지도 휘지도 않은 의지
고문과 단두대도
굽히지 못한 그 절개가
바로 리인모, 그대의 삶이다

그대는 불굴의 인간
인간의 한생에서 34년을
어둡고 누기찬 철창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은 삶이어

어이 상상인들 할수 있으랴
죽음과 삶의 언덕을 넘나들던
남녘의 산발 지리산이여, 너 말하라
이 나라 한 아들의 장한 모습을

34년간 철창속에 갇힌 몸이었어도
모진 악형과 회유도
그 의지만은 꺾지 못했구나
그 어떤 유혹도 꺾듯이 이겨내고
조국의 아들은 굴함없었구나

그대는 불새, 통일영웅
청춘의 겁던머리 이제는 백발을 날려도
통일의 년대기우에 영원할

이 나라의 장한 아들

한몸의 안락을 위해
개같은 명줄로 살기를 원치 않았다
단두대의 이슬이 될지언정
치욕을 남긴 그런 인간이 되기를 원치 않았다

자랑스럽다
통일의 불새, 통일영웅의 삶이어
그대 나이는 70고령이여도
영원한 청춘 피끓는 젊음을
빼앗기지 않은 투사여

그대는 조국의 자랑
그대 이름 부르며
사람들은 깊은 생각을 안고
조국통일 성전에 자신들을 세워본다

아, 불굴의 인간
철창도 족쇄도 총칼도
통일의 신념으로 멀리 차던진
의지의 사나이여
조국은 영원히 잊지 않으리
조국의 장한 아들
통일영웅의 빛나는 삶이어!

어머니

-리인모로인을 대신하여-

어머니
나의 홀어머니시여
이 아들 돌아오지 않았다고
어머니는 책망하지 않으셨나이다

어두운 독감방
철창속 한점 달빛속에서도
흰옷 입으셨던 인자한 모습 그러보았나이다
그러면 어머니 사랑이 더욱 그리웠나이다

보라빛 감자꽃 피어나던 내 고향 복변
어머니 사시는 내 고향 작은 시내물소리도
정을 담아 이 가슴에 흘려
아, 그런 밤이면 어머니
이 아들은 뜬눈으로 지새웠나이다

무슨 말로
어머니 마음 위로해드리리까
어린 시절 어머니 속만 태운 이 아들을
40여년 세월 기다리다 기다리다
이제는 이 세상에 아니계신 어머니

불효막심한 이 아들 면목 없나이다
어머니께 효도 못한
이 아들의 아픈마음 저리나이다
허나 그 효성 고스란히
조국에 바친 이 아들을
기다리고기다리신 나의 어머니시여

힘한 그 세월에 아버지 잃고
이 아들 하나만 기둥처럼 믿어오신 어머니
어머니 살아생전 기쁨 한번 드리지 못했으니

무슨 말로 이 아들 빌겠나이까

살점이 찢겨 뼈가 보이고
더운 피를 뿌려야 하는 모진 고문속에서도
못잊을 어머니의 그 모습은
내 신념의 주춧돌이 되었고
내 의지의 지탱점이 되었나이다

어머니가 어린 시절처럼
순간마다 걸음마다
이 아들 지켜보시는데
내 어찌 조국을 배반한
역적이 될수 있겠나이까

기다리는 어머니마음에
작은 죄나마 안기게 하겠나이까

어머니를 잊지 않아
이 아들이 원쑤와 싸워 이길수 있었고
기다리는 어머니 계시기에
이 아들은 치욕을 낳지 않았거니

어머니시여
나는 영원히 당신의 기다림속에 사는
조국의 아들이나이다
행복한 아들이나이다

사랑하는 님이여

-안해를 대신하여-

아무리 세월이
멀리 흘러갔다 한들
그립고 그립던 당신의 얼굴
어찌 내 몰라볼수 있겠나요

꽃나이 청춘시절에 헤어져
백발이 된 오늘에 만난다고
그대 님의 모습
어찌 내 몰라볼수 있겠나요

오열을 터뜨려 울고울자니
너무도 억이 막혀 눈물도 안나옵니다
파부 아닌 파부로
살아온 수십년세월
설분의 눈물 흘리자니
너무도 분하여 눈물이 안나옵니다

34년을
죄아닌 죄로 옥고를 치르다니
하늘도 무심코나
생각만해도 치가 떨리고
이몸이 갈가리 찢어지는것만 같아

아 생각하면 어제런듯
찢레꽃 피어나 향기 그윽한
내 고향 동구길
문명퇴치의 밤길 우리 속삭이며 돌아올 때면
달빛은 그 얼마나 유정하고 아름다웠나요

생각나세요

결혼후 살아온 두해는 얼마나 행복했나요
딸애가 태어났을 때
싱글벙글 웃으시던 그 모습
지금도 삼삼히 떠오릅니다

세월이 모질었어도
잊지 못할 그날의 그 사랑에
당신은 티 한점 묻히지 않았고

그 모진 고문과 박해 속에서도
안해에 대한 당신의 사랑에
원쑤들은 실금도 내지 못했어요
우리 사랑 그처럼 뜨겁고
변심을 몰랐기에
당신은 그리도 강직하고
의로운것이 아니었나요

내 검은머리 다 희도록
오로지 그대만을 사랑하고 섬겨온
당신의 안해임을 생각할 때면
가슴은 마냥 행복에 설레입니다

아, 믿어 후회없고
믿어 부끄럼없는 님이여
부디 통일의 그날 만사람의 축복속에
조국이 불러준 《통일부부》답게
나도 땃땃이 당신곁에 서기 위해 살립니다
이 세상에 두번 다시 태어난대도
나는 당신의 안해임을 자랑합니다

나에게도 아버지가 있습니다

-딸을 대신하여-

철없이 자라던 그 시절
동네 아이들 아버지 손목 잡고
기쁨에 겨워 짹짹 토끼뽕 하며
학교로 가는 모습 그리도 부러워
아버지- 하고 불러본적도 있었답니다

소녀시절의 소꿉동무들
아버지는 로력혁신자라고
영웅이라고, 큰공장 지배인이라고
박사라고 저저마다 자랑할 때면
서러워울던 이 딸의 마음을, 어린 그 동심을
아버지 용서하세요

단 한번만이라도 내 자랄 때
내 단발머리 쓰다듬어주신적 없고
내 고향 푸른 언덕위에 피어난 들국화 한송이도
이 딸의 손에 꾸어주신적 없었어도

아버지!
저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남들처럼 대학졸업식장에서
최우등 표창장을 받는 이 딸이 대견해
싱글벙글 웃으시며 축복해주신적 없었건만
제 철들면서는 단한번도
아버지 탓하산적 없었나이다

내 이제는 세아이의 어머니
나를 안아주시기에는
이제는 나도 반백의 녀인
응석을 부리기에는

너무나도 세월이 흘렀나이다
어머니조국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친부모 사랑으로 이 딸을 키워주었고
내 얼굴에 그들이 질세라 돌봐주는 그 품에서
세상에 부럽없이 자랄 뎌
미처 다 몰랐나이다

하루도 아닌
긴긴 수십년 세월을
남모르는 철창속에서도
아버지는 이 딸의 앞길 축복해주었고
더없이 소중한 오늘과 래일을 지켜주신줄
오늘은 다 알았습니다

원썬들의 그 모진 고문도 희유도 곳곳이
이겨내고
애국의 절개와 지조 목숨으로 지켜
자식을 위해준 그런 아버지
세상에 흔치 않아
더더욱 사무쳐 그리운 아버지
아, 조국이 불굴의 영웅으로 불러준 아버지

세상에 대고 소리쳐 자랑하고 싶습니다
귀중한 나의 아버지
이제는 조국이 다 아는 나의 아버지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조국통일

통일이
이 땅에 소원으로만 남는다면
통일이
이루지 못할 우리의 꿈으로만 남는다면
아, 통일의 노래는 불러 무엇하며
목이 쉬도록 웨쳐선 무엇하랴

통일이여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서 오느냐
어디까지 왔느냐

민족이 몸부림치기에는
너무도 많은 대가를 치렀다

억울한 반세기가 흘렀다
살아있는 아버지도 못보고
살아있는 남편도 못만나고

조국통일이
민족속원으로만 남는다면
꽃피는 봄은 있어 무엇하며
열매맺는 가을은 있어 무엇하랴

바라고 바라며 한생을 살다
통일아, 너를 못보고간이 그 얼마고
오늘도 한장 남편의 사진에 얼굴 묻고
오열을 터뜨리는 녀인이 있음을
너 아느냐

너를 당겨오기 위해
바다를 메우고
산을 허물래도 나는 두렵지 않다
너 건너못갈 골짜기에 있다 하면
내 한몸 던져 다리라도 되리라

금시 손을 뻗치면 잡힐듯
저 지평선우에 아침해처럼
불쑥 나타날것만같은 통일!

아, 뛰며 달리며 너를 위해 다 바칠
나의 삶, 민족의 삶 통일!

통일은 소원만이 아니다
너나없이 투쟁으로 안아와야 할
통일은 꿈만이 아니다
통일은 미룰수 없는 오늘
오늘의 현실이어야 하리라

손을 잡자

김석천

나도 좀...
나도 잡아봅시다!
사선을 넘어온
사랑스런 성희의 손우에
덧놓이는 손, 손들...

환희에 찬 축전광장에서
수경의 손을 잡고 놓지 못하던
그 손들이, 평양의 손들이
지금 다시
《전대협》의 손을 뜨겁게 잡는다

잡고보니
남이 아닌 내 겨레가 분명타
움켜쥔 손과 손을 거쳐
톡톡 심장의 피가 통하는
아 민족의 혈액!

이렇게 손잡으니
긴말이 필요치 않구나
손을 잡으면
반드시 하나가 된다는
명백한 리치
달아오른 모습들에 비껴있지 않는가

벌써 손을 잡았더라면
손잡고 걸어서 오갔더라면
분계선에 놓인 길
이제는 패여서 깊은 골이 되었으리
손잡고 열차를 타고 오갔더라면
림진강 철교우의 레루장도
이제는 닳고닳아 그 몇번 갈아냈으리

아, 손잡고 손잡고
북남겨레 분계선에 나무를 심었다면
지금쯤은 무성한 열매림속에서
우리의 아이들이 즐겁게 뛰놀게다

향기속에 취해 해가는줄 모를게다

분단선이 감긴 국토에서
아프게 조이는 모진 상처를 두고
차마 눈을 감을수 없어
고령의 목사가 평양으로 오고
해외의 백발들도 하늘길을 날고...

손을 잡자 겨레여
7천만이 손을 잡고 큰 주먹이 되자
혼자서 두드려서는
백년 가도 깰수 없는 수난의 장벽
손을 합쳐 짓조기면
순간에 부서질 어리석은 장벽

갈라져 피가 흐른
이 나라의 반세기가 그것을 가르쳤다
오로지 민족의 대단결만이
외세의 팔목을 잘라버릴수 있고
우리 서로 오고갈
자유로운 삼천리를 펼칠수 있음을,

손을 잡자
몽쳐서 천백배 강해진 손으로
분계선 패말을 뚫아던지자
힘이 넘치는 그 손으로
황량한 지뢰밭을 갈아번지고
우리 동포 촛불 원무장을 만들자

커지는 손이어
몽쳐지는 주먹이어
통일은 결코 멀리에 있지 않다
우리 민족 하나로 추켜든 손우에서
통일연의 촉포가 날아오르리
가슴 젖히고 시름놓고 바라볼
하나된 하늘이 열려지리라!

기다리는 마음

박혜란

정작 제목을 써놓고보니 《기다린다》라는 동사 하나가 이렇게도 하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킬줄은 미처 몰랐다.

사람들은 흔히 인생을 앞날에 대한 기대와 념원의 연속과정이라고도 한다. 오늘의 행복한 생활보다 휘황찬란한 래일에 대한 공상, 그것이 성취되면 또 더 높이 나래치는 우리의 희망...

하지만 내 지금부터 이야기하려는것은 너무도 가슴아픈 사연이 깃든 기다림이다.

우리가 광복거리의 유서깊은 갈림길을 마주하여 자리잡은 한 고층살림집에 다달았을 때는 해가 서산으로 기울무렵이었다.

불빛 환한 승강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간 우리는 2호라고 쓴 문앞에 이르러 하얀 초인종을 눌렀다. 그러자 노래선물파도 같은 신호소리가 《딸-통-》하고 울려었다.

(누가 나올가?)

문이 열리고 소박한 방안옷차림을 한 주름잡힌 얼굴의 녀인이 문가에 나타났다.

존수하고 강직해보이는 얼굴, 항시 그 누구인가를 기다리다 뿔쳐나온듯한 거동, 이것이 녀인의 첫 인상이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를 뵈자고 왔어요.》

생면부지의 손님으로서 우리는 그에게 랑해를 구하였다. 순간 녀인의 얼굴에는 실망의 그늘이 언뜻 나타났다 사라졌다.

어째서일가? 우리 말고 또 다른 손님들을 기다리고있었는가?

우리가 주춤거리자 그는 손님에게 오해가 생길세라 이어 밝은 표정을 지었다.

《매일 이렇게 고마운분네들이 찾아온다우...》

통일애국의 변심없는 마음으로 기나긴 옥중고초를 꿋꿋이 이겨온 리인모로인의 전설같은 이야기와 더불어 오매불망 남편을 손꼽아기다리는 그의 안해 김순임녀성의 집을 찾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그칠새 없다.

녀인의 손에 이끌려 방안에 들어서니 첫눈에 밝은 정서가 안겨왔다. 집사람들의 단정하면서도 열정적인 품성이 방안의 장식물이며 꾸밈새에 깃

들어있었다.

우리는 자리에 마주앉아 녀인의 얼굴을 점도록 지켜보았다. 40여년동안 쌓으며 묻어두었던 그리움을 글줄에 담아 남편의 사랑하는 남편에게 편지로 보냈으나 님은 못오고 애절한 그리움만이 더해지는 답장만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문득 떠올랐다.

행복한 제도하에서 남편없는 고통을 동시에 겪으며 살아온 류다른 생활속에 한돌기 두돌기 주름잡히고 한오리 두오리 흰머리칼이 생겨나 이제는 할머니가 되었어도 세월은 한생을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고스란히 간직해온 녀인의 얼굴에서 젊은 시절의 흔적을 앗아가지 못했다.

창가에 있는 책상우에는 편지들에 수북하니 쌓여있었다. 아마도 녀인은 그 편지들을 읽고있었던 모양이었다. 우리의 의혹어린 표정을 읽은 그는 웃음을 띄우고 말했다.

《이게 다 전국각지 사람들이 나한테 보내온거라우.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함께 나누자구...》

결봉에는 각이한 주소들이 써여있었다. 평양시 중구역... 온성군 온성읍... 량강도 대흥단군...

수십장이나 되는 그 편지들에는 하나와 같이 《김순임 앞》이라는 받을 사람의 이름이 밝혀져있었다. 그러고보면 한 가정의 일을 두고 온 나라가 제일처럼 관심해주고있는것이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궤도전차안이나 역들의 기다림칸에서 지어는 아이들의 등교길에서조차 화제의 중심으로 된 리인모로인에 대한 이야기를 놓고 울고웃지 않는 사람이 없다. 이것은 미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나라가 분렬된 우리 조국의 가슴아픈 력사의 한페지이다.

녀인은 흘러간 세월의 갈피갈피마다 묻어두었던 지난날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었다.

처녀시절 남편과 처음으로 만났던 일, 결혼후 별들이 반짝이는 어느날 밤 산보길에서 순임이가 이슬이라면 늘 눈에 넣고다니겠다고 하던 뜻깊고 정넉친 말, 40여년 세월이 흐르도록 어느 하루도 잊은적 없는 남편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

어느덧 그의 눈가에 축축한것이 고여올랐다.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하였다. 얼굴에는 새각시 솟시절처럼 홍조까지 비껴있었다.

우리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글썽해졌다. 참으로 가슴아픈 그리움의련속이었다. 만약 조국이 돌로 갈라지지 않았더라면 한쌍의 원앙부부로 일생을 행복하게 보냈을것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외세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갈라진 민족이 하나로 통일되는것은 역사적필연성입니다.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동포들은 희망과 신심을 가지고 하나로 굳게 뭉쳐 힘차게 투쟁함으로써 1990년대를 역사적인 조국통일의 년대로 되게 하여야 할것입니다.》

김순임녀성의 가정이 겪는 비극은 단지 한 가정에만 있는 비극이 아니다. 한파줄, 한강토를 가지고서도 서로 헤어져 사는 온 민족이 겪는 비극이다.

우리가 문을 열던 첫순간 기대어린 표정이 실망으로 바뀌던 녀인의 심정을 비로소 리해할수 있었다. 남편이 돌아온다는 꿈같은 소식을 그 누군가가 전해울것 같아 오늘일가 래일일가 학수고대하면서 문밖에서 울리는 초인종소리만 나면 가슴이 울렁인다는 녀인. 이제 만날제 수십년 긴긴 세월 쌓이고쌓인 그리움을 서로 부둥켜안고 터친다면 잠시나마 마음이 개운해질수 있으련만 통일을 가로막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때문에 서로 만나지도 못하는 안타까움을 과연 언제까지 안고있어야만 하는지 ...

녀인은 문밖에서 우리를 바래주며 이렇게 말했다.

《남편이 돌아온다는것은 통일이 된다는것이라는데 내 모르지 않소. 그래서 더더욱 기다리게 되는거라오.》

기다림은 서로 만남을 의미하는것이요 그것은 또한 통일이 다가온다는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통일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전국곳곳에서 지성어린 물품들이 이 집으로 오고있다. 이불이며 옷가지, 가구들, 보약들...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한생을 바친 리인모로인을 처자가 있는 집으로 돌려보내는것은 인간의 초보적인 도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와 남조선피괴도당은 한가정의 소박한 기원마저도 수십여년동안 짓밟고있었으며 지금도 리인모로인의 귀가를 가로막고있다. 이것이야말로 통일을 달가와 하지 않는 매국배족행위가 아닌가.

우리는 뿔어오르는 의분을 참을수 없어 남쪽하늘에 증오의 눈길을 보냈다.

통일의 열기는 지금 막을수 없는 시대의 흐름으로 되였다. 이 시대의 흐름을 막으려는자들이야말로 력사의 반동이며 시대착오적인 망상에 사로잡힌자들이다.

어느덧 광복거리의 날은 저물고 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 반짝이기 시작했다. 리인모로인도 남녘의 어디에서 저 별을 보며 그리운 처자를 생각할것이다. 그뿐아니라 안해며 가족들 그리고 온 나라 인민들도 저 별을 바라보며 통일의 날을 그릴것이었다.

그렇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의 3대원칙이 투쟁의 기치로 되고있고 통일열의로 충만된 온 민족의 단합된 힘이 투쟁의 무기로 되고있을진대 1990년대에 통일의 문은 반드시 열릴것이다.

이제 머지 않은 앞날에 리인모로인의 집에 또 다시 초인종소리가 울릴 때 김순임녀성은 남편과 함께 행복한 미소를 짓고 우리들을 맞이할것이다.

그날은 반드시 오리라, 반드시...